

다산학술문화재단

제44회
다산학 학술회의
The 44th Conference of Tasan Studies

| 다산 서거 190주년 기념 |

청년 다산

일시 | 2026년 4월 17일(금) 10시~18시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주최 | 다산학술문화재단

다산학술문화재단

제44회
다산학 학술회의
The 44th Conference of Tasan Studies

| 다산 서거 190주년 기념 |

청년 다산

학술회의 시간표 (TIME TABLE)

식 순	시간 (발표30, 논평10)	주제	발표자 및 논평자
개 회	10:30-10:40	개회사: 정순우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사 회: 황병기 (서경대학교 특임교수)	
발표1	10:40-11:20	청년 다산의 행동 원칙	발표: 정민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발표2	11:20-12:00	성균관 유생과 규장각 각신 시절 다산이 경험한 서적문화	발표: 노경희 (울산대학교 글로벌인문학부 교수) 논평: 이도현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발표3	12:00-12:40	정조 연간 다산의 관직 생활과 남인 문단에 관한 기억	발표: 백승호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부교수) 논평: 부유섭 (제주대학교 연구원)
오 찬	12:40-14:20	사진촬영 및 점심식사	
발표4	14:20-15:00	다산의 목민(牧民) 사상과 영남(嶺南) 남인(南人)	발표: 박철상 (한국문헌문화연구소 소장) 논평: 이철희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발표5	15:00-15:40	정약용의 사유 속 이벽(李穡)의 음영 : 심성과 공부의 지평에서	발표: 조현웅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강사) 논평: NOE Jee Hyun (리옹3대학 부교수)
발표6	15:40-16:20	청장년기 다산 문학 학문의 연원 : 가학과 근기 남인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발표: 김영진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논평: 윤재환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휴 식	16:20-16:30	중간휴식 및 장중정리	
총 합 론	16:30-17:40	좌장: 김언중 (한국고전번역원장)	
폐 회	17:40		

순서 (順序)

■ 발표 1 청년 다산의 행동 원칙	01
정민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발표 2 성균관 유생과 규장각 각신 시절 다산이 경험한 서적문화	31
노경희 (울산대학교 글로벌인문학부 교수) 논평: 이도현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발표 3 정조 연간 다산의 관직 생활과 남인 문단에 관한 기억	49
백승호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부교수) 논평: 부유섭 (제주대학교 연구원)	
■ 발표 4 다산의 목민(牧民) 사상과 영남(嶺南) 남인(南人)	61
박철상 (한국문헌문화연구소 소장) 논평: 이철희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 발표 5 정약용의 사유 속 이벽(李穡)의 음영 : 심성과 공부의 지평에서	75
조현웅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강사) 논평: NOE Jee Hyun (리옹3대학 부교수)	
■ 발표 6 청장년기 다산 문학 학문의 연원 : 가학과 근기 남인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101
김영진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논평: 윤재환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청년 다산의 행동 원칙

정민(한양대 국문과 명예교수)

목차

1. 머리말
2. 내가 본 젊은 '나'
3. 타협 없이 직진한다
4. 정면에서 돌파한다
5.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6. 은원(恩怨)과 시비가 분명하다
7. 맺음말

1. 머리말

청년 다산은 어떤 사람이었나? 유배 이전 여러 기록에 보이는 젊은 다산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다산의 여러 글에 담긴 젊은 시절의 자기 인식과, 문집과 여타 기록에서 교차 확인되는 행동 특성을 가려 뽑아, 젊은 시절 다산의 성향과 기질을 점검하고, 저변에 일관되게 흐르는 다산의 행동 원칙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다산의 젊은 날은 서학과의 접점을 빼고 설명할 길이 없다. 이벽과의 만남을 통해 서학에 감전된 이후, 다산은 자신의 내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호의 또는 적의에 대응해야 했다. 임금의 사랑과 가문의 기대, 공서파(攻西派)의 분노가 엇갈리면서 걸음마다 덧과 함정이 놓인 백척간두에 서야 했다. 선을 넘지 않으면서 내면의 가치도 지켜야 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그는 자주 노출되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청년 다산의 아찔한 줄타기는 전적으로 서학 탓이었다.

다산은 광종본 「자찬묘지명」의 명사(銘辭)에서 '하주지총(荷主之寵)'과 '하천지총(荷天之寵)'을 나란히 세웠다. 그는 천주와 군주라는 두 개의 하늘을 동시에 품었던 양두사족(兩頭蛇族)이었다. 필자는 최근 명말 초대 천주교도였던 손원화(孫元化, 1581-1632)가 「양두사(兩頭蛇)」

라는 시에서 제출한 양두사족의 개념을 다산에게 적용해 본 바 있다.¹⁾ 다산은 요순공맹의 유학적 가치와 천주의 진리가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었다. 이것을 버려 저것을 취하거나, 하나를 죽이려다 둘 다 죽고 마는 것이 아닌, 이것과 저것의 경계를 허물어 둘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를 허용치 않은 세상의 요구에 맞서 그는 계속 뜻과 어긋나는 굴곡진 삶을 살았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언행은 때로 날카롭고, 다혈질에 성마른 성격을 지닌 정면돌파형 인간의 그것에 가까웠다. 그는 늘 날이 서 있었고, 적당히 타협할 줄 몰랐다. 섣을 지고 불에 뛰어들망정 구차미봉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법은 배우지 않았다. 이 때문에 큰 댓가를 치러야 했고, 질러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거나, 아예 갈 수 없었다.

강진 유배 후 다산은 결이 한결 뉘어졌다. 직접적인 공격의 가시권에서 빗겨났기 때문이지 기질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강진 시절 다산의 인간상과 학술 성취의 경이는 젊은 다산의 시절을 거쳤기에 가능했다. 혹독한 시련이 준 무심이 달관의 경지로 넘어갔어도 기질만큼은 좀체 바꾸지 못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걱정적이고, 불의에 분노했으며, 권위에 굴종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청년 다산의 내면을 자신의 검증에 타인의 시선을 겹쳐 몇 가지 행동 특성으로 갈래 지워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봉폐된 한 시대와 뜨거운 질문으로 맞섰던 한 위대한 영혼의 내면과 만나고 싶다.

2. 내가 본 젊은 ‘나’

다산은 「제가승초략(題家乘抄略)」에서 자기 집안의 풍기를 ‘근졸선양(謹拙善諒)’의 네 글자로 압축했다. 근(謹)은 윗 사람의 뜻에 따라 비리를 저지르거나, 세력가를 추종하여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졸(拙)은 겉으로 겁내는 듯 조심스럽지만 실제로는 굳건하여 권력 쟁탈에 앞장서지 않는다는 의미로 썼다. 선(善)으로는 마음이 선량하여 독기가 없는 대신 결기도 없어서 원망을 품거나 악을 보복하지 않음을 말하였고, 양(諒)에서는 허황된 말을 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었다는 뜻을 말하였다. 다산은 다시 이를 묶어 한결을 물려서 남을 앞서려 하지 않고, 중도를 따르는 행동 특성으로 정리한 뒤 이를 자기 집안에 흐르는 공통 DNA로 설명하였다.²⁾ 일종의 자기 규정을 겸한 글이기도 했다.

다산은 젊은 시절의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규정했을까? 1897년에 올린 「자명소」, 정

1) 정민, 「다산이 꿈꾸었던 세상-다산과 천주교」, 『대동문화연구』 132집(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5. 12), 233-271면.

2) 정약용, 「題가승초략」, 『다산시문집』 권14 : “吾家別有一種風氣, 今約略言之. 一曰謹, 當國家板蕩, 亦未有危忠烈節殉身滅門之慘, 然未嘗順旨爲非, 趨勢爲惡. 故見幾而作, 不與其難, 不失爲良臣拂士也. 二曰拙, 遇事先之以遠慮, 外若怯懦, 中實貞固, 一切權要傾奪奮發之場, 每斂縮不居前, 雖無大勝, 亦無大敗. 不唯仕宦爲然, 雖窮而在下者, 其治家理物如此. 故達之無大官, 窮之無大富也. 三曰善, 凡以丁爲姓者, 其心皆良善無毒. 無毒者如云無結氣也. 其中雖參錯不齊, 畢竟不宿怨不報惡, 則無不然也. 四曰諒, 吾於父兄宗族, 或有疵病, 亦安得諱之? 但平生不見有一句撒謊也. 吾先人三昆弟, 鎮川公·海左公兄弟·稷山公兄弟, 諸凡有望於宗中者, 未聞有一句謊說被人敗露也.”

확하게는 「비방에 대해 변명하며 동부승지를 사직하는 상소문(辨謗辭同副承旨疏)」에서 다산은 20대 초반의 자신을 이렇게 말했다.

그 성품과 힘이 조급하고 경솔하여 무릇 어렵고 깊으며 교묘하고 꼼꼼한 영역의 글을 본시 세심하게 연구할 수 없다 보니, 그 찌꺼기와 그림자나 메아리조차 마침내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사생(死生)의 주장에 얽혀들고, 이기기를 즐겨하고 자신을 자랑한다는 가르침에 솔깃했으며, 뺄어떨어진 박학한 글에 미혹되어, 유문(儒門)의 별파(別派)로 간주하고 문단의 기이한 감상 거리로 보아, 남들과 담론하면서도 거리끼는 바가 없었고, 다른 사람이 헐뜯어 배척하는 것을 보면 과문하고 못나서 그렇다고 의심하였습니다. 그 본의를 따져보면 대개 새로운 지식을 넓히고자 했기 때문입니다.³⁾

자신이 서학에 빠지게 된 경위를 직접 해명하는 글에서 다산은 자신의 조급하고 경솔한 성품과, 남과 토론할 때 아무 거리낌이 없고, 남의 비난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강한 기질에 대한 자기 인식을 드러냈다.

다음은 34세 금정찰방 시절 다산이 이익운에게 보낸 「답이계수(答李季受)」에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 말한 대목이다.

제가 습성이 조급해서 함양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주자께서 말씀하신 태양증(太陽症)을 눌러 앉히기가 가장 어려워, 굳이 애를 써서 가라앉히려 들면 도리어 반울(蟠鬱), 즉 답답해 치받는 증세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혹 처음에 가로막힘을 능히 면치 못하는 바이니, 오래 공력을 쏟으면 점차 마땅히 순화되겠는지요?⁴⁾

성격이 조급해서 묵직하게 누르는 함양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다. 옳다고 생각하면 즉각 행동에 옮기므로 안주(按住), 즉 눌러 앉히기가 힘들다. 억지로 억제하려 들면 딱 막혀 치받는 증세가 일어나 태양증이 도진다고 썼다. 태양증의 소유자들은 양기가 너무 강해 남을 굴복시키거나 지배해야 직성이 풀린다.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직선적인데다 저돌적인 성향을 보인다.

「여유당기(與猶堂記)」에서는 또 이렇게 썼다.

나의 병통은 내 스스로 알고 있다. 용감하나 피가 없고, 선을 좋아하나 가릴 줄을 모른다. 뜻에 맡겨 곧장 행하여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을 그쳐야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느껴지면 반드시 그만 두지 않는다. 할만한 점이 없어도 마음에 영겨 통쾌하지 않을 경우, 틀림없이 그만두지 못한다. 이 때문에 어렸을 때는 일찍이 방외로 내달리면서도

3) 정약용, 「辨謗辭同副承旨疏」, 『다산시문집』 권 9 : “其性力躁率, 凡屬艱深巧密之文, 本不能細心究索, 故其糟粕影響, 卒無所得. 而乃反繳繞於死生之說, 傾嚮於克伐之誠, 惶惑於離奇辯博之文, 認作儒門別派, 看作文垣奇賞, 與人譚論, 無所忌諱, 見人詆排, 疑其寡陋. 原其本意, 蓋欲以博異聞也.”

4) 정약용, 「답이계수」, 『다산시문집』 권18 : “鏞習性躁急, 涵養無素. 朱夫子所稱太陽症, 最難按住. 用力按住, 轉成蟠鬱, 此或初頭扞格, 所不能免, 久久用工, 漸當理順耶.”

의심하지 않았고, 장성하여서는 과거(科擧)에 빠져 뒤돌아보지 않았으며, 서른이 되어서는 이미 지나간 후회를 깊이 되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을 즐거워함에 싫증냄이 없었지만 비방을 입음이 유독 많았다. 아! 이 또한 운명인가?⁵⁾

옳다는 확신이 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단 행동에 옮긴다. 좋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끝장을 봤고, 그만두어 마땅한 일도 스스로 그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손해인 줄 알면서도 밀어붙였다.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반복해서 강조해 그만큼 강한 자기애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많은 비방이었다. 글은 두려워 조심한다는 뜻의 ‘여유(與猶)’를 당호로 내거는 연유를 설명했지만, 이 글로 그의 뾰족한 기질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

61세 때인 1822년, 광중본 「자찬묘지명」에 쓴 다산의 자신에 대한 묘사는 이렇다.

그 사람됨은 선을 즐거워하고 옛것을 좋아하였으며 행위에 과감하였다. 마침내 이 때문에 화를 취하였으니, 운명이다. 대저 평생에 지은 죄가 너무도 많아 허물과 후회가 마음 속에 쌓여 있다.⁶⁾

낙선호고(樂善好古)의 귀한 뜻을 품었음에도 행위에 과감했던 탓에 취화(取禍)의 운명을 자초했다. 행위에 과감했다 함은 앞뒤 재지 않고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의미다. 사회적 검열과 금기를 재고 가늠하기보다, 자신의 신념과 확신에 충실하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짧은 득의를 뒤로하고 일생을 고난과 고통 속에 지냈다.

해배 뒤인 1820년 9월 4일에 영남 사는 벗에게 쓴 편지에서 다산은 “제 일생은 마갈궁(磨竭宮)이어서 단지 허무라는 두 글자 뿐입니다.”⁷⁾라고 자조했다. 마갈궁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끄는데, 소동파의 『동파지림(東坡志林)』에 「한유가 평생 비방과 기림이 많았다(退之平生多得謗譽)」란 글에 설명이 보인다.

한유(韓愈)의 시에 “내가 태어나던 날, 남두성(南斗星)에 달 있었네.(我生之辰, 月宿南斗)”라고 했다. 이걸 보면 한유가 마갈궁(磨竭宮)에 속하는 것을 알겠다. 나 또한 마갈궁의 운명을 타고나서 평생 비방과 기림을 많이 입었다.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⁸⁾

마갈궁은 황도(黃道) 12궁(宮) 가운데 염소 자리(Capricornus)로, 마갈궁의 운명을 타고난

5) 정약용, 「여유당기」, 『다산시문집』 권13 : “余病余自知之. 勇而無謀, 樂善而不知擇, 任情直行, 弗疑弗懼. 事可以已, 而苟於心有欣動也, 則不已之. 無可欲而苟於心有礙滯不快也, 則必不得已之. 是故方幼眇時, 嘗馳驚方外而不疑也, 既壯陷於科擧而不顧也, 既立深陳既往之悔而不懼也. 是故樂善無厭, 而負謗獨多, 嗟呼, 其亦命也!”

6) 정약용, 「자찬묘지명 광중본」, 『다산시문집』 권16 : “其爲人也, 樂善好古, 而果於行爲, 卒以此取禍命也. 夫平生罪孽極多, 尤悔積於中.”

7) 정약용, 「與人」, 『다산간찰집』(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此身一生磨竭, 只是虛無二字.”

8) 소식, 「退之平生多得謗譽」, 『동파지림』 권 1 : “退之詩云: ‘我生之辰, 月宿南斗.’ 乃知退之磨蠍爲身宮. 而僕乃以磨蠍爲命, 平生多得謗譽, 殆是同病也.”

사람은 일생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곤고한 운명을 산다. 마갈궁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의 행동 특성은 이렇다. 첫째, 압도적 재능과 총기를 타고난 천재로, 특별히 문장에 뛰어나다. 둘째, 수틀린 꼴을 참는 법이 없어, 이로 인해 큰 시련을 겪지만 타협하지 않는다. 셋째,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해 고통을 자초하고, 옳지 않은 길은 죽어도 안 간다. 넷째, 일확천금의 기회가 생겨도 거들떠 보지 않고, 어떤 권력 앞에서도 할 말은 다 한다.⁹⁾

다산은 순양(純陽)의 기질을 타고난 태양증에다 일생 곤고한 마갈궁의 운명이었다. 과감한 직진형이어서 좀체 자신을 굽히지 않았고, 자기 확신이 강해 납득되기 보다는 상대를 꺾어 제 뜻으로 관철시키려 했다. 이로 인해 평생 비방과 구설을 달고 살았다. 이후로도 매번 비슷한 상황과 맞닥뜨리면 돌아가는 법 없이 정공법으로 돌파했다.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았고, 권위에 휘둘림 없이 자기 길을 갔다. 그가 인식한 그는 마음이 석연하고 통쾌하지 않으면 스스로 못 견디는 태양증에 더하여 타협 없는 마갈궁의 기질이었다.

3. 타협 없이 직진한다

청년 다산은 다혈질에다 성마른 성격의 저돌적 파이터였다. 옳다는 판단이 서면 앞뒤를 가리지 않았다. 신앙의 가치나 자신이 속한 파당의 이익, 또는 가문의 존망 등이 걸려 있을 때는 싸움의 강도가 더 세졌다. 그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고, 자신이 옳다 여긴 가치를 위해 헌신했다.

1791년 겨울, 채제공은 이가환과 이승훈, 정약용 등의 잇단 서학 문제로 상당한 곤경에 처해 있었다. 채제공이 마침내 이들을 손절할 결심을 하고 임금께 올릴 차자(劄子)의 초고를 써서 보료 아래 넣어두고 이튿날 글을 올려 이들의 죄를 청하려던 참이었다. 새벽에 아들 채홍원이 다급하게 아침 문안을 와서 고하는 말이 이랬다.

간밤에 정약용이 와서 이야기하더군요. ‘대감께서 우리 세 사람을 죽이려 하시는 데, 세 사람이 죽으면 자네가 홀로 능히 편안할 수 있겠는가? 자네는 물에서 사람을 건지면 그 사람이 반드시 손을 당겨서 들어간다고 한 말을 들어 보지 못했던가?’ 정약용의 이 말이 몹시 두려워할 만합니다. 만약 차자를 올리시면 화가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¹⁰⁾

9) 마갈궁 관련 내용은 정민, 『파란』(천년의상상, 2019), 47-57면에서 자세히 살폈다.

10) 이재기 저, 정민 역, 『놀암기략』(김영사, 2022), 119면 : “乙卯冬, 樊翁告病謝客, 獨處孤室, 非家人不得見. 翁作小劄, 請罪李家煥諸人. 草成, 攝置座褥下. 獨蔡潤銓在傍, 知其狀, 然其措語緊緩, 未之詳也. 翌曉頤叔問寢訖, 告曰: ‘昨夜美容來言, 大監欲殺我三人, 三人死, 則君獨能晏然乎? 君獨不聞, 濟人於水, 人必援手而入者乎? 美容此言, 甚可畏也. 若上劄則禍必至矣.’ 翁瞑目不答. 朝飯, 至用匙箸倒豎, 床頭錚錚有聲. 仍終日不語, 若有忿怒者. 日暮燭至, 乃取劄草焚之.” 다만 이 글을 쓴 시점을 을묘년(1795) 겨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을묘년이 아닌 신해년(1791) 겨울로 보인다. 1827년 10월에 윤극배(尹克培, 1777-1839)가 올린 상소에 신해년 겨울, 진산 사건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蔡相亦因此驚慮, 草成一草, 將欲發告丁、李. 而及其未徹, 若鏞因其庶妹之爲蔡相

손절의 기미를 눈치 챈 다산이 발 빠르게 한밤중에 아들 채홍원을 찾아가, 만약 자기들을 손절하면 결코 그저 당하지 않고 물귀신 작전으로 너까지 물고 들어가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채제공은 눈을 부릅뜬 채 대답 없이 아침밥을 먹다가, 수저를 거꾸로 세워 밥상을 연신 광광 내려쳤다. 그렇게 종일 말없이 분노하다가, 저물녘에 보료 밑의 초고를 꺼내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다.

당시 다산의 서매(庶妹)가 채제공의 서자 채홍근(蔡弘謹)과 혼인하여 두 집안은 사돈을 맺은 상태이기도 했다.¹¹⁾ 이 일을 기록으로 남긴 이재기는 집안 사람 채운전이 직접 목격한 뒤 자신에게 전해준 이야기라고 썼다. 이가환과 자신이 채제공을 위해 그토록 헌신했는데도 서학을 이유로 절연하려 하자 자기 당여(黨與)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보아 자신이 섬겼던 재상이자 사돈을 향한 협박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1795년 금정 시절 초기 다산은 호남의 성정진과 조익현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다. 「광주(光州) 목사 성정진(成鼎鎭)에게 줌[與成光州鼎鎭]과 「진사 조익현(曹翊鉉)에게 줌[與曹進士]」 등이 그것이다. 편지 속 다산의 어조는 다소 격앙된 상태였다. 성정진(成鼎鎭, 1738~1815)은 당시 광주 목사로 재직 중이었고, 뒤에 승지를 거쳐 대사간에 올랐던 인물이다. 편지는 이랬다.

근자에 들으니 호남에서 선동(煽動)이 자못 심하다더군요. 이를 진정시키는 책임은 집사께 달렸고, 깨우쳐 인도하는 처방은 원발(元發) 성영우(成永愚)와 관계됩니다. 대저 그런 뒤라야 호남 지방으로 하여금 잘못에 연루됨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진사(進士) 조익현(曹翊鉉)에게 가는 편지는 바로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 중에도 요긴한 문자를 담고 있으니, 조공(曹公)에게 한번 보여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¹²⁾

자신들을 향한 호남의 선동과 비방이 극렬하니, 성정진이 진정시켜 아들 성영우에게 경거망동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를 담았다. 지금 그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호남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것이라고 했다. 말투가 가파르고 양갈졌다. 성정진은 다산보다 24살이나 연장이었다.

함께 거론한 조익현은 아버지 정재원이 화순현감으로 있을 당시 다산 형제를 아꼈던 재지사족으로, 당시 광주 쪽에서 돌던 비방의 구체적 내용은 다산이 이때 같이 조익현에게 보낸 편지에 비교적 자세하다. 그것은 광주의 유생 몇 사람이 성균관에 글을 보내 이가환, 권일신, 이승훈, 홍낙민, 이기양, 이윤하, 정약전, 정약용 등 서학과 관련 있는 인물들의 경중(輕重)과 심천(深淺)을 일일이 열거해서 비방한 일이었다. 이 통문을 주도한 것이 성영우였고, 다산은

子婦, 瓜葛之親, 乘夜投入, 哀乞弘遠, 恐脅弘遠.”이라 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윤극배의 상소문은 『실록』과 『일성록』에는 없고, 『패림(稗林)』 권20, 「순조기사(純祖紀事)」 중 488a-493b에 걸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11) 전후 사실은 정민, 『다산의 일기장』, 앞의 책, 288-298면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12) 정약용, 「與成光州鼎鎭」, 『다산시문집』 권18 : “近聞湖南鼓煽頗甚. 其鎮定之責在執事, 其曉譬之方係元發. 夫然後始可使湖南一方, 不至誣誤也. 此去曹進士書, 幸即傳致之. 其書中亦帶著要緊文字, 使曹公一番投示, 無妨也.”

그의 부친인 성정진에게 바로 편지를 보내 아들 단속을 잘하라고 경고한 것이다.¹³⁾

성정진에게는 짧은 두 줄의 글만 보내고, 자신의 구체적 불만은 조익현에게 보낸 편지에 실었다. 조익현에게 갈 편지를 일부러 성정진에게 함께 보내 공유케 함으로써 반대 여론의 확산을 경고하는 동시에 심리적 압박을 겸한 양동 작전이었다. 수틀리는 것은 참지 못하고 직격하는 젊은 날 다산의 직정적 성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1795년 8월 23일, 다산은 강학회의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 한강동의 한산 이씨 집안을 찾았다. 이때 다산은 자신보다 나이가 22살이나 많은, 그 지역의 명망 높던 선비 이도명(李道溟, 1740-1818)과 냉랭한 대화를 짧게 나눴다. 강학회를 성사시켜 자신의 면죄부를 앞당기려던 다산의 의도를 간파한 이도명은 이후 다산의 잇단 면담 요청을 거부한 채 8월 28일 편지를 보내 “그대는 어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같은 거동이 있는 것입니까?”라며 매섭게 추궁했다.

다산은 일의 성사를 위해 최대한 공손하게 답장하고 그를 추켜세우며 두 차례의 공방을 넘겼다. 3차전은 10월 26일에 이도명이 다산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학회를 밀어붙이는데 격분하여 이도명이 다시 답장을 보내면서 불이 붙었다. 큰일을 앞둔 다산은 한번 더 참고 결을 놓혀 그를 달랬다. 이 글에서도 비굴하게 속이는 기미는 전혀 없고, 당신의 딱 막힌 생각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투로 도문학(道問學)에 머물지 말고 존덕성(尊德性)에 힘써야 함을 강조해서 은근히 누르는 뜻을 보였다.¹⁴⁾

결국 분을 못 삭인 다산은 「도산사속록」의 한 단락에서 명백히 이도명을 겨냥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남겼다.

하물며 발두둑 사이에 궁하게 사는 선비로, 나아가 세상에 능히 쓰이지 못하고 물러나 능히 사우(師友)나 제자와 더불어 선왕의 도리를 강론하여 밝힐 수가 없을 경우, 설사 후세가 살펴 서술할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루함을 편안히 여기고, 그 오만함을 장점으로 안다. 남과 더불어 서로 접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 겸손으로 이를 꾸며, 길게 읊하고 바르게 무릎을 꿇고, 방자하게 존덕성(尊德性)으로 자처하는 자는 주자나 퇴계의 가법(家法)과는 다름이 있을까 걱정스럽다.¹⁵⁾

나이 많은 이도명을 대놓고 치받지 못해 「도산사속록」을 빌어 이도명에게 쓴 소리를 남긴 것이다.

9월 14일에는 부여 북계(北溪)로 가서 진사 윤취협(尹就協, 1727-?)을 만나 강학회 일에 협조를 요청했다. 11월 강학회가 끝난 직후 다산은 윤취협에게 편지를 썼다. 다음은 그 중 한 대목이다.

13) 이와 관련된 전후의 자세한 맥락은 정민, 『다산의 일기장』, 앞의 책, 101-108면을 참조할 것. 당시 성영우 등이 낸 통문은 『東麟錄』 24책에 수록되어 있는 「湖南儒生道內通文」이다.

14) 관련 내용은 정민, 『다산의 일기장』 앞의 책, 145-160면, 234-247면에서 검토한 바 있다.

15) 정약용, 「도산사속록」, 『다산시문집』 권22: “矧乎窮居壘畝之士, 進不能需用於世, 退不能與師友弟子講明先王之道, 使後世有所考述, 而安其孤陋, 長其傲慢, 怕與人相接, 而飾之以偽謙, 長損危跪, 肆然以尊德性自命者, 恐與朱子退翁家法有異也.”

좌명(左明)이란 자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험뜯고 비방하기를 괴롭게 한다고 하니, 진실로 그 낯짝을 한번 보아 기이한 볼거리를 넓히고 싶군요. 듣자니 석문(石門)에 올 약속이 있다던데, 그로 하여금 잠깐 역루(驛樓)에 들르게 하더라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들은 지위가 비록 높은 지위에 이른다 하더라도 또한 포의(布衣)의 부류일 뿐입니다.¹⁶⁾

좌명이란 사람이 자꾸 자신을 험뜯고 비방하며 다니니, 한번 이곳에 들러 맞장 토론을 한번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편지에서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좌명은 편지 수신자인 윤취협(尹취협)의 손자 윤기환(尹箕煥, 1763-?)이었다. 그는 다산과 동년배로, 진사시에 수석으로 합격해 『놀암기략』에서 “충청도 땅의 뛰어난 선비로, 학문과 식견으로 이름이 알려졌다”고 적고 있을 만큼 사람의 명망이 높던 인물이었다. 당시 그는 영남 남인들을 과도하게 비난하다가 다산의 벗인 강이원 등에 의해 성토 당하게 되자, 관까지 벗고 사죄하여 한 때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후 제척되어 향리에 머물던 상태였다.¹⁷⁾

처음 다산이 그의 조부 윤취협을 찾아가 손자 윤기환의 합류를 요청했고, 이에 윤취협은 손자가 다시 성균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참석 조건으로 걸었던 듯하다. 이에 다산은 친구인 강이원에게 윤기환을 변명해주고 두둔하는 편지를 정성껏 써서 보냈다.¹⁸⁾ 위에 인용한 글은 다산이 강학회의 모양새를 위해 자신을 굽혀가며 윤취협(尹취협)의 부탁을 들어주었음에도 그 손자 윤기환이 계속해서 강학회의 일로 다산에 대한 흉악한 비방을 일삼자, 격분해서 보낸 편지였다. 혹 다산의 부탁 편지를 강이원이 거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계급장을 떼고 한번 만나자. 도와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가? 글만 보면 마치 모르는 사람에 대해 묻는 것처럼 했지만, 이것은 70대의 조부를 동원해 손자 윤기환의 망동을 제지케 하려는 겁박이었다. 그런 행동을 계속할 경우 가만 두지 않을테니 알아서 제지시키라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했다. 성정진, 이도명, 윤취협 등의 예에서 보듯 다산은 직접적이고 저돌적인 성격으로 많은 충돌을 일으켰고, 적을 만들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당시 기록에 적지 않게 나온다.

1795년 10월 『금정일록』에서 다산은 금정역으로 부쳐온 이기경의 편지를 아무 설명 없이 수록했다. 이기경은 1791년에 1787년 정미반회사건 당시의 일로 다산을 도와주려다가 이승훈 형제의 권모술수에 걸려 상중에 함경도로 귀양간 일이 있었다.

1795년 2월 사헌부 지평으로 복귀한 이기경은 뜬금없이 원수나 다름없는 다산에게 아들의 혼사가 10월 26일이니 돈 100냥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거의 작은 집 한 채 값이었다. 빨리 서울로 복귀하고 싶은가? 옛정을 보아 도와줄 테니, 이 돈을 내고 내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라. 명백한 굴종 요구였다.

다산은 일기에 이 편지를 쓰다 달다 말없이 실었다. 명백한 협박과 회유의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한 다산의 답장이 『다산시문집』 권18에 실린 「답이기경(答李基

慶)」이다. 일기에 이기경의 편지를 실은 것은 문집에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전후 맥락을 보완하는 안전장치였다. 문집에는 앞 뒤 없이 다산의 편지만 있어서, 편지 속 다산의 과도한 격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일기에 남겨둔 편지로 합을 맞춰야 전후 맥락이 비로소 소연해지기 때문이다.

다산은 답장의 서두를 “보내온 글을 받고 놀라 엎어짐을 이기지 못하였다.”의 격앙된 반응으로 시작했다. 곧이어 ‘네가 편지에서 평상의 정리를 넘어섰다고 말한 것은 너 또한 네 요구가 터무니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포문을 열었다.¹⁹⁾ 다산은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글을 써나가다가 결국은 폭발했다.

그대는 능히 노부(老夫)의 가슴속에는 본래 한 가지 일도 없어, 오동나무의 달빛과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처럼 맑고 텅 비어 시원스럽다고 자처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것을 가지고 약용에게 기대했던 말입니까? 약용은 비루하고 인색해서 능히 이런 경지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대 또한 온전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저 이미 능히 이처럼 할 수 없다면 스스로 마땅히 얼마간의 이야기가 있었어야 했겠지요. (중략) 그대는 삼가고 삼가십시오. 또 혹 머뭇머뭇 그대로 나아가 따라서 의심하고 차례로 놀라게 한다면 오늘 이전의 마음마저도 반드시 보전하기가 어려울 테니, 두렵지 않겠습니까?²⁰⁾

조금 달래서 좋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직진해서 정면으로 들이받아 버렸다. 이 한 통의 편지로 두 사람의 극적인 화해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기경의 유배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 미안해 했던 다산도 이 답장으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1797년 6월 28일, 다산의 「자명소」에 대한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을 때였다. 우의정 이병모가 다산의 상소문 중에 이단 운운한 내용을 빌미로 다산의 파직을 청한 일이 있었다. 이때 정조는 막 자라는 싹은 꺾지 않는 법이라며 그를 제지했다. 일주일 뒤인 윤6월 5일, 곡산 부사로 떠나기 직전 다산이 이병모를 찾아가서 만났다.

머쓱했던 이병모가 앞서의 일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에 다산은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병모가 상소문 중 맹자가 양주와 목적을 무부무군(無父無君)으로 여겼다고 한 부분에서 서학을 양주와 목적에다 견준 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산이 사리를 따져 해명하자 뜨끔해진 이병모가 다산을 두둔하려는 취지였다며 전문(傳聞)의 오해라고 변명하였다. 이병모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섰지만 다산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산이 앞서 이병모가 다산의 상소문이 외가(外家)의 글에서 많이 나왔고, 경전에서는 힘을 얻지 못했다고 한 지적에 대해 다시 물고 늘어졌다. 더 당황한 이병모가 이를 남인의 본색론으로 대답하자, 다산은 지지 않고 즉각 반박했다.

취지는 이러했다. ‘동의할 수 없다. 문장에는 저마다의 체제가 있다. 상소문에는 상소문의

16) 정약용, 「與北溪尹進士就協」, 『다산시문집』 권19 : “左明者不知何許人, 苦彼毀謗, 誠欲一見其面皮, 以博異觀. 聞有約到石門, 令暫過驛樓無妨. 吾輩雖位至公孤, 亦布衣者流耳.”

17) 이재기 저, 정민 역, 『놀암기략』(김영사, 2022), 114면 참조.

18) 이때 쓴 다산의 편지가 『다산시문집』 권 19에 실린 「인백 강이원에게 보냄」이란 편지이다.

19) 관련 내용은 정민, 『다산의 일기장』(김영사, 2024), 209-214면에서 자세히 살폈다.

20) 정약용, 「답이기경」 『다산시문집』 권18 : “足下能自處以老夫胸中本無一事, 梧月楊風, 清虛洒落, 而又以是待之於鏞耶? 鏞則鄙吝, 不能到此. 而竊恐足下, 亦全未全未也. 夫既不能如此, 則自宜有多少話說.(중략) 足下慎之慎之. 又或荏苒征邁, 胥疑迭驚, 則今日以前之心, 亦難必保, 可不懼哉?”

체재가 있는데 어떻게 상소문에 사서(四書) 주해의 체재를 쓸 수 있는가? 내 상소문이 설령 새롭고 기이하다 해도 다른 사람일 경우 칭찬하면서, 내게만 권면할만한 것이 된다면 결국 이 또한 내 탓이 아니겠느냐'며 뼈뺌하게 한마디를 더 찢러 넣었다.

다산이 우의정 이병모에게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딱딱따박 따지는 모습은 상대의 기를 질리게 했다. 이날 이병모는 다산의 맹랑한 태도에 진땀을 빼야만 했다. 이후 두 사람은 화제를 바꿔 금정찰방 시절 고생한 일을 화제에 올리며 한동안 더 대화를 이어갔지만, 이병모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다산은 당신이 그렇게 내 상소문에 대해 험담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곡산부사로 나가게 되었지만 나가는 마당에 따질 것은 따져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산은 이렇게 해서 표면적으로 이병모를 꺾어 눌렀고 그 현장을 기록으로 박제해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각진 태도는 꼭 뒷날의 화를 다시 부르곤 했다.

젊은 다산은 늘 그랬다. 자신이 옳다고 믿거나 부당한 일에 대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채제공을 협박하고, 성정진과 이도명을 들이받고, 윤취협을 겁박했다. 이기경을 나무라고, 이병모에게 대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딱딱따박 증거와 함께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4. 정면에서 돌파한다

다산은 원칙을 중시했다. 모든 일에 구차미봉을 거부하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해(利害) 앞에 시비를 섞지 않았다. 옳으면 손해가 뻔히 보여도 갔고, 옳지 않으면 이익이 있어도 취하지 않았다.

강진 유배 10년 째 되던 1810년 8월 27일 임금 순조가 화성으로 거둥하여 8월 30일 회정하는 길에 큰아들 정학연이 격쟁(擊錘)하여 부친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9월 초에 다산을 강진 유배지에서 고향집으로 추방하라는 명이 내렸다. 다산은 석방의 기대에 부풀었지만, 곧이어 흥명주의 반대 상소와 이기경의 대계(臺啟)에 막혀 끝내 귀향하지 못했다. 다시 4년 뒤에는 정계(停啓)까지 되었음에도 석방 공문이 내려오기 직전, 강준흠의 상소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왕명에도 불구하고 석방 명령의 집행이 여러 해째 막히자 답답해진 아들은 1816년 5월 초,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아버지의 사촌 처남 홍의호(洪義浩)에게 선처를 바라고, 강준흠과 이기경에게 석방을 탄원하는 글을 한번만 보내자고 권유했다. 홍의호를 찾아갔다가 부탁 편지 한 통 없는데,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산이 바로 답장했다.

보내온 편지는 자세히 보았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다. 하나는 시비의 저울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의 저울이다. 이 두 가지 큰 저울에서 네 가지 큰 등급이 생겨난다. 무릇 옳음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윗길이다. 그 다음은 옳음을 지키다가 해로움을 취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그릇됨을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것이고, 가장 낮은 것은 그릇됨을 따르다가 해로움을 취하는 것이다. 이제 나로 하여금 필천 홍의호에게 편지를 보내 행복을 빌고, 또 강준흠과 이기경에게 꼬리를 치면서 동정을 빌라고 하니, 이는 세

번째 등급을 구하려 하다가 마침내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내 어찌 이를하겠느냐?²¹⁾

이어지는 글에서 다산은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나더러 동정을 애걸하는 편지를 쓰라는 이치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자식을 준절히 나무라고, 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돌아가고 돌아가지 못함은 진실로 또한 큰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죽고 사는 것에 견주면 작은 일이다. 사람이란 때로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해야 함이 있다. 하물며 돌아가고 돌아가지 못하는 작은 일로 남을 향해 꼬리를 치고 동정을 구걸한다면, 만에 하나 남북에 근심이 있을 경우, 군부(君父)를 배신하고 견양(犬羊)에 투항치 않을 자가 능히 몇이나 있겠느냐? 내가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운명이고, 내가 살아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것 또한 운명이다. 비록 그러나 사람의 일을 닮지 않으면서 그저 천명만 기다린다면 진실로 또한 이치가 아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다 하였다. 사람의 일을 다 하였는데도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이 또한 운명일 뿐이다. 강씨의 아들이 어찌 나로 하여금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느냐? 마음을 놓고 염려치 말거라. 조금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십분의 도리가 될 것이니, 다시는 말하지 말거라.²²⁾

처음에 시비와 이해로 갈리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말했다. '시이리(是而利)'가 으뜸이고, 두 번째는 '시이해(是而害)'며, 세 번째가 '비이리(非而利)'요, 네 번째는 '비이해(非而害)'라고 했다.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선택에서 갈린다. 다산은 시비, 즉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앞세워, 그 결과의 이해는 따지지 않았다. 이해를 앞세우는 순간 시비가 무너져서 결국은 네 번째만 남게 된다는 논리였다.

아들은 아버지가 딱 한 번만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면, 귀양에서 풀려나 차츰 복권이 될테고, 그러면 자신들도 폐족의 처지를 벗어날 수 있을텐데, 미동조차 하지 않는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편지를 썼다가 호된 야단만 맞았다. 10년 간의 유배로도 다산의 기질은 조금의 변화가 없으니, 이는 타고난 순양(純陽)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이같은 일은 다산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일성록』 정조 11년(1787) 11월 17일 기사에는 임금이 집춘문(集春門)에 나아가 감제(柑製)를 설행한 기사가 있다. 이때 시험 문제는 “한 고조(漢高祖)가 풍(豐)으로 하여금 분유사(粉榆社)를 경건히 관리하여 항상 계절마다 양과 돼지를 갖추어 제사 지내게 하라고 한 일에 대해 의작(擬作)하라.[擬漢令豐謹治

21) 정약용, 「答淵兒 丙子五月初三日」, 『다산시문집』 권21: “來紙詳見之矣. 天下有兩大衡, 一是非之衡, 一利害之衡也. 於此兩大衡, 生出四大級. 凡守是而獲利者太上也, 其次守是而取害也, 其次趨非而獲利也, 最下者趨非而取害也. 今使我移書乞降於筆泉, 又搖尾乞憐於姜李, 是欲求第三級, 而畢竟落下於第四級, 吾何以爲之哉.”

22) 정약용, 「答淵兒 丙子五月初三日」, 『다산시문집』 권21: “吾之歸與不歸, 誠亦大事. 然比之死生則小矣. 人之爲物, 有時乎舍魚而取熊, 況於歸不歸之小事, 輒向人搖尾乞憐, 萬一南北有憂, 其不背君父而投犬羊者, 能有幾人? 吾生而還故土命也, 吾生而不能還故土亦命也. 雖然不修人事, 但待天命, 誠亦非理. 汝則修人事既盡, 修人事既盡而終不能歸, 則是亦命耳. 姜氏之子, 焉使余不歸哉. 休心息慮, 稍俟日月, 爲十分道理, 勿復云云也.”

粉楡社常以四時具羊彘以祠之]”는 것이었다. 한 고조가 처음 일어났을 때 풍(豐)의 분유사(粉楡社)에서 기도를 했는데, 한왕(漢王)이 되고 여섯 해 만에 천하가 안정되자 어사(御史)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분유사를 잘 관리하고 계절마다 양과 돼지를 갖추어 제사 지내게 했던 고사를 제목으로 냈던 것이다.

강세정의 『송담유록』에 “이승훈과 정약용의 무리가 감제에 들어갔는데 성상께서 내리신 제목에 제사에 대한 주장이 있자 둘 다 백지를 내고 시험을 보지 않았다. 이 또한 제사는 마귀가 먹는다는 이유로 제사가 무익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²³⁾는 언급이 보인다. 다산의 절친한 벗이었던 강이원이 직접 보고 남긴 목격 증언이었다.

「자명소」에서 “제사를 폐지하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신이 예전 보았던 책에서도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²⁴⁾라고 딱 잡아뭇던 다산이 그 10년 전인 1787년 성균관의 시험 제목에 단지 제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백지를 제출하고 나왔다. 이때는 정미반회사건의 소동이 일어나던 와중이었다. 당시 다산은 천주교에 깊이 빠져 있던 시점이었으므로, 백지 답안지 제출이 가져올 파장은 아랑곳 않고 자신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과감히 거부한 것이었다.

1790년 겨울, 다산이 왕명으로 밤중에 상의원(尙衣院)에 머물며 『논어』를 읽고 있을 때 일이다. 규장각 서리가 슬며시 다가와 옷 소매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일 임금 앞에서 강해야 할 대목이라고 일러주었다. 다산이 펄쩍 뛰며 강원(講員)이 엿볼 내용이 아니라 하자, 서리가 임금의 분부로 전하는 것이니 아무 걱정 말라고 했다. 다산은 끝까지 종이 받기를 거부하고, 전편을 다 읽고 이튿날 경연에 나아갔다.

경연에서 정조가 갑자기 각신(閣臣)에게 정약용이 읽을 대목은 다른 장으로 따로 지정해주라는 명을 내렸다. 다산이 막힘 없이 강을 하자 임금이 “정말로 전편을 다 읽었구나”하며 웃었다.²⁵⁾ 임금은 한 차례 신하를 떠보았고, 다산이 정도(正道)로 받아 임금의 시험에 들지 않았다.

다산과 정조 사이에는 이같은 일화가 많았다. 이능화의 『조선기독교급외교사(朝鮮基督教及外交史)』에는 1796년 『규장전운(奎章全韻)』 간행 당시의 흥미로운 사례가 나온다.

다산 선생이 문학으로 왕에게 알아줍을 입어, 왕이 일찍이 선생과 이학규에게 『어정규장전운』을 간추려 차례 매기는 일을 주었다. 책이 완성되어 왕에게 올려 살펴보게 하였다. 왕이 ‘부(父)자의 풀이에서 ‘시생기(始生己)’란 세 글자를 보고 물었다. “‘시생기’는 어떤 책에 나오는가?’ 왕이 또 일찍이 홍수를 제목으로 주어 문신들에게 시를 짓게 하였다. 다산 선생이 응제시 중에서 노아(挪亞) 방주의 일을 인용하니, 왕이 물었다. “방주의 일은 어떤 책에 나오는가?” 다산이 대답하였다. “신이 전하를 모시고 그 책을 읽어 이 뜻을 얻

어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대개 아버지를 ‘시생기’ 즉 처음 나를 낳아준 사람’이라 한 것과 방주의 일이 모두 서교의 책에서 나왔는데, 정종 대왕께서도 또한 그 책을 보셨으므로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었다.²⁶⁾

해당 기록의 원출전은 아직 찾지 못했으나 다산의 「정헌묘지명」 중 한 단락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어정규장전운』은 이덕무가 만든 것을 이가환과 다산에게 검토하게 하고 임금의 최종 결재를 받아 나온 책이었다. 이 가운데 부(父)를 ‘시생기(始生己)’로 풀이한 것을 두고 “공(이가환)이 주석한 것이 아닌데도 공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 두 글자의 훈고를 가지고 경연에서 공을 참조하여 훼판(毀板)하기를 청하였다. 상은 그들이 참조한다는 것을 아셨으나 또한 특별히 기뻐하지는 않으셨다.”²⁷⁾는 내용이 보인다.

당시 책이 나오자 기(己)‘자와 매주 시(豉)자에 대한 뜻풀이가 서학서에서 나왔다는 말이 돌아 이것을 구실 삼아 이가환과 다산을 견책하고 책의 판을 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모양이다. 왕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러한 뜻 매김은 서학서가 아니라 후한 말 유희(劉熙)가 지은 『석명(釋名)』에 이미 “부는 음이 ‘보’이니, 처음 나를 낳았다는 뜻이다[父, 甫也, 始生己也.]”라 한 전거가 있고, 두 글자의 뜻매김이 모두 『강희자전』에 그대로 올라있는 데도 이같은 여론이 비등하였다.

위 인용에는 시생기 뿐 아니라, 홍수를 주제로 응제시를 짓게 했을 때 다산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인용하기까지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깜짝 놀란 왕이 이게 대체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냐고 은근히 압박했고, 다산은 돌려 말하는 대신 바로 임금을 모시고 독서 할 때 이 같은 내용을 보았노라고 대답해버렸다. 그때 함께 보지 않았는가라고 하여 왕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이다. 여기서도 돌아가지 않는 직진형의 기질이 한번 더 드러난다.

다산은 이기경과 갈등을 빚어 철천지 원수가 되었지만, 처음엔 다정했다. 정미반회 사건 당시 이기경은 흉악한 온갖 회유에도 흔들림 없이 친구인 다산을 지켜주었다. 이후 1791년 진산 사건이 일어나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을 때, 이기경은 다산을 보호하려고, 자기도 일찍이 성균관에서 이승훈과 함께 서학 서적을 본 적이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기경은 바로 다산에게 자신의 이 진술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번 참에 빨리 사실대로 아뢰어 정면돌파 할 것을 권하였다. 이에 다산이 임금을 더 이상 속여서는 안 된다면 사실대로 말하려 하자 이승훈 형제가 극력 반대하고 나섰다. 이때 다산이 말했다.

23) 강세정 저, 정민 역, 『송담유록』(김영사, 2022) 48면 : “薰鑪輩入柑製, 御題有祭祀之說, 並曳白不見. 此亦以祭, 則魔鬼饗之, 爲祭無益故也. 姜履元所傳也.”

24) 정약용, 「자명소」 : “至於廢祭之說, 臣之舊所見書, 亦所未見.”

25) 정약용, 「자찬묘지명」 집중본, 『다산시문집』 권16: “庚戌冬承命, 方夜在尙衣院讀論語, 忽閣吏來, 袖中出一紙示之曰: ‘此明日講章也.’ 余愕然曰: ‘此豈講員所得窺者耶?’ 吏曰: ‘無傷也, 此上教也.’ 余曰: ‘雖然不敢窺, 且當讀全篇.’ 吏笑而去. 厥明日登筵, 上謂閣臣曰: ‘丁某須別命他章也.’ 既講不錯, 上笑曰: ‘果讀全篇矣.’”

26) 이능화, 『조선기독교급외교사』(민족문화사, 1980 영인본), 105면 : “茶山先生이 以文學로 受知于 王하야 王嘗授先生及李學遠 以御定奎章全韻詮次之役하야 及書成 呈上乙覽하니 王見父字註에 ‘始生己’三字하고 王이 問曰始生己는 出何典乎아 王이 又嘗以洪水爲題 而命文臣等作詩하니 茶山先生應製詩中에 引用挪亞方舟之事러니 王이 問曰方舟事는 出何典乎아 對曰臣於侍讀之其書 得見此義云云하니 蓋以父爲始生己及方舟事는 俱出西教之書하야 而正宗大王도 亦見其書矣라 故로先生以是爲對耳라.”

27) 정약용, 「정헌묘지명」, 『다산시문집』 권15 : “又其書, 訓父曰始生己, 訓豉曰配鹽幽菽, 是皆古訓之有據者. 兼是李德懋原本, 非公之所註. 乃媚疾者, 執此二訓, 讒于筵中, 請毀板. 上知其爲讒, 亦殊不怡. (중략) 先朝末年, 命撰奎章全韻玉篇, 令檢書官柳得恭, 問議於李家煥丁若鏞, 以正訛謬. 終又仰稟睿裁, 此皆御定之書也.”

그렇지 않다. 밀고는 바른 것이 아니고, 옥사(獄詞)는 임금에게 고하는 것이다. 조정에 서는 옥사만 보겠지만, 거실(巨室)과 명족(名族)의 집집마다의 공의(公議)는 두려워할 만하다. 이제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고 정승이 다스림을 보좌하니 이때에 굶은 종기를 깨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훗날 비록 후회하더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²⁸⁾

다산은 정미반회 당시 서학을 공부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해 차제에 깨끗이 털고 가는 정면 돌파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승훈이 비열하게 조언을 역이용해 이기경을 무함으로 밀고하여 석방되었고, 뒤통수를 세게 맞은 이기경은 다급한 나머지 상중에 「초토신상소(草土臣上疏)」를 올렸다가 왕의 격노를 불러 상복을 입은 몸으로 다산 등에게 이를 부득부득 갈며 함경도로 귀양가게 되었다.

이때 이승훈 형제에게 놀려 자기 뜻을 관철하지 못한 다산은 오당(吾黨)의 재앙이 이로부터 비롯될 것이라며 전전긍긍하였고, 귀양 간 이기경을 대신해 이기경의 연지동 집에 가서 어린 자식을 다독이고, 어머니의 상사에 10냥이나 되는 거금을 부조하기도 하였다. 이 일을 다산은 자신의 「자찬묘지명」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했을 만큼 중요하게 다뤘다. 다산은 요컨대 이 일로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 1796년 「자명소」 소동 당시 재연되었다. 이해 봄 박장설의 상소로 여론이 들끓자 다산이 「자명소」를 올려 지난 잘못을 통렬하게 고백해 자신(自新)의 길을 청하겠다고 했다. 이때도 이승훈 형제가 극력 만류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산이 주변의 만류를 듣지 않고 「자명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 지난 번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기였다. 이 일로 다산은 이승훈과 결혼한 친누이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기까지 했다.²⁹⁾

앞서 아들 정학연이 아버지 다산에게 홍의호에게 편지를 보내 용서를 빌라고 했던 것은 사실 연유가 없지 않았다. 홍수보는 다산의 장인 홍화보의 친동생으로 다른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다. 중간에 채제공의 남인이 채당(蔡黨)과 홍당(洪黨)으로 갈리면서, 처삼촌인 홍수보와 그의 두 아들 홍인호와 홍의호가 홍당을 이끌면서, 채당의 참모였던 다산과 정치적으로 등을 돌리게 된 사정이었다. 이에 다산은 1793년 홍수보의 처벌을 요구하는 통문을 무리를 주도하여 작성하였고, 초고의 구상도 다산의 명례방 집에서 이루어졌다. 마침 그 집을 지나던 홍수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산의 집에 붙숙 들르자, 사랑방에 모여서 홍수보를 성토하는 통문을 작성하던 다산이 대경실색해서 급히 홍수보를 안채로 모셔들인 일까지 있었다.³⁰⁾

28) 정약용, 「자찬묘지명」 집중본, 『다산시문집』 권16: “不然. 密告非正, 獄詞乃告君也. 朝廷唯獄詞是觀, 巨室名族, 家家公議, 可畏也. 今聖明在上, 相君佐理, 及是時潰癘, 不亦可乎? 他日雖悔無及也.”

29) 이재기, 『놀암기략』 앞의 책, 123면: “丙辰, 朴長高疏出後, 丁若鏞上疏, 痛言前日註誤之罪, 請爲自新之地, 李承薰輩, 力爭曰: ‘然則吾儕自處以邪類, 他日洪睦雖殺我, 我其無辭矣.’ 丁不聽, 以是姊妹, 幾乎不睦云.”

30) 이재기, 『놀암기략』 앞의 책, 55-60면: “계축년(1793) 겨울에 일곱 명의 재상이 글로서 질문하여 정정진으로 하여금 대답을 올리게 하였다. 또 한광보(韓光溥, 1723~?)로 하여금 증인을 서게 해서 그 일을 확인해 두었다. 그런 다음 윤신(尹愼)을 뽑아서 통문을 내서 이를 성토하게 했다. 통문은 정약용(丁若鏞)의 손에서 나왔다. 초고를 구상하던 날 홍수보 상서가 마침 정약용을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손님이 사랑방에 가득했는데, 정약용이 몇 마디를 주고 받고는 이끌어 내실로 들게 하여 여러 객들이 탈고하게끔 하였다. 홍수보는 까마득히 이런 일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다. 정약용의 처는 홍수보의 조카딸이었기 때문에 내실로 데려간 것이라 한다.(癸丑冬, 七宰

당시 다산은 홍수보가 처삼촌이었음에도 그를 성토하는 통문 작성에 앞장섰고, 그것이 체제 공과 남인을 지키는 정의라고 믿었다. 이로 인해 다산은 처가 쪽 사람들과 오랫동안 척을 지고 살았고, 앞서 아들 정학연의 편지 소동까지 있었던 것이다. 당시 다산의 친정 공격으로 인해 아내 홍씨와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795년 금정찰방 시절 다산이 서학 교주 이존창을 성주산에서 체포해왔다. 정조는 이 공로를 드러내 다산을 벼슬길에 복귀시킬 요량으로 새로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해 내려가는 이정운을 시켜 포장(褒獎)을 청하는 장계를 올리게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산은 이정운의 아우 이익운에게 “도적을 체포한 일로 상을 받는 것은 더 없이 큰 수치다. 만약 보고를 올리면 당신뿐 아니라 당신 형님과도 절교할 것이니 임금께도 이 같은 뜻을 분명하게 전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³¹⁾ 이에 이정운이 직접 편지를 보내 나무라자, 한번 더 답장을 썼다.

저 이존창(李存昌)이라는 자는 목숨을 도망한 한낱 백성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설령 이 백성으로 하여금 바람을 부르고 비를 부르며, 둔갑술로 몸을 감추게 해서 오영(五營)의 병졸을 풀어도 능히 붙잡을 수 없었던 것을, 약용이 피를 내고 계책을 펴며 힘입어 하루아침에 사로잡았더라도 오히려 스스로 공으로 삼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하물며 그는 이름을 바꾸고 자취를 숨겨서 이웃 지경에 숨어 지내던 자에 지나지 않음이었습니까? 이미 그 거처를 알아내어, 문득 장교 하나와 병졸 하나로 묶어 오기를 마치 물동이 안에서 자라를 붙잡듯이 하였습니다. 더욱이 기찰하여 염탐하는 방법을 애초에 함께 듣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것을 장황하게 포장해서 한세상의 이목을 속이고 몸을 진출하는 거리로 삼는 것은 또한 잘못되고 군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구덩이 속에서 낙심한 채로 몸을 마칠지언정 이 일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³²⁾

다산이 그토록 원했던 복귀였음에도 이존창을 잡은 공로로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예상 밖의 강경한 편지로 인해 정조의 구상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임금은 격노했고, 그럼에도 다산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1년 가량 아무 직함 없는 세월을 다시 견뎌야 했다. 명분 없이 편법을 써서 더구나 천주교 지도자 검거의 공을 앞세워 중앙에 복귀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³³⁾

다산이 옳고 그름의 명분을 기준 삼고, 자신의 유불리나 이해 관계를 잣대로 삼지 않았음을

以書發問, 使鼎鎮納供. 又使韓光溥立證, 以實其事. 然後募出尹愼, 發文討之. 通文出於丁若鏞手. 構草日, 洪尚書適訪若鏞于家, 賓客滿堂. 丁接數語, 引入內室, 而使諸客脫藥, 洪茫然不知有事. 丁妻洪之姪女也. 故引去內室云.”

31) 『사암연보』 67면: “恩念誠罔極. 然捕賊受賞, 天下大恥也. 不但吾無以起草, 若有狀聞, 吾與伯氏公, 當自此相絕矣.”

32) 정약용, 「答五沙」, 『다산시문집』 권18: “彼李存昌者, 即不過逃命之一氓耳. 設令此氓呼風喚雨, 遁甲藏身, 發五營之卒而不能捕者, 賴鏞之出謀發策, 一朝禽獲, 尚不足自以爲功, 況彼不過變名匿跡, 躲處鄰境者乎? 既知其處, 便以一校一卒綁致之, 如甕中捉鼈, 況其譏詞之方, 初不與聞, 今以是張皇鋪陳, 以欺一世之耳目, 爲進身之資者, 不亦謬且窘哉. 寧坎坷落魄以終身, 不願爲是矣.”

33) 당시 전후 사정은 정민, 『다산의 일기장』 앞의 책, 360-364면에서 살폈다.

보여주는 전후 행동은 이밖에도 수없이 많다.

5.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다산은 관례와 권위에 주눅 들거나 눈치를 보아 유리한 쪽에 줄 서지 않았다.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른 것이지 그 중간이 없었다.

대과 급제 직후 벌어진 신참례 거부 소동에서 그 면모가 드러난다. 1789년 3월 13일에 다산이 대과에 급제한 며칠 뒤 판서 권엄의 주관 아래 축하연이 열리고, 이른바 신참례라고 하는 악명 높은 신고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에 먹칠하고 절름발이 흉내 내기, 부엉이 울음 소리 내기 등의 짓궂은 장난이 계속 되었다. 다산의 차례가 왔을 때 다산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요구를 거부했다. 좌장 권엄이 그의 태도에 격노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통에 이날 잔치는 그 길로 파하고 말았다. 이것이 시끌벅적했던 다산의 신참례 소동이였다.

며칠 뒤 권엄이 다산에게 편지를 보내, 처음 만나 윗사람과 허물없이 잘 지내자고 해온 오랜 장난을 그토록 정색을 하고 거부하면 시킨 사람은 대체 뭐가 되느냐며 준절히 나무랐다. 다산이 답장했다.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거나, 절름발이 걸음으로 게를 쭈고, 부엉이 울음을 흉내내는 것은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어서 비록 명을 받들려고 애를 써보려 했지만 천성이 졸렬한 데다 위축되어서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고, 발걸음도 떨어지지 않는 걸 어찌한단 말입니까? 진실로 공경하여 삼가는 마음을 속에 지닌지라 나태하고 심한 모습을 밖으로 펼 수 없었던 것일 뿐입니다. 제가 이에 있어 어찌 터럭만큼이라도 게을러 공경스럽지 못한 뜻이 있기가 했겠습니까?³⁴⁾

오랜 관행으로 지속되어오던 신참례의 짓궂은 장난이 다산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 옳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이것으로 밉보이거나 자신에게 다른 어떤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학문에 대한 견해 표명도 그랬다. 한대(漢代)의 경사(經師)를 무시하고, 주자를 맹목적으로 떠받들지 않았다. 퇴계의 학설에 덮어놓고 동조하지 않았고, 남인 학맥의 종장인 성호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비판했다. 이 모든 것을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논거를 통해 말했으므로, 상대측에서도 문제를 삼자면 제시된 논리와 논거를 공파(攻破)해야 했다.

주장은 주로 오리지널 경전의 상호 텍스트성을 바탕으로 이경증경(以經證經)의 방식으로 펼쳤다. 다음은 다산이 두 아들에게 보낸 「답이아(答二兒)」의 한 단락이다.

34) 정약용, 「上權判書襍書」, 『다산시문집』 권18 : “至於仰天大笑, 蹙行拾蟹, 鶴鷄之鳴, 此由我所爲, 雖欲勉奉承, 奈天性拙縮, 聲不敢出嚙, 足不敢拳起, 何哉? 誠以敬謹之心存乎中, 而慢劇之容, 不能施諸外耳. 鑰於此, 何嘗有一毫半釐怠忽不恭之志哉?”

마융(馬融)과 정현(鄭玄)이 비록 유자(儒者)라고 하나, 권세가 한 세상에 무거워, 외당(外堂)에서 제자들과 강학하면서 내당에서는 음악하는 기생을 두고 즐겼다. 그 변화하고 부유함이 이와 같으니 경전을 궁구함이 정밀치 못함이 당연하다. 뒤에 나온 공안국(孔安國)과 가규(賈逵) 등 여러 사람도 모두 유림의 통달한 자들이었으나 심기(心氣)가 능히 정밀치 못해 논한 바가 어둡고 모호한 점이 많았다. 그제서야 궁해진 뒤에 비로소 저서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반드시 지극히 총명한 선비가 지극히 곤고한 지경을 만나 종일 흠뻑이처럼 있으면서 사람 소리와 수레소리 발자국 소리가 시끄럽게 함이 없는 뒤라야 경전과 예서의 정밀한 뜻을 비로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천하에 이같은 교묘함이 있겠느냐? 대개 고경(古經)을 연구하면서 정현과 가규의 학설을 살펴보니, 거의 조목마다 잘못 풀이하였으니 독서의 어려움이 이와 같다.³⁵⁾

대단한 독설이다. 실제로 다산의 『경세유표』와 경학 관련 저술 및 여러 편지에는 비슷한 맥락의 비판이 구체적 실례와 함께 끝도 없이 이어진다. 「답중씨(答仲氏)」에서는 “정현의 주석은 열에 예닐곱이 잘못인데도 선유들이 모두 정현만 믿었으니 이것이 한스럽다.”³⁶⁾고 했고, 『경세유표』 「지관수제(地官修制)」에서는 “정현의 주장이 한번 나오자 그 법이 바수어져 혼란스럽게 되어 놀러 행할 수가 없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³⁷⁾라고 하였다.

신작(申緯, 1760~1828)과 『맹자』의 육향제(六鄉制)에 대해 토론하면서 보낸 편지에서는 “노형께서 시속(時俗)을 경계하여 고훈(古訓)을 경솔하게 어기려 하지 않으시니, 절로 유자의 기상이라 마음으로 탄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까지 총명을 막고 지혜를 끊어, 그저 정현의 주석만 지킨다면 경전이 뜻이 통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도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³⁸⁾라고 했다. 이치로 따져보면 자명한데도 고훈의 권위에 얽매어 앞뒤가 안 맞는 학설을 고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짚어 말한 것이다.

김매순에게 보낸 글에서도 같은 논조가 이어진다.

일찍이 한유(漢儒)가 고고(高古)하고 그 훈고가 서로 이어져와서 진실로 취할만한 점이 많으리라 여겼는데, 그 오류와 착오가 진실로 적지 않았습니. 그래서 주자(朱子)께서 고친 것이 많았으니, 백옥(白玉)에서 티를 찾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근세에 일종의 습속은 오로지 고주(古註)에만 마음을 쏟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릇 고주에서 말한 바에 대해 타당치 않다고 의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지목하여 망령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궁벽하게 지내며 장구(章句)에 침잠하고 오래도록 고증하고 점검해 보니, 고주라

35) 정약용, 「답양아」, 『다산시문집』 권21: “馬融鄭玄雖曰儒者, 權重一世, 外堂與弟子講學, 內堂貯聲妓爲娛, 其繁麗豪富如此, 宜其窮經未精. 後來如孔賈諸公, 皆儒林之達者, 心氣未能精密, 故所論多晦蒙. 始知窮而後始可著書也. 必也以極聰明之士, 遭至窮困之境, 終日塊處, 無人聲轍跡之相聒, 然後經禮精義, 始可得耳. 天下有此巧乎? 蓋考之古經而以視鄭賈之說, 殆乎件件誤解, 讀書之難如此矣.”

36) 정약용, 「답중씨」, 『다산시문집』 권20 : “鄭玄之注, 十誤六七, 而先儒兼信鄭玄, 是可恨也.”

37) 정약용, 「지관수제」, 『경세유표』 권5 : “鄭說一至, 而其法破碎混亂, 不可以按行, 豈不惜哉.”

38) 정약용, 「답申在中」, 『다산시문집』 권20 : “老兄懲於時俗, 不欲輕違古訓, 自是儒者氣象, 心所歎服. 而此等處亦欲塞聰明絕知慧, 唯鄭註是護, 則經旨不通. 人心不服.”

하여 다 옳지 않고, 후세 유자의 새로운 주장이 모두 그른 것은 아님을 알았습니다. 다만 허심(虛心)과 공정한 관점으로 시비의 진실을 살펴야지, 세대의 차례나 연도만을 살펴서 따를지 말지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³⁹⁾

실로 대단한 자신감이 아닐 수 없다. 경전에 대한 한대 경사들의 고훈(古訓)을 거침없이 비판했을 뿐 아니라, 『논어고금주』에서는 주자의 『논어집주』를 작심하고 본격적으로 비판했다. 전체 173조에 달하는 질의(質疑)가 그것이다. 다른 글에서 ‘박왈(駁曰)’이라 직격한데 반해, 주자에 관한 비판만큼은 질이라 하여 약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차이 날 뿐이다.⁴⁰⁾

주자에 대한 비판 또한 논거를 선진의 경문(經文)에서 끌어와 이경증경(以經證經)의 방식으로 논파함으로써, 주자를 옹호하려면 경전을 부정해야 하는 장치를 걸어놓았다. 『논어』의 핵심어인 ‘인(仁)’에 대한 해석부터 확연히 달랐다.⁴¹⁾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도 다산의 경전 이해는 퇴계나 성호 우파의 보수적 관점과는 상당히 달랐다. 중간중간 서학서의 개념들도 적극적으로 끌어다 썼다. 1785년 봄, 진사시 급제 후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정조가 『중용강의』 80여 조를 내렸다. 대부분의 답안이 퇴계의 학설을 따랐지만, 다산 만은 율곡의 주장을 따르는 선택을 했다. 이 일로 물의가 일었으나 임금은 오히려 그 사유의 독특한 접근법을 높이 사서 다산의 답안을 으뜸으로 뽑았다. 이 답안 속에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천(天)과 상제(上帝) 개념 및 천도와 천명에 관한 서학적 이해가 깊이 깔려 있었다.⁴²⁾

입론이 타당할 경우, 그것이 비록 서학서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끌어다 썼다. 예수회 선교사 삼비아시(Francesco Sambiassi·畢方濟·1582~1649)가 스킨라 철학의 영혼론을 설명한 『영언어작(靈言蠡勺)』 서문의 첫 문장에서, “아니마(亞尼瑪) 즉 영혼 또는 영성(靈性)에 대한 학문은 필로소피아(費祿蘇非亞) 곧 철학 중 가장 유익하고 가장 높은 것이다. 고대의 대학에서는 그 건물에 방(榜)을 달아 ‘너 자신을 알라(認己)’라고 써 놓았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세상 사람의 백 천 만 가지 학문의 뿌리요 종주이니, 사람이면 누구나 마땅히 먼저 힘써야 할 바이다.”⁴³⁾라고 말했다.

글에 나오는 인기(認己), 즉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던 글이다. 소크라테스는 신에 비해 하찮기 짝이 없는 인간의 지혜를 믿지

말고, 자신의 무지(無知)를 깨닫는 것을 철학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DB로 ‘인기(認己)’를 검색해보니, 흥미롭게도 철학적 의미로 이 표현을 쓴 것은 다산 뿐이었다. 다산은 「오학론(五學論)」에서 “성리학은 도를 알고 나를 알아, 스스로 실천하는 데 힘쓴다는 뜻이다.”⁴⁴⁾라고 했다. 성리학을 지도인기(知道認己)란 네 글자로 규정한 이 대담한 선언은 삼비아시의 『영언어작』 첫 줄에서 끌어온 것이 분명하다.

다산은 이어 『주역』 「설괘전(說卦傳)」에 나오는 “궁리진성(窮理盡性)하여 천명에 이른다(窮理盡性, 以至於命)”고 말한 뜻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이라고 짚어 말하면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공부는 외면한 채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설치고 싸우는 말류 성리학자들의 위선적 행태를 하나하나 적시하였다.

다산이 『중용강의』에서 퇴계가 아닌 율곡의 설을 바탕으로 주장을 펴서 물의가 일자, 훗날 금정찰방으로 내려가 있던 다산에게 부친의 친구인 이인섭이 편지를 보낸 일도 있었다.

밝은 창가에서 옷깃을 여미고 그 책을 높이 들고서 혹 내 마음에 의심이 나거나 무슨 말인지 몰라 석연치 않은 곳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일세. “퇴계 선생은 동방의 대현이시다. 일생 동안 주자의 글을 높이고 믿어서 한 글자도 어긋남이 없었다. 근세의 유자들이 비록 그 잘못을 지적한 바가 있다 해도, 그들의 학문이 반드시 퇴계에는 미치지 못한다. 어찌 이들의 말을 믿고 퇴계를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퇴계와 같다면 충분하고, 공부도 퇴계와 같이 해야 옳을 것이다.”⁴⁵⁾

퇴계의 주장을 거슬러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당부였다. 그러면서 ‘창저신문(彰著新聞)’과 ‘거생별견(遽生別見)’을 반복해서 경계하여, 새로 들은 사실을 굳이 드러내거나, 별도의 견해를 갑작스레 내는 행동을 조심하라고 주의 주었다. 다산은 답장에서 고개를 숙여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고작 두 달 뒤에 열린 서암강학회에서 참석자 중 한 사람인 오국진(吳國鎭)이 성호의 『사칠신편(四七新編)』에 대해 물으면서 퇴계의 본의를 질문하자, 좌장 이삼환이 성호의 사단칠정론은 퇴계를 바탕으로 했고, 율곡 이이의 기발설(氣發說)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다산은 참지 않고 즉각 끼어들어, 퇴계와 율곡이 말한 이기(理氣)의 개념이 서로 같지 않은데 이것을 뒤섞어 혼동한 결과 개념 적용에 편차가 발생했을 뿐이라며, 이것은 각자의 이론이 있는 것이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해서 이삼환을 난처하게 만들었다.⁴⁶⁾

다산은 성호 이익의 학문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마음을 여러 글에서 표시했다. 「박학(博學)」에서는 “박학한 성호 선생을 내가 백대의 스승으로 따른다”고 썼고,⁴⁷⁾ 연보에서는 “1777년

39) 정약용, 「答金德叟」, 『다산시문집』 권20: “竊嘗以爲漢儒高古, 其訓詁相承, 固多可取. 而其紕繆錯誤, 誠亦不少. 故朱子多所更改, 非求瑕於白璧也. 近世一種習尚, 乃欲專心古注, 凡古注所言, 有議其不允者, 指之爲妄人. 然窮居數十年, 沈漸章句, 積久稽驗, 知古注未必盡是, 後儒新論未必盡非. 唯當虛心公觀, 以察是非之眞, 以察是非之眞, 不宜按世次考年紀, 以斷其從違也.”

40) 관련 논의는 이지형, 「다산의 『논어고금주』에 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4) 제 29집, 3-23면, 김연중, 「정다산 『논어고금주』 연구」, 『중국문학연구』(한국중문학회, 1985) 제 3집, 김연중, 「정다산의 주자 『논어집주』 비판(5)」, 『한문교육논집』(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제 20집 참조.

41) 관련 논의는 김도련, 『주주금석 논어』(웅진지식하우스, 2015)와 여러 『논어고금주』 관련 연구를 참조 바람.

42) 관련 논의는 정민, 『파란』(천년의상상, 2019), 상책 136-142면을 참조할 것.

43) 畢方濟, 「永言蠡勺序」, 『永言蠡勺』: “亞尼瑪之學於費祿蘇非亞中爲最益爲最尊. 古有大學榜其堂曰認己. 謂認己者, 是世人百千萬種學問根宗, 人人所當先務也.”

44) 정약용, 「五學論 一」, 『다산시문집』 권11: “性理之學, 所以知道認己, 以自勉其所以踐形之義也.”

45) 정약용, 『금정일록』 8월 7일: “晴聽斂衽, 尊閣其書, 或於吾心有疑晦不釋然處, 必曰: ‘退陶, 東方大賢也. 一生尊信朱書, 無一字之違戾, 近世儒者雖有所瑕摘, 其學必不及於退陶, 何可信此而不信退陶乎? 作人如退陶, 足矣. 爲學如退陶, 可矣.’”

46) 관련 내용은 정민, 『다산의 일기장』, 앞의 책, 100면 참조.

47) 정약용, 「博學」, 『다산시문집』 권0: “博學星湖老, 吾從百世師.”

(16세) 선배 이가환과 자형 이승훈을 추종하여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유고를 보고 사숙했다”고 적었으며, 「자찬묘지명」에서는 “내가 성호의 유저(遺著)를 보고 혼연히 학문하기로 마음 먹었다.”⁴⁸⁾고 쓰기까지 했다.

하지만 성호에 대한 다산의 학문적 비판은 대단히 매서웠다. 1811년 겨울에 강진 유배지에서 흑산도의 둘째 형 정약전에게 보낸 「상중씨(上仲氏)」에서 성호의 저술에 대해 다산은 이렇게 썼다.

『성호사설(星湖僿說)』은 지금의 소견으로 제 뜻에 따라 산정해서 뽑는다면 아마도 「무성(武成)」과 같아질까 걱정입니다. 10행 20자로 쓸 경우 7.8책을 넘기지 않고도 알맞게 마칠 수 있을 듯합니다. 질서(疾書) 또한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앞서 『주역』에 풀이를 달 적에 『주역질서(周易疾書)』를 가져다 보니, 역시 어쩔 수 없이 채록한 것이 많았습니다. 만약 가려뽑아 기록한다면 3.4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밖의 다른 경전은 틀림없이 이 보다 열 배는 더할 겁니다. 다만 『성호예식(星湖禮式)』은 너무 소략한데서 잃었을 뿐 아니라, 지금의 풍속과 위배되면서도 고례(古禮)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이루다 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만약 널리 배포해서 식자의 안목에 들어가게 한다면 대단히 미안한 노릇일텐데 이를 장차 어쩐다지요?⁴⁹⁾

놀라운 혹평이다. 『서경』의 「무성」편 운운한 것은 『맹자』 「진심」장에서 “나는 「무성」편에서 두세 가지 정도만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고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성호사설』의 글 중 열에 두 셋 정도만 건질 수 있다고 한 것이니, 남인의 시각에서 보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선넘은 표현이 아닐 수 없었다.

다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내가 일찍이 『성호사설(星湖僿說)』은 후세에 전할 만한 올바른 책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옛사람이 쓴 글과 자신의 의논을 서로 섞어 책을 만들어 올바른 의례(義例)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⁵⁰⁾라고 까지 하였다.

다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답중씨」에서는 또 이렇게 썼다.

성옹(星翁)의 명정(銘旌)에 대한 제도는 진실로 간소해서 법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옛 뜻과도 어긋납니다. 명정은 마땅히 3척(尺)의 제도(주척(周尺)을 사용함)를 회복하여 무거운 나무에 꽂아야 하니, 이렇게 해야 혼백(魂帛)⁵¹⁾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대단히 해괴한 풍속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떠신지요?⁵²⁾

48) 정약용, 「자찬묘지명」 집중본, 『다산시문집』 권16: “鏞得見其遺書, 欣然以學問爲意”

49) 정약용, 「上仲氏」, 『다산시문집』 권20: “僿說以今所見, 使得任意刪拔, 恐與武成相同, 十行廿字, 不過七八冊, 似可了當, 『疾書』亦必然矣. 向於箋『易』之時, 取見周易疾書, 亦多不可不採錄者, 若採而錄之, 可得三四張, 他經必十倍於此. 但『禮式』不但失之太儉, 其違於今俗, 而無據於古禮者, 不可勝數. 此書若廣布, 入於識者之眼, 大段未安, 此將奈何?”

50) 정약용, 「寄二兒」, 『다산시문집』 권21: “吾嘗謂星湖僿說, 未足爲傳後之正本者, 以其古人成文, 與自家議論, 相雜成書, 不成義例也.”

51) 혼백(魂帛): 흰 명주를 사람의 형상으로 접어 출생 연월일시 및 사망 연월일시를 적어 임시로 쓰던 신주(神主)로 초상 때에만 씀.

이렇듯 성호의 학문에 대한 다산의 실제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성호는 남인들에게 태산교악(泰山喬嶽)이었지만, 다산의 눈에 성호가 남긴 저술은 체계가 잡히지 않은 산만한 적바림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독례통고』 상단에 쓴 메모에서 사계 김장생의 학설에 대한 성호의 비판을 인용한 뒤, 사계가 맞고 성호가 틀렸다고 직격한 대목 같은 것도 이같은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준다.⁵³⁾ 다산은 성호를 깊이 존경했지만 그의 저술 방식과 학설 세부까지 무조건 동조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다산은 정치적 입장 뿐 아니라 경학의 학설에 있어서도 기존의 권위에 구애됨 없이 경전의 근거를 바탕으로 활달하게 자신의 주장을 폈다. 필요할 경우, 서학서의 개념어도 끌어다 썼다. 다만 모든 논거를 교차 검토하여 단계별로 제시하였으므로 논박이 쉽지 않았다.

6. 은원(恩怨)과 시비가 분명하다

다산은 은원이 분명했다. 특히 은혜를 입으면 기억했다가 꼭 갚았다. 옳고 그름에 대한 계산도 분명했다. 다산이 지은, 사람과 관련된 문집 속 글에는 드러나지 않게 행간을 감춘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 분명하게 심어둔 의미가 있었다.

서학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자기검열을 거쳐 삭제되거나 말소되었다. 정약종과 이승훈에 관한 흔적이 특히 그렇다. 1778년 가을, 화순 현감으로 있던 부친의 임지에 네 형제가 모두 내려갔다. 네 형제는 인근 물염정과 적벽으로 나들이를 떠나고 무등산을 유람하며 시문을 짓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해 11월 다산은 무등산 남쪽 자락, 나한산 만연사의 말사였던 동림사(東林寺)로 들어가 40일간 집중 독서를 하며 과거 시험을 준비했다.

「동림사독서기(東林寺讀書記)」에서 다산은 “나는 둘째 형님과 함께 동림사에서 지내면서, 둘째 형님은 『상서』를 읽고, 나는 『맹자』를 읽었다”⁵⁴⁾고 썼다. 하지만 이때 함께 공부한 사람 중에는 정약종도 있었다. 무등산 유람 후, 4형제 중 큰형 약현이 혼자 고향으로 돌아간 사실은 부친 정재원의 시집 『하석유고(荷石遺稿)』에 실린 시 「집으로 돌아가는 약현을 전송하며(送若鉉還家)」로 확인된다. 나머지 3형제는 그대로 남아 동림사로 가서 과거 공부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다산은 정약종 사후에 그에 관한 부분을 모두 깨끗이 말소해버렸다. 다산과 특별히 가까웠던 정약종에 대해 다산은 문집에서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1795년 금정찰방으로 내려와 있을 때 이삼환을 좌장으로 성호 이익의 유저를 정리하는 서암강학회를 주도한 것은 이승훈과 다산 두 사람이었다. 다산의 『금정일록(金井日錄)』 중 8월

52) 정약용, 「答仲氏」, 『다산시문집』 권20: “星翁銘旌之制, 苟簡不典, 且非古意. 銘旌宜復三尺之制, 用周尺 插於重木, 則魂帛之謬可正, 且不必大段駭俗, 未知如何.”

53) 정약용, 「母子」二, 『喪禮四箋』 권10: “沙溪曰: ‘十一月而練, 爲妻同. 見喪服疏. 【杖期章】 ○星湖曰: ‘賈疏亦仲者, 謂仲其禪杖, 非仲練也.(중략) 沙溪之書, 分明誤引.’ ○鏞案: (중략) ‘若如星翁所云, 則賈氏於爲母之期, 亦只舉禪杖, 將母服無練乎? 爲妻亦練, 當從沙溪.’”

54) 정약용, 「동림사독서기」, 『다산시문집』 권13: “余與仲氏住棲東林, 仲氏讀尙書, 余讀孟子.”

초에 이삼환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산은 “성호 선생의 문집을 정리하는 작업은 그사이에 이형과 상의해보셨는지요?”라고 했고, 10월 중순 경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형에게는 그다지 가까운 곳이 아니나, 계시는 곳과의 거리는 또한 50리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썼다.

강학회가 끝난 뒤에도 이승훈과 정약용을 둘러싼 비방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는 강학회가 장소 섭외와 비용 마련까지 두 사람에게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산의 「서암강학기」에는 이승훈의 이름이 완전히 말소되고 없다.⁵⁵⁾

뿐만 아니라 『다산시문집』에서 사적으로 이승훈의 이름을 말할 때는 ‘이형(李兄)’이라고만 했고, ‘만천(蔓川)’인 호도 ‘만계(蔓溪)’로 바꿔 썼다. 문집에서 이렇듯 정약종과 이승훈 관련 기록은 검열을 거쳐, 있었던 사실조차 지워버렸다.

하지만 천주교 문제와 밀접하였더라도 신앙 문제로 처형되거나 국가의 사정(査正)에 걸려든 상황이 아닐 경우, 다산은 혐의를 무릅쓰고라도 그들에 대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다. 「우인 이덕조만사(友人李德操輓詞)」, 「제춘보문(祭春甫文)」, 「제숙보문(祭菽甫文)」, 「제시강원필선김공상우문(祭侍講院弼善金公商雨文)」 같은 글이 그러하다.

1785년 이벽이 갑작스레 병으로 죽자 다산은 그를 위해 만사를 지어 문집에 수록하였다. 앞서 이승훈과 정약종의 경우와는 확연히 달랐다. 이벽은 천주교 문제가 공론화 되기 전에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춘보는 이름이 이우춘(李遇春)으로 다산의 집안 일을 보던 집사였다. 그는 1790년 3월 다산이 해미에 열흘간 유배되었을 때 동행했고, 1794년 9월 다산이 벼슬에서 쫓겨나 백운대에 올랐을 때도 함께 했다. 부친상과 암행어사 당시는 물론 금정찰방으로 좌천되어 갔을 때도 그는 늘 지근거리에서 다산을 보좌했던 인물이었다. 1796년 가을에 그가 세상을 뜨자, 고통스런 시간을 자신과 함께 했던 그의 의리를 기려 제문을 남겼다. 글 속 다산과 함께 한 그의 동선으로 보아 그는 아마도 천주교 신자였을 것이다.

숙보(菽甫) 김석태(金錫泰)는 1787년 정미반회사건 당시 다산과 이승훈이 서학서를 공부하던 반촌(泮村)의 집주인이었다. 그는 분명한 천주교 신자로, 다산에게 강학과 집회의 장소를 제공해주었을 뿐 아니라, 다산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사람이었다. 그의 역할은 오늘로 치면 일종의 본당 사무장 신분이었다. 다산은 그를 위해 써준 제문에서 “지극 정성 하늘 뚫고, 지극한 정 땅과 통해. 나를 위해 잠을 깨고, 날 위해서 잠 들었지. (중략) 내 잘못을 지적하면, 크게 성내 칼 뽑았고, 나 좋다는 사람에겐 그를 위해 몸 바쳤네. 혼마저도 배회하며, 내 곁에 여태 있네. 저승 비록 멀다 하나, 가서도 날 생각하리.”⁵⁶⁾라고 한 것만 보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신앙에 바탕을 둔 깊은 결속과 유대가 느껴진다.

이우춘과 김석태는 아마도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을 것이다. 그가 만약 사학 죄인의 신분으로 죽었더라면 검열을 거쳐 문집에서 삭제되었겠지만, 두 사람은 모두 서학 문제가 사회적 공론화가 되기 전 상태에서 세상을 떴기 때문에 이벽의 만사와 함께 두 사람에게 대한 제문이 문

집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시강원 필선을 지낸 김상우(金商雨, 1751-1820)가 1820년에 세상을 뜨자 다산은 그를 위해 따로 제문을 지어 보냈다. 언외에 뜻이 넘쳐나는 미묘한 글이다. 다산은 『죽란일기』에 1796년 3월 19일에 김상우가 보내온 시 두 수를 실었다. 서학 문제로 세상의 비방과 시달림에 지쳐있던 다산을 위로한 내용이다. 이 시에 대한 다산의 답시는 『다산시문집』 권3에 실린 「김좌현을 생각하며 2수를 써서 부치다(憶金左賢簡寄二首)」이다. 애뜻한 마음들이 오간 것이 보인다.⁵⁷⁾

다산은 제문에서 “뜻은 어진 재상을 사모하였지만 발은 권세와 이익의 문을 밟지 않았고, 마음은 이교(異教)를 미워하였어도 입으로는 배척하고 모함하는 말을 담지 않았다”⁵⁸⁾고 썼다. 채제공의 권세에 붙어 이익을 구하지도 않았고, 천주교를 믿지 않았지만, 서학 문제로 자신 등이 곤욕을 치를 때 부화뇌동하지 않고 침묵의 중립적 태도를 견지한 그 마음 씩씩이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한 내용이다.

다산은 강진에서 풀려나 19년 만에 그를 찾아가 만났을 때, 불우와 빈곤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의연한 그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던 듯하다. 당시 그는 “이쪽에서도 기뻐하지 않고, 저편에서도 부르지 않는(此莫之悅, 彼莫之致)” 냉담함 속에 넣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구설 속에 있었던 자신을 눈치보지 않고 팔 벌려 따듯이 맞아주었다. 또 “월계의 배 위에서 즐겁게 얘기하며 손을 잡았으니, 서로 받아들인 것은 그만이지만, 서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시금 어디에서 말하리까?”⁵⁹⁾라고 한 대목은 둘 사이에만 오간 내밀한 사연의 일단을 가늠해보게 한다. 광란의 광기가 휩쓸고 가던 그때 그의 침묵과 관용은 그가 사실은 천주교에 대해 암묵적 동조자였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다산시문집』 권17에 나란히 실린 세 편의 기사문(紀事文)의 행간도 자못 깊다. 「조성삼 진사가 유배 간 이야기(紀趙聖三進士流配事)」, 「이대장이 자객을 만난 이야기(紀李大將遇刺客事)」, 「고금도 장씨 여자 이야기(紀古今島張氏女子事)」 등 세 작품이 그것이다.

먼저 「조성삼 진사가 유배 간 이야기(紀趙聖三進士流配事)」는 진사 조상겸(趙尙謙)이 신유박해 당시 영남에 귀양 가서 죽은 일에 대한 기사다. 그는 특별히 권철신, 이가환과 가까웠다. 누구든 권철신을 비방하면 평소 유순했던 그가 맹수 같이 돌변했으므로 이 일로 목만중, 홍낙안 등 공서파의 미움을 샀다. 이후 권철신의 사판(祠版)을 훔쳐내 그가 신주를 불태웠다는 모함을 씌우려던 악당들의 음모를 밝혀 군수 유한경을 파직시켰으나, 새로 부임한 군수 정주성에 의해 하옥되어 곤장을 맞고 곤양군에 유배 가서 죽었다.

『사학징의』에는 그의 유배 이유를 “조동섭에게 사학을 배운 죄로 곤양(昆陽)에 유배 갔다.(學邪於東暹罪, 流配昆陽.)”고 밝혀 놓았다. 그가 천주교 신자였다는 얘기인데, 다산은 천주교와 관련된 말은 한 마디도 섞지 않고, 다만 그가 권철신을 죽이려던 악당들의 거짓을 밝혀, 이것으로 미움을 사서 귀양 가 죽은 것처럼 기술하였다. 같은 글 속에 나오는 조상겸의 계부 조정상(趙貞相, 1727-1789)도 이재기의 『눌암기략』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모두 채제공의 사

55) 관련 내용은 정민, 『다산의 일기장』, 앞의 책에서 상세히 검토한 바 있다.

56) 정약용, 「祭菽甫文. 泮村主人 金錫泰, 字菽甫」: “至誠徹天, 至情徹地. 寤爲余寤, 寐爲余寐. 闕于家室, 而爲余密. 慢于趨逐, 而爲余疾. 余咎人摘, 拔劍大噴. 人與余好, 爲之糜身. 魂兮遲徊, 尚在我側. 九原雖遠, 逝將相憶.”

57) 관련 내용은 정민, 『다산의 일기장』 앞의 책, 393-395면에서 살폈다.

58) 정약용, 「시강원필선김공상우문」, 『다산시문집』 권17: “志慕賢相, 而足不蹈勢利之門, 心嫉異教, 而口不道擠陷之言.”

59) 정약용, 「시강원필선김공상우문」, 『다산시문집』 권17: “月溪之船, 歡諧以把臂, 其相入者已矣, 其不相入者, 復說於何地?”

후 관작추탈 및 복권과 관련하여 이기경, 홍낙안 등에 맞서 싸웠던 인물로 그려진다. 한 측면을 과장되게 부각시켜 천주교 문제를 그 그늘에 묻었다.

「이대장이 자객을 만난 이야기(紀李大將遇刺客事)」는 1801년 황사영 백서 사건 당시 포도대장을 맡아 사학죄인 징치를 담당했던 이광익이, 물러나 지내던 시골 집에서 밤중에 자객을 만난 이야기를 다루었다. 처음 승지로 있을 때 사학죄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기색이 있었다며 축세(畜勢)한 뒤, 황사영 사건 당시 관련 체포자가 수천 명에 달할 정도여서 고문으로 죽은 자가 길을 메울 정도였지만, 이광익은 늘 핑계를 대면서 형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받아 호응했다.

이후 용인으로 물러나 살 때 어떤 나그네가 하루 밤 묵어가기를 청하였고, 밤중에 칼을 빼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했다. 그의 아버지가 조모(趙某)였고, 아무 날에 죽었다고 하자, 이광익이 그날 자신은 일을 보지 않았다고 진실되게 말하니 그가 칼을 거두고 사과하며 떠나갔다는 이야기이다. 나중에 어영대장에 오른 이광익이 이벽의 아우 이석(李晳)에게 전해준 말을 자신이 이석을 통해 들었다고 경위까지 기록해 두었다.

당사자의 성씨를 조씨(趙氏)로 특정한 것은 지금에 와서 알 수 없게 되었지만 당시의 문맥에서는 분명히 가리키는 지점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광익이 천주교 신자 아들에게 복수를 당할 뻔한 이야기를 무심한 듯 적었으나, 그가 천주교 박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음덕으로 죽음을 면하게 된 사연을 기록한 셈이다. 일종의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수법이다.

「고금도 장씨 여자 이야기(紀古今島張氏女子事)」는 인동 사람 장현경(張玄慶)이 국상 기간 중 금주령을 어기고 생일 술잔치를 벌인 인동부사 이갑회(李甲會)를 꾸짖었다가 보복을 당해 일가가 풍비박산한 이야기이다. 당초 장현경의 아버지는 부사 이갑회의 아버지와 먼 친척간으로 우연히 당시 영남 지역에 떠돌던 정조 독살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이갑회의 부친은 눈물을 흘리며 분개하고 공감했다. 하지만 금주령을 어긴 자기의 죄를 장현경이 성토했다고 여긴 이갑회가 이 독살설로 그를 반역죄로 몰아 선제적으로 처단하려 했다. 놀란 장현경이 달아났고, 아우는 벼랑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아버지도 끌려갔다.

이후 사건은 연루자 수백 명에 대한 검거 소동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조정에서 안핵사로 이서구를 파견할 지경까지 커졌다. 결국 아무 근거 없는 사건이어서, 달아난 당사자 대신 그 아내와 두 딸, 아들 하나가 신지도로 귀양 가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큰 딸이 군졸의 지속적인 희롱을 욕스럽게 여겨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했고, 그 어미도 뒤따라 죽었다. 이후 그녀들이 죽은 7월 28일만 되면 그 원한으로 이른바 ‘처녀풍(處女風)’에 실린 소금비가 쏟아져 농사를 다 망친다는 이야기였다.

다산은 시문집 권1에서도 「염우부(鹽雨賦)」를 지어 당시의 일을 따로 고발했다. 다산은 이 글을 “진실로 상서로움과 재앙은 종류에 따라 감응하니, 힘써 스스로 반성하여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면해야 하리라.(固休咎其類應, 勵自省而懲勸.)”는 말로 맺었다. 상서로움과 재앙은 그 종류에 따라 감응하여 드러난다. 장현경 일가의 잇단 불행과 소금비의 재앙은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한 이갑회의 간악한 행동의 결과였다. 국상 중 금주령을 어긴 개인의 비리를 덮자고 자신과 먼 인척 관계였던 한 가정을 파탄 냈고, 선제적 보복을 위해 애초에 없었던 역모를 꾸

며 국가가 안핵사를 파견하게 만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잇달아 벌어졌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하늘이 분노해 대신 징치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다산은 기사문의 끝에서 모녀의 죽음으로 퇴출당하게 된 강진현감 이견식이 비장에게 뇌물을 써서 사건을 불문에 부치고, 암행어사 홍대호마저도 없던 일로 외면해버린 이 사건을 거듭 고발함으로써 비정(秕政)의 광정(匡正)을 촉구하였다.

무심한듯 나열한 세 편의 기사가 공교롭게도 그 가리키는 지점이 서로 맞닿아 있다. 조상겸은 권철신을 지키려다 천주교인으로 모함을 받아 귀양 가서 죽었고, 이광익은 천주교인 탄압에 소극적으로 임해 마침내 그 음덕으로 목숨을 건졌다. 또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엉뚱한 죄를 조작하여 일가를 죽음으로 내몬 포악한 관리와, 죽음의 원한을 소금비의 저주로 내리는 하늘의 이치를 담아, 광기와 적개심에 불타 서학 척결의 명목으로 선류(善類)를 해치던 간악한 무리들의 행태를 잇달아 고발했다.

또 함께 살피지 않을 수 없는 한편의 글은 「죽대선생전(竹帶先生傳)」이다. 대나무를 짚라 만든 허리띠를 하고 다녀 죽대선생의 별호를 얻은 이종화(李宗和, ?-1818)의 전기다. 이 글은 “신유년 가을에 목만중, 홍희운, 이기경 등이 사람의 생살권을 쥐고서 날마다 선류(善類)를 제거하기를 마치 풀을 깎고 짐승을 사냥하듯”⁶⁰⁾할 때의 여러 정황을 담았다. 이어지는 글에는 유언비어로 이기경이 대계(臺啓)를 올려 자신의 방축전리(放逐田里)의 명 집행을 방해하고, 풍문만으로 이관기(李寬基)를 체포해 고문해 장흥으로 귀양보내며, 풍문으로 조상겸을 붙잡아 영남에 유배 보내던 천주교 탄압의 각종 실체를 폭로했다.

이후 이기경 등이 죽은 채제공에게 사학을 두호했다는 죄명을 씌워 사후 관작을 추탈하려 했을 때, 이종화가 분연히 일어나 이들과 맞섰다. 이종화는 이기경에 의해 형조로 끌려가 죽기 직전까지 고문과 매질을 당하다가 단성현에 유배 갔다. 이에 그 딸이 이기경의 집에 큰 칼을 들고 찾아가 찌르려 한 사건이 더 나온다. 사건의 앞뒤 전말을 자세히 적고, 끝에 붙인 의사씨의 논(論)에서 다산은 자신이 이종화와 진작부터 알고 지냈지만 그가 이처럼 열렬한 의사(義士)일 줄은 짐작하지 못했다고 썼다.

「죽대선생전」은 이종화의 행적을 빌어 이기경 등 다산 자신을 탄압했던 공서파들의 간악한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쓴 글이다. 여기에서도 천주교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채제공의 사후 관작추탈 사건의 전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관기, 조상겸 등 천주교인으로 유배 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끌어들이며, 천주교인 탄압의 부당성을 폭로하였다.

이렇듯 다산이 쓴 이벽, 이우춘, 김석태, 조상겸, 포도대장 이광익을 죽이려 한 자객,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장현경 일가를 파탄 내고 국가 기강마저 무너뜨린 이갑회, 채제공의 사후 관작 추탈에 분연히 맞섰던 죽대 선생 이종화 등에 관한 글은 모두 은원과 시비를 가르는 대차대조표에 입각해 나온 글이다. 이 모든 기록의 행간에 다산은 직설할 수 없었던 시대의 진실을 담아 사실을 박제하고자 했다. 그의 기록에는 늘 의도가 있고 행간이 숨어 있었다.

은원 뿐 아니라 시비의 문제도 엄정했다. 다산이 금정찰방으로 있을 당시 홍주 목사로 있던 유의(柳誼, 1734~?)는 다산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품에 크게 감동하여

60) 정약용, 「죽대선생전」, 『다산시문집』 권17: “嘉慶辛酉秋, 睦萬中洪義運李基慶等, 操生殺之權, 日除善類, 如草薶禽獮.”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등에 8차례에 걸쳐 그의 일화를 수록하였고, 문집에 따로 「병조참판 유공의유사(兵曹參判柳公誼遺事)」를 실어 그의 행적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반면 당시 충청도 관찰사 유강(柳綱, 1706-?)은 다산에게 대단히 협조적이었지만 공주 감영의 창곡 관리의 난맥상과 아전의 횡포를 정면에서 고발한 다산의 시로 인해 정식으로 고발되어 파직되었다.⁶¹⁾

이렇듯 다산은 자신의 행동 원칙에서 옳고 그름의 잣대가 있을 뿐, 호오(好惡)나 친소(親疎)로 판단을 흐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은원도 분명해서 입은 은혜는 기록으로 남겨 증언하였다. 원한은 되갚는 대신 그 곡절과 시비를 가려 필요에 따라 행간 속에 은폐하거나 문집과 일기로 분산시켜 합을 맞춰야 실상이 드러나게 하였다. 성동격서로 초점을 바꾸는 글쓰기의 장치도 십분 활용하였다. 이것이 문면 만으로 다산의 속내를 읽기 힘든 까닭이기도 하다.

7. 맺음말

지금까지 청년 다산의 행동 원칙을 타협 없는 직진, 정면 돌파, 권위 불맹종, 은원과 시비 분별의 다섯 항목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청년 다산이라고는 했지만, 실로 이 다섯 가지 행동 원칙은 다산이 평생에 걸쳐 견지했던 삶과 학문의 원칙이기도 했다.

이번 글을 정리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천주교의 화두가 청년 다산을 에워싸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이를 통해 다산이 천주교 신자냐 아니냐의 저급한 논쟁으로 확대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렇지만 다산과 서학과의 관계를 이제는 정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다. 이 문제를 검토하는 동안 필자는 지속적으로 암묵적이고 편당적인 비난과 맞닥뜨려 왔다.

1801년 고산 현감 이인행(李仁行, 1758~1833)이 전주 유항검의 옥사를 조사할 때 압수 문서 중에 유항검이 이가환 정약용과 왕복한 서찰 3통이 들어 있었다. 이인행은 두 사람을 지켜주려고 그 편지를 소매에 얼른 감추었다가 발각되어, 이 일로 파직되어 돌아간 일이 있었다.⁶²⁾ 다산은 해배 된 뒤 이인행과 23년 만에 만났다. 이때 다산은 그와 영남의 학풍에 대해 토론을 벌였는데, 그 중 한 대목은 이렇다.

그 기미나 논설이 자기와 다르면 문득 배척하여 미워하는 생각을 품는다.(중략)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세우기를 구하여, 이리저리 주워 모아 억지로 합쳐놓고, 별다르지도 않은 논의를 힘써 배척하곤 한다. 무릇 창의적인 견해를 담은 주장은 맞받아 쳐부수기에만 힘을 쏟아, 고루한 데서 스스로를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대저 널리 인용한 증거들은 탐구함에 소략하여, 공변된 이치에서 가르침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는 천하 만세의 일이지, 한 사람이나 한 집안의 사사로운 물건이 아니거늘, 어찌 제멋대로

61) 유익와 유강, 두 사람에게 대한 전후 사정도 정민, 『다산의 일기장』 앞의 책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 있다.

62) 강세정, 『송담유록』, 앞의 책, 98면 참조.

단안하기를 이처럼 할 수 있는가?⁶³⁾

다산의 영남학계에 대한 이같은 지적이 어찌면 오늘날 다산학 연구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간 우려스럽다.

다산은 스스로를 태양증에 마갈궁의 운명을 타고 났다고 여겼을만큼 부당한 논의나 엇갈린 시비를 그저 견뎌 넘기는 법이 없었다. 옳고 그름은 반드시 따져보아 석연한 뒤라야 그만 두었고, 이해가 엇갈릴 때는 시비의 기준을 확호하게 세워 밀어붙였다. 그는 직선적이었고 직정적 돌파형의 인간이었다. 어떤 권위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고, 자기가 옳다고 승복한 것에 대해서만 기꺼이 수긍하였다. 은원과 시비의 분별을 확실히 두었고,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 반드시 춘추필법에 따라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청년 다산의 정신을 견인한 것은 서학의 사유였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란 명제를 성리학의 개념에다 끌어다 썼고, 마태오 리치가 『천주실의』에서 말한 ‘자립(自立)’과 ‘의뢰(依賴)’에서 ‘자유지물(自有之物)’과 ‘의부지품(依附之品)’의 개념을 끌어내어 『중용강의』에서 원용하였다. 열린 마음으로 여러 학설을 섭렵하여 서양 선교사의 글 뿐 아니라 일본 학자의 글까지도 적극 인용하였다. 그의 학설이 툭 터져 시원스런 느낌을 주는 것은 이 개방성 때문이었다.

오늘날은 펄펄 살아 숨쉬는 다산학의 전방위적 발달함이 갈수록 틀에 갇혀 정형화되는 느낌이다. 다산에게서 원하는 모습만 찾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며, 보던 대로 보고, 가던 길로만 가서는 틀에 넣어 박제된 다산학의 답답함만 강화될 것이다. 질문을 바꾸고, 경로를 고쳐 우리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생동하는 청년 다산학의 새 지평을 기대해본다.

63) 정약용, 「論嶺南學術說」, 친필본: “或其氣味論說, 與己差殊, 輒生排軋之志, 積久漸漬, 各尊所聞, 故至於今日, 風起水涌, 莫之能救, 其病根在是. 性理之論, 亦未嘗無弊. 使學者, 高薦遠引, 宏辯逞氣. 甚則詰訓章句之未達源委, 旨義歸趣之未定要領. 而連章累牘, 求立其一偏之見, 薈萃牽合, 而力拒其小異之論. 凡創見之說, 銳於迎擊, 而不思自反於孤陋. 凡廣引之證, 略於探究, 而不念聽命於公理. 此是天下萬世之事, 非一人一家之私物, 豈容專斷如是耶.” 관련 논의는 정민, 「다산과 이인행의 남북학술논쟁」, 『다산의 재발견』(휴머니스트, 2011), 517-548면에 자세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자료

『정본 여유당전서』,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조광 역, 『邪學懲義』(2책), 한국순교자 현양위원회, 2001, 2022
 『推案及鞫案』, 한국근세사회경제사료총서, 제 25책, 아세아문화사, 1978
 姜世靖 著, 鄭珉 譯, 『松潭遺錄』, 김영사, 2022
 李在璣 著, 鄭珉 譯, 『訥菴記略』, 김영사, 2022.

논문 저서

김상홍, 「다산의 비분 묘지명 7편과 천주교」, 『동아시아고대학』 제 30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3
 김수태, 「정약용과 천주교의 관계 재론 -「자찬묘지명」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제 42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13
 김수태, 「정약용과 천주교의 관계 재론(2): 『다산의 일기장』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제 66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25
 김언종, 「정다산 『논어고금주』 연구」, 『중국문학연구』 제 3집, 한국중문학회, 1985.
 김언종, 「정다산의 주자 『논어집주』 비판(5)」, 『한문교육논집』 제 20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배종석, 「명말의 서학전문가 손원화의 천주교 수용양상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 13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5
 백민정, 「도산사숙록으로 본 다산의 퇴계 독법」, 『다산학』 제 41집, 다산학술문화재단 2022.12, 7-71면.
 서근식, 「星湖學派에서 다산 정약용 사단철정론의 의미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제 90집, 한국유교학회, 2022, 103-128면.
 송세흥, 「정다산의 신앙 여부」, 『가톨릭청년』 제 30호(3권 11호), 가톨릭청년사, 1935. 10.25, 29-33면
 원재연, 「다산 정약용과 서학/천주교의 관계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다산의 천주교 신앙 문제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제 39집, 2012
 이지형, 「다산의 『논어고금주』에 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 29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4, 3-23면,
 정민, 『파란』 I·II, 천년의상상, 2019
 정민,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 김영사, 2022
 정민, 『다산의 일기장』, 김영사, 2024
 정민, 「서학의 관점에서 본 다산 4종 일기」, 『다산학』 제 44호, 다산학술재단, 2024, 75-136면.
 정민, 「다산이 꿈꾸었던 세상-다산과 천주교」, 『대동문화연구』 132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5. 12, 233-271면.

조광, 「다산 정약용과 서학의 관계」, 『다산과 현대』 제 16집, 2023
 조성을, 「정약용과 교안」, 『한국실학연구』 제 25집, 한국실학학회, 2013
 최석우, 「정약용과 천주교의 관계-Daveluy의 비망기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사의 탐구』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판토하 저, 정민 역, 『칠극』, 김영사, 2021.
 黃一農, 『兩頭蛇: 明末清初的第一代天主教徒』, 國立清華大學出版社, 2005

성균관 유생과 규장각 각신 시절 다산이 경험한 서적문화

노경희(울산대 글로벌인문학부 교수)

1. 들어가며
2. 강진 시절 제작 다산 고본(稿本)의 형태적 특징
3. 다산의 서적 관련 기록 정리
4. 성균관 유생 시절 중국 서학서(西學書) 경험
5. 규장각 각신 시절 관찬서(官撰書)와 중국서 경험
6. 청년 다산이 경험한 서책들의 형태적 특징

1. 들어가며

1800년 정조가 서거한 이후 다산은 바로 다음 해 펼쳐진 천주교 탄압의 신유박해에서 주요 인물의 하나로 거론되며 의금부에 잡혀 들어갔다가 결국 유배형을 받고, 처음에는 장기로 그리고 황사영백서 사건으로 다시 강진으로 유배를 와서 1818년 유배에서 풀릴 때까지 18년의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다. 강진에서 그는 그곳의 아전 등 이속(吏屬) 계층의 아이들과 승려, 외가 해남 윤씨 집안의 자제들을 제자로 삼아 흔히 ‘500권 100책’이라 불리는 불멸의 금자탑을 쌓았다.

유배지에서도 그의 죽음을 청원하는 상소가 끊이지 않고, 해배의 기운이 불다가도 번번이 반대파에 발목이 잡혀 다시 취소되는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는 지리한 나날들 속에서, 삶을 위협하는 불안과 절망에 굴하지 않고 이를 학문으로 승화한 다산의 불굴의 의지는 보통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다산이 유배지라는 불모지에서 이렇게 엄청난 과업을 이룩할 수 있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그가 유배지에서 길러낸 성실하고 재주 있는 제자들과 호남의 대부분 해남 윤씨 집안의 물심양면 지원, 정학연·학유 등 아들들의 헌신적인 노력 등이 언급되고 있다. 거기에 다산의 학문적 재능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가 그 바탕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큰 재능을 타고 났다고 해도 어린 시절부터 그 재능을 키워주는 환경이 뒷받침되어 충실하게 학문을 닦지 않았더라면, 그가 유배라는 극한 처지에서 학문을 닦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 매진하여 대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다산은 어린 시절 관직에 밀려 한가히 지내던 부친 정재원에게 가학으로 기본을 탄탄하게 닦았고, 선배 문인들과 책을 통해 성호 이익의 실사구시 학문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인척(姻戚)으로 얽힌 이벽과 이승훈 등 당시 조선에서 가장 먼저 천주교를 들여오고 전파한 이들과의 교류 속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서학 서적을 접하고 탐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1789년 대과에 급제해 본격적으로 관직에 진출한 이후로는 규장각의 초계 문신에 선발되어 당시 정조가 구축한 규장각의 방대한 서적 문화를 온몸으로 누릴 수 있었

다. 관직에 들어선 이후 탄핵과 파직, 외직으로 밀려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정조는 다산에게 늘 규장각에서 간행한 책들을 챙겨주었고, 규장각의 출판 사업에 참여시켰으며, 각신이 아니더라도 각신에 버금가는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청장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산은 조선에서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다채로운 학술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여기서 구축한 단단한 학문적 토대 위에 그는 유배지라는 정신적·물질적 극한의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학문 세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다산이 18년 유배 생활을 오히려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그의 학문적 기반, 어린 시절부터 관직 생활을 통해 일군 배움과 경험들에 집중하여 그의 학문의 자양분을 탐색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성균과 유생 시절 서학서에 탐닉한 경험과 규장각 각신과 관료 시절 그곳 서고의 방대한 자료들에 묻혀 지냈던 경험이라는, 그의 학문의 커다란 두 축을 살필 것이다. 특히 그 방법으로 다산의 초년부터 관직 생활 기간 동안 그의 서적과 관련된 활동 및 그가 접한 주요 서적들을 정리하고, 당시 다산이 접했던 서적의 실물 형태를 최대한 추적하여 그 형태적 원형을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다산이 유배 18년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제작한 서적들이 보여주는 정련된 형태가 어떤 바탕 위에서 탄생한 것인지 추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강진 시절 제작 다산 고본(稿本)의 형태적 특징

먼저 그간 『여유당전서』 전집을 처음 출판한 신조선사본(이하 ‘신조본’)의 저본 또는 다산 저술의 정고본에 가장 근접하다고 평가받아온 다산가 집안의 소장본, 또는 저술단계에 필사된 다산과 그 제자들의 필사본을 살필 것이다.¹⁾ 이 자료들에게 대해 일찍이 필자는 ‘고본(稿本)’이라 불러야 함을 제안한바 있다.

다산의 5백여 권에 달하는 저술은 대부분이 18년간의 강진 유배 시절에 집필되었거나 초고가 이루어졌다. 이들 저술은 다산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집체저술의 형태’이다.²⁾ 그리고 이 작업들은 오늘날 ‘다산학단’이라고도 불리는 다산의 아들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에서 『사암선생연보』에 실린 다산 저작의 저술 풍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찍이 다산(茶山)에 계실 때 열심히 책을 저술하느라 무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으셨고, 겨울밤에는 새벽닭이 울 때까지 계속하셨다. 그 제자들 중에는 경사(經史)를 뒤적이며 자료를 찾는 사람이 몇 명, 입으로 불러주면 날듯이 빠른 붓놀림으로 받아 적는 사람이 몇 명, 늘 교대하며 원고를 바꾸고 正書하는 사람이 몇 명, 글씨를 쓸 공책에 오사란(烏絲欄)을 긋고 잘못된 글자를 대조하고 고치며 종이를 밟고 장황하는 등 곁에서 일

1) 다산 저술의 원고본에 해당하는 ‘고본(稿本)’ 자료들의 개괄은 노경희의 「다산 저술 ‘고본(稿本)’의 성격과 자료 전승 현황」(『다산학』 17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에서 처음 제시되고 이후 「다산 저술의 형성과 유전(流傳)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다산 필사본 연구』, 공저(9인), 사암, 2019, 17~32쪽)에서 보완되었다. 『여유당전서』의 텍스트 검토를 제기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김영호의 「『여유당전서』의 텍스트 검토」(『정다산 연구의 현황』, 민음사, 1985)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다산가 소장 정고본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임형택, 「정약용의 강진유배기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 비평사, 2000) 참조.

을 도와주는 사람이 서너 명 있었다.³⁾

현재 전하는 다산 저술의 고본은 상당수가 다산 제자들의 필사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인물이 윤종수(‘尹峒’이라고도 한다)인데, 그는 글씨에 뛰어나 다산이 유배지에서 저술한 저작의 2/3를 필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⁴⁾ 이때 편찬되고 제작된 저술들은 다산과 그 제자들의 집안에 전승되었는데, 이 자료들이 바로 다산가 전승 고본 자료들이다. 다산 저술 고본 자료의 기본적인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산 또는 다산의 아들과 제자들이 저술의 단계에서 필사한 원고본 또는 최종 정리본으로, 다산의 지시에 따라 필사되었다.

둘째, 여러 차례 수정 가필이 이루어졌으며, 저술에 따라 초고본, 재고본, 삼고본 등 몇 종의 이본이 전승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저술 내용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셋째, 다산 저술의 정고본이거나, 정고본이 아니더라도 정본을 확정하는데 가장 기본 자료의 역할을 한다. 이 중 일부는 신조선사본을 비롯한 정식 간행본의 저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고본들은 다산과 제자들의 집안에 전승되었고, 이후 다산 저술이 공간될 기회가 마련되었을 때 저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 예로, 1902년 광문사본 『목민심서』의 간행은 윤종수의 집안에서 전해오는 ‘윤종수 필사/다산 교정’의 초고본과 다산 집안에서 전해 오던 개정본을 상호 대비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⁵⁾

다산 저술의 고본은 당시 조선의 일반적인 서책들과 비교할 때 무엇보다 형태적으로 뚜렷이 구별된다. 되는 특징들을 보인다. 즉, 책의 크기·표지·장정·원고지·글씨체·필사 형태 등이 여타의 조선 책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들 서적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 내용이 아닌 외양을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이다. 이들 고본에 익숙한 경우라면, 책의 모양과 필사 형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곧장 고본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이들 고본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한다.(이하의 논의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실물 서적 사진은 발표 시 PPT로 제공한다.)

현전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다산 저술 고본의 형태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고로 김영호가 제시한 몇 가지 기준을 보기로 한다.⁶⁾

① 고본(稿本)의 광곽(匡廓)은 19×12.5cm로서 10행 22자로 되어 있고 광외(郭外)에도 추가 설명 및 개정 기술이 있다.

3) 정규영 편, 『사암선생연보』(정문사판, 1984, 241면) “嘗在茶山, 劬心編摩, 夏暑不輟, 冬宵聽鷄, 其弟子之閱經攷史者數人, 口呼受寫, 走筆如飛者數三人, 常替臂易稿正書者數三人, 旁之助役如烏絲欄, 濯誤唱準, 踏紙糝潢者三四人.”

4) 『海東佛報』8권(해동불보사, 1941.1): 紺泉은 康津 橋亭 尹鍾洙氏의 별호이다. 이름을 峒이라고 한 것은 佛家 문자에 발문을 썼기 때문에 그 본명을 숨겨 당시 유림들의 譏弄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다산이 강진에 거처할 때 主人이었으며 또한 그의 제자였다. 그 때 다산이 集成한 글이 모두 300여권이었는데 2/3는 모두 紺泉의 글씨였다(박철상,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필사본 조사의 성과」(『여유당전서』 정본사업 워크숍(2006. 8) 발표문)에서 재인용).

5) 안병직, 「『목민심서』考異」, 『정다산 연구의 현황』, 민음사, 1985, 46~8면.

6) 김영호, 앞의 논문, 29면 참조. 다만, 여기서 김영호는 이들 필사본을 ‘定稿本’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앞서 논의한 바 본고에서는 이 용어가 정확치 않으며 ‘稿本’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② 稿紙烏絲界線에 비단실 裝線이 있는데 4마디로 묶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 ③ 본문 속에 修訂加筆이 있고 正書한 후에 다시 삭제하도록 표시한 부분, 可考라고 하여 재검토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다. 아울러 중요한 부분에는 〇표의 朱印이 있다.
- ④ 필체는 인쇄체로 丁茶山 자필인 것이 대부분인 것 같으나 자필도 몇 개의체가 있고 또 제자의 필체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
- ⑤ 표지의 총편차는 卷數未定인 채로 되어 있으나 권수를 정하고도 지워버린 것이 많으며 대체로 3권이 책을 이루고 있다. 표지글씨는 모두 다산 자필로 보인다.

여기에 그동안의 필자의 조사를 바탕으로 확인된 사항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⁷⁾

- ① 형태적으로 볼 때 조선책의 가장 큰 특징은 표지에 능화문을 사용하는 것인데, 다산의 고본들은 책 표지에는 능화문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표지의 색깔이 짙은 갈색을 띄고 있다.
- ② 장정에 있어서 조선의 전통방식이 아닌 4침본의 중국 방식을 따르고 있다. 원고지의 계선은 인쇄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린 사격(寫格)의 형태이다.
- ③ 본문 곳곳에 紅·靑·墨色의 관주를 달거나 비점을 찍은 곳이 있다. 김영호가 ‘중요한 부분에는 〇표의 朱印이 있다’고 한 것은 이를 일컫는 말인 듯하다.
- ④ 장서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산 자신이나 주요 제자들이 보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장서인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다만, 최근 발견된 몇몇 자료에는 윤정기 등 후손가의 장서인이 찍혀 있기도 하다.

다산가 소장본은 다산 사후로 여기저기로 흩어져 오늘날 국내외 여러 도서관이나 개인 소장 자료로 편입되었다. 대표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단국대학교 연민문고, 서울대 규장각, 실학박물관, 영남대, 강진다산박물관, 강진의 다산과 제자들 후손가와 개인장서각, 미국 버클리 대학 아사미문고 등을 꼽을 수 있다.⁸⁾

3. 다산의 서적 관련 기록 정리

다음에서는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다산의 생애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서적들을 연도별로 정리하였다.⁹⁾ 편의를 위해 중국 수입 서학서와 규장각 장서·편찬서로 구분하였다.

연도	사건	서학서	규장각 장서 (조선·중국서)
1762 (영조38)	*마재(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능내리) 출생		

7) 이는 필자의 조사 및 박철상의 앞의 발표문(『목민심서』와 『경세유표』 필사본 조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8) 현재까지 확인된 다산 고본의 목록과 서지사항을 저작별 분류에 의거해 정리한 것은 노경희의 「다산 저술의 형성과 유전(流傳)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28~30쪽)의 도표 참조.
 9) 이 도표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약용, 「자찬묘지명」(집중본·광중본), 『조선왕조실록』, 정규영 지음·송재소 역주, 『다산의 한평생-사암선생연보』, 창비, 2014; 정민, 『파란-다산의 두 하늘, 청주와 정조』1·2, 천년의상상, 2019; 정해림, 『사암 정약용 전기』, 창비, 2022.

1776 (정조1)	*결혼하고 부친을 따라 서울에 거주		
1777 (정조2)	*채제공·이가환·권철신 등과 교류 *화순현감으로 부임한 부친을 따라감.		
1779 (정조4)	*서울에서 정약전과 과거시험 공부		
1783 (정조7)	*4월: 초시합격, 성균관 입학 *정조와의 첫 만남. *여름: 『중용강의』를 바침		
1784 (정조8)	*이벽과 배를 타고 두미협을 내려가면서 서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책 한 권을 보았다 *서광계, 『역상수리』, 『농정수리』, 서양인 방적아의 『칠극』, 필방계의 『영언여작』, 탕약망의 『주제군정』 등에 대한 논단→당시에는 금지령이 없었음. *이승훈이 북경에서 서양책을 사와서 반촌에서 함께 읽음. 『천주실의』, 『성세추요』를 정약용에게 받음(1791년 이기경 상소) 『기하원본』, 『수리정온』 이승훈이 중국에서 가져옴(1791년 실록 기록) 권일신이 반촌에서 『직방외기』 봄(1791년 실록 기록) *『연보』(김영호본): 여름에 처음으로 구라파 여러 책들을 보았다.	『역상수리』 『농정수리』 『천주실의』 『성세추요』 『기하원본』 『수리정온』 『칠극』 『영언여작』 『주제군정』	
1785	*3월: 추조(秋曹, 형조)에서 천주교도들의 비밀 신앙 집회를 적발한 ‘추조적발사건’ 발생. *10~12월: 정시 초시 연달아 합격 *12월 초1일: 『대전통편』 한 질을 하사 받음		『대전통편』
1787 (정조11)	*정월 26일: 반제에 뽑히고 『팔자백선』을 받음. *3월 14일: 반제에 뽑힘, 『국조보감』 한질과 백면지 100장을 상으로 받음. *8월: “근일에 내각에서 인쇄한 서책을 내가 모두 얻었으니 내가 줄 책이 없구나.” / 승지를 통해 은밀하게 『병학통』 하사 받음. *10월: 반회사건 벌어짐. 반촌에 있는 김석태의 집에 이승훈이 정약용 등과 함께 천주교 교리에 대하여 연구·토론한 일을 유생들이 성토했던 사건. *이기경 상소(1791): 10월부터 승훈의 무리들이 다시 천주학을 숭상한다는 소문이 돌았음/이승훈에게 부탁하여 『진도자증』(3권) 받음	『진도자증』	*『팔자백선』 *『국조보감』 *『병학통』
1788 (정조14)	* 8월: 서학과 서학서 금지령 내려옴. -이른바 서학에 대해서는 서울과 지방의 유사의 신하에게만 맡겨 잘 금지하도록 하라.(『정조실록』 「1788년(정조 12) 8월 3일」) -서울에서는 태학, 지방에서는 방백으로 하여금 만일 그 책에 중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벌을 게시해 대중에게 보이고 사류(士類)에 끼워주지 말게 하였다.(『정조실록』 「1788년 8월 6일」)		

1789 (정조13)	*3월: 전시에 나아가 탐화량이 되어 7품관 회릉직장에 제수되고 초계문신에 임명됨. 『회정당대학강의』 저술 *정조에게 『대학』 강의 *배다리 제작		*『회정당대학강의』 저술
1790 (정조14)	*한림 선발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해미현(현 서산군)으로 잠시 유배. *사간언 정언과 사헌부 지평에 임명.		
1791 (정조15)	*겨울: 호남에서 권상연과 윤지충의 옥사(진산사건 / 신해박해) *11월: 이기경의 초토신 상소문 *12월: 『시경의』 800조를 지어 바치고, 임금에게 칭찬과 비평을 받음→유배지에서 『시경강의』로 완성		*『시경의』 800조 저술
1792 (정조16)	*3월: 홍문관록에 뽑혔으며, 28일 도당회권에서 뽑혀 29일 홍문관 수찬에 제수됨. *5월: 부친 정재원 죽음. *겨울: 수원성 「규제(規制)」를 지어 올림. 『도서집성』, 『기기도설』을 하사받고, 「기중가도설」을 지어 바침.		*『도서집성』 「기기도설」 하사 *수원성 「규제」, 「기중가도설」 저술
1794 (정조18)	*6월: 3년상 마침 *7월 23일: 성균관 직장에 제수 *8월 초10일: 비변랑에 임명하는 계가 내려옴 *10월 27일: 홍문관 교리 제수, 28일, 홍문관 수찬 제수 *12월 13일: 홍문관 부교리 제수		
1795 (정조19)	*정월 17일: 사간원 사간에 제수 *2월 17일: 병조참의 제수 *3월 초3일: 의궤청 찬집 문신으로 계하됨, 규영부 교서로 부임할 것을 명 받음. *3월20일: 우부승지 제수 *4월: 규영부 교서직에서 정직됨 *7월 26일: 중국인 신부 주문모의 밀입국 사건에 돌쟁형 정약전이 연루된 사건으로 금정의 하급관리 금정도찰방으로 좌천.		*『정리통고』 찬술 *「식목년표」 작성 *「서암강학기」/ 「도산사숙록」 저술 *성호의 『가례질서』 편찬
1796년 (정조20)	*10월: 규영부 교서가 됨. 초계문신 이만수·이재학·이익진·박제가 등과 『사기영선』 교정 참여. *내장(內藏) 서적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함이 각신의 예와 같았으니, 특별한 배려였다.		*『사기영선』 교정 *『규운옥편』 자문
1797년 (정조21)	*이문원에 들어가 이서구·김조순과 함께 두시(杜詩)를 교정하라는 명을 받음. 당시 이익준·이만수·남공철 등이 규영부에서 육시(陸詩)를 교정하고 있었음. *교서관에 입직 * 이서구·윤광안·이상황 등과 『춘추좌씨전』(10책)을 『주자강목』의 예와 같이 하여 수십 일만에 편찬 *겨울: 『마과회통』(12권) 완성 *곡산부사 임명		*『춘추좌씨전』 편찬 *『마과회통』 완성

1798년 (정조22)	*임금이 『사기영선』에 주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여 김이교·김이재·홍수만·서준보 등이 찬주하였는데, 임금이 그 번작함을 꺼려 요점만 간추리고자 생각한 바, 공이 곡산부사로 부임해 갔을 때 그곳에서 찬주하라는 명을 받고 이를 완성해 각신 이만수를 통해 올림.		『사기찬주』 저술
1799년 (정조23)	*2월: 황주영위사에 임명. *4월 24일: 내직 병조참지에 제수됨. *5월 4일에 동부승지 제수, 5일에 형조참의 제수.		
1800 (정조24)	*1800년(정조 24, 39세): 정조 승하. 고향 마재의 여유당에서 저작 주력. *봄: 전원에 돌아갈 계획을 결정. 배로 소내의 별장으로 내려감. 임금이 승지를 통해 ‘규영부가 춘방이 되었으니 교서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는가’라 하였다. *6월 12일: 내각의 서리를 통해 『한서선(漢書選)』 10권을 가져와, 5월은 가전(家傳)의 물건을 삼고, 5월은 제목을 써서 도로 들여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명이 내려옴. *6월 28일: 정조 승하. *내가 옛날에 교리 홍복원으로부터 『문헌비고』를 빌려 보았다가, 「간오(刊誤) 1권을 만들었다. 임금님께 올려 보시도록 하려 하였는데, 마침 승하하셨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였으니, 아! 한스럽도다.		*『한서선』 하사 *『문헌비고간오』 완성

4. 성균관 유생 시절 중국 서학서(西學書) 경험

1783년 초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입학한 다산은 그때부터 형 정약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벽과 이승훈 등과 교제하며 서교(천주교)에 빠져 들어갔다. 정약용이 처음 서학에 대한 책을 읽은 것은 연보에 따르면, 1784년 형수의 죽음으로 장례를 치르고 이벽과 함께 배를 타고 두미협으로 내려가면서 그에게 서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책을 본 일이라 한다. 이미 조선에는 17세기 이후로 진주사 정두원(1581~?)이 서양 서적을 가져와 비부(祕府)에 바치기도 했으며, 『성호사설』에도 서양인 방적아의 『칠극』, 필방제의 『영언여작』, 탕약망의 『주제군정』 등에 대한 논단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연보」에서는 당시에는 금지령이 없었다는 부연 설명을 넣고 있다.

이벽을 따라 배를 타고 두미협을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서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책 한권을 보았다...(중략)...조공 가는 사신이 해마다 연경에 입조할 때는 으레 양당(洋堂)에 들어가 혹 정밀한 기계를 얻어 오기도 하고, 혹 새로운 책을 사가지고 오기도 한 것이 거의 200여년이나 되었다. 『성호사설』을 보면 상위수리(象緯數理)에 관한 책들이 외에 서양인 방적아(龐迪我)의 『칠극』, 필방제(畢方濟)의 『영언여작』, 탕약망(湯若望)의 『주제군정』 같은 책에 대해서 성옹(星翁: 이익)께서 논단해 놓은 것이 있으니, 당시 이러한 책들에 대해서 조정에서는 금지령이 없었고 선비들도 변론하여 배척함이 없었던

것을 징협할 수 있다.(1784년(정조 8, 갑진) 23세)¹⁰⁾

이벽의 부탁으로 1783년에 아버지 이동욱을 따라 연행에 참가했던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천주당에 들러 세례를 받고 각종 서적들과 성물들을 선물로 받아 귀국하면서, 그때부터 성균관 반촌을 중심으로 젊은 근기 남인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서교 공부가 시작되었다.

한참 뒤 1791년 권상연과 윤지충이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진산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기경은 1785년 전후 시기 성균관에 있던 젊은 남인 유생들 중심으로 서학책을 보는 일이 유행했고, 자신도 이승훈이 북경에서 사 온 서양책들을 읽었으며, 『천주실의』·『성세추요』 등의 책을 정약용에게 받아서 읽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명례방에서 젊은 남인 학자들의 단순한 서학서 연구회처럼 보였던 일이, 1785년 3월에 이승훈·이벽·권일신 등이 명례동의 중인 김범우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천주교 집회를 하는 모습을 추조(형조)에서 도박인 줄 알고 단속하다가 적발한 ‘추조적발사건’과,¹¹⁾ 1787년 10월 성균관 반촌에 있는 중인 김석태 집에서 이승훈과 정약용 등이 함께 천주교 교리를 연구한 일을 유생들이 성토했던 ‘반회(泮會)사건’¹²⁾ 등이 벌어지면서 점차 남인 사회에서도 민감한 문제로 확대되었다. 급기야 1788년 8월 서학과 서학서를 금지하는 명이 내리면서, 이들은 이후로 ‘공적 차원’에서는 더 이상 서학서를 읽지도, 소유하지도 않아야만 했다.

다산 또한 1788년 8월의 서학서를 금지하는 어명이 내리기 전까지는 서학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1789년 3월 대과 합격으로 관직에 진출한 이후에는 천주교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관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시기 서학 문제에 대해 훗날 「자찬묘지명」을 쓸 때도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 「자찬묘지명」(집중본)

갑진년(1784, 정조 8) 여름 이벽을 따라 두미협에서 배를 내려 비로소 서교(西敎)를 듣고 한 권의 서적을 보았다. 그러나 오로지 변려문을 공부하고 표(表)·전(箋)·조(詔)·제(制)를 익혀 수백 권을 수집하였다. 태학(성균관)의 월과와 순시(旬試)에 번번이 높은 성적으로 선발되면서 서적과 종이·붓을 상으로 하사받고, 근신(近臣)처럼 자주 사대(賜對)하여 등연(登筵)하니, 진실로 물외에 마음을 치달릴 겨를이 없었다.

정미년(1787) 이래 왕의 총애가 더욱 성대하였다. 자주 이기경의 강정(江亭)에 나아가 학업을 익혔다. 이기경 또한 서교를 즐겨 들어 손수 1권을 뽑아 적었는데, 그가 갈라선 것은 무신년(1788)부터였다.

■ 「자찬묘지명」(광중본)

성균관에 들어가 이벽을 따라 노닐면서 서교의 교리를 듣고 서교의 서적을 보았다. 정미년(1787) 이후 4~5년 동안 자못 마음을 기울였는데, 신해년(1791) 이래로 국가의

10) 정규영 지음·송재소 역주, 『다산의 한평생-사암선생연보』, 20쪽.
11) ‘추조적발사건’은 1785년 3월에 추조(秋曹, 형조)에서 천주교도들의 비밀 신앙집회를 적발한 사건이다. 이승훈이 이벽·권일신 등과 명례동의 중인 김범우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천주교 집회를 가져오다가 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순찰하던 포졸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때 교인들은 이승훈·정약전·약종·약용 삼형제, 권일신 부자 등 10여명으로 이벽의 설교를 듣다가 모두 체포되어 형조로 끌려갔다.
12) ‘반회사건’은 1787년 10월에 반촌에 있는 김석태의 집에 이승훈이 정약용 등과 함께 천주교 교리에 대하여 연구·토론한 일을 유생들이 성토했던 사건이다.

금령이 엄하여 마침내 생각을 아주 끊어버렸다. 을묘년(1795) 여름에 중국 소주 사람 주문모가 오니 국내가 흥흥하여졌다. 이에 금정도찰방으로 보임되어 나가 왕지(王旨)를 받아 서교에 젖은 지방의 호족을 달래어 중지시켰다.

이를 보면 다산 자신도 성균관에서 이벽을 따르며 서교의 서적을 보고 서교에 마음이 기울었지만, 1791년 진산사건으로 국가에 엄한 금령이 내린 이후로는 더 이상 천주교에 마음을 두지 않았음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 자신이 ‘사적 차원’에서 천주교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천주학 서적을 소유했는지 여부는 이후로 이 시기 반대파와 천주교 쪽 자료를 볼 때 논의의 여지가 많겠지만, 적어도 「묘지명」을 쓸 당시까지 다산에게 천주교는 대외적 차원에서는 천주교와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¹³⁾

그리고 이 점은 훗날 후손가에서 정리한 「연보」에서도 앞서 살핀 예문처럼 1784년 “당시 이러한 책들에 대해서 조정에서는 금지령이 없었고 선비들도 변론하여 배척함이 없었던 것을 징협할 수 있다.”라고 하며, 다산이 젊은 시절인 1784년 시점에서 천주교 서적에 몰두한 것이 공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다산이 여전히 주요 인물로 관여했던 1785년 추조적발사건이나 1787년 반촌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후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한참 시간이 흘렀음에도 무척 조심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1791년 진산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들 남인 신서파가 1784~87년 성균관에서 벌인 집회들에 대해서는, 한때 친하게 어울렸으나 이제는 가장 적으로 갈라선 공서파 홍낙안과 이기경을 통해 재조명되고 당시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까지 낱알이 고발되기에 이른다. 이로써 남인들의 천주교 문제는 공론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 과정에서 홍낙안이 조정에 고한 진술 중 출판사적으로 흥미로운 주장도 있다.

“신이 무신년(1788) 정대(廷對)에서 사학(邪學)을 크게 배척한 뒤에 서학을 하는 자들이 신을 원수처럼 질시하여 서로 교류가 끊어진 것이 마치 다른 나라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책을 간행하고 베낀 것을 어찌 자세히 알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들으니 이 학술이 다시 성해져서 활자로 간행됐다는 말이 역시 귀에 들어왔습니다. (渠輩之刊印與謄翻, 何以詳知, 而近聞此學復熾, 活字刊行之說, 亦有入耳.) 그러다가 달포 전에 전 승지 이수하가 호서에서 상경하여 신의 집에 머물렀는데, 서학에 말이 미치자 신에게 근심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우리 고향에는 이런 근심이 더욱 심하다. 베낀 책들을 집집마다 감추어 두었을 뿐 아니라 간간이 활자로 인쇄한 책도 있다 한다.(吾鄉, 則此患尤甚, 翻謄之書, 不特家家藏置, 間亦有活字印行之書) 내가 비록 목격하지 못하여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우나, 매우 성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나도 형세를 보아 상소를 올리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종전에 전해 들은 것은 비록 하천배나 아녀자들의 근거없는 말이었지만, 이것으로 참고해 보면 반드시 근거의 뿌리가 있는 것임을 알겠기때문에 대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범범하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13) 정민의 『파란-다산의 두 하늘, 청주와 정조』에서는 다산의 기록 이외에도 당시 반대파들과 천주교 기록 등 다양한 자료들을 망라하여 여러 관점에서 다산의 신앙과 배교의 문제를 살피고 있어 당시 상황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다산의 서적 관련 활동에 주목하고 있기에, 다루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다산의 묘지명이나 연보, 실록, 실물 자료 등에 한정하여 논한다.

여기에 이어서 이승훈이 아버지의 중국 사행에 따라가 수백 권의 사서(邪書)를 사 와서 반촌에 들어가 젊은이들을 속여 유혹하며 그 가르침을 널리 폈다고 하였다. 앞서 살핀 대로 1785년 즈음 이승훈이 중국 사행에서 세례를 받고 서학책들을 사와 성균관에서 이벽과 정약용, 정약전 등의 젊은 남인들과 함께 읽고 강론한 것은 사실이였다.

다만 1791년 진술에서 천주교 서적들이 ‘활자로 간행’되었다는 것은 흥낙안도 직접 확인한 일은 아니고 승지 이수하의 말을 빌려 이야기한 것으로, 이때 이수하가 말한 지역은 호서의 보령현이었다. 거기에 더해 진산군수 신사원이 예산을 맡았을 때, 예산의 촌백성이 갖고 있던 언문 번역서와 베낀 책들 중에는 『성교천선(聖敎淺說)]과 『만물진원(萬物眞源)]이 있었다고 하며, 당시 천주교가 촌백성들에게까지 성행함이 이와 같은 지경이라 책을 간행한 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하였다. 다만, 이수하는 이 흥낙안의 상소로 인하여 본인까지 신문을 받게 되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였고, 이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규명이 어렵다며 확대되지 않았다.¹⁴⁾

만약 ‘활자로 인쇄’했다고 하면, 당시 출판 환경을 볼 때 이런 책을 서울이건 지방이건 금속활자로 인쇄할 수는 없었으니 목활자 인쇄일 것이다. 이 시기에 호서 보령현과 예산의 천주교도들이 천주교 서적을 필사만이 아닌 활자로 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이상의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지만, 목활자 출판 자체는 지방 신도들 중 아전과 서리 계층이 있을 경우 지방의 출판 물력을 이용하여 가능한 일이지는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 시기 지방의 목활자 출판 물력의 가용 범위를 살피는 일을 통해 그 가능성을 좀더 타진해볼 수 있다.

혹은 서울의 천주교 지도부에서 책을 목활자로 출판하여 지방으로 내려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서울에서는 민간에서 목활자로 책을 출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에 천주교 지도부에 속하는 양반과 중인들이 협력하면 비밀리에 목활자 서적을 간행하는 일은 가능했다. 따라서 흥낙안의 주장을 그저 그가 고변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지어낸 말이 아닌, 실제 벌어진 사건으로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편으로 이 시기 다산은 성균관 유생으로서 정시 초시를 수석 합격하고, 반제에 뽑히는 일 등으로 임금에게 규장각에서 간행된 금속활자와 목판본 등의 귀한 책들을 하사받았다. 1785년에는 정시 초시에 수석 합격하여 『대전통편』 한 질을 상으로 받았고, 1787년에는 반제에 뽑혀 『팔자백선』과 『국조보감』, 백면지 100장을 받았으며, 마찬가지로 규장각에서 간행한 『병학통(兵學通, 1785)]도 승지를 통해 은밀히 임금에게 하사받았다. 국왕에게 “근일에 내각에서 인쇄한 서책을 네가 모두 얻었으니 내가 줄 책이 없구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조 시대 규장각의 화려한 출판문화의 정수들을 수중에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성균관 유생 시절 다산은 이승훈이 중국에서 구입하고 천주당의 신부들에게 선물로 받아 온 최신 서학서부터 규장각에서 방금 간행된 관찬서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문인들이 음으로 양으로 구할 수 있는 최선단의 책들을 가장 깊숙한 곳에서 누리고 있었다. 조선 문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서적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14) 『정조실록』 「1791년(정조 15) 11월 5일」 “이수하(李秀夏)는 말하기를 ‘저의 집은 호서에 있는데, 사대부가 서학을 한다는 소문은 못 들었고, 단지 염전의 일꾼과 농부들 중에 미혹된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간 뒤에 친지들과 말하는 가운데 단지 통탄스럽고 놀랍다는 뜻만을 말하였을 뿐, 책을 간행한 것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말도 한 일이 없습니다. 실로 무슨 이유로 이름이 문계 가운데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말한 것으로 따져 보면, 책을 간행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규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5. 규장각 각신 시절 관찬서(官撰書)와 중국서 경험

1789년 다산은 드디어 전시에 합격하여 7품관 희릉직장에 제수되었다가 바로 규장각의 초계문신에 임명되었다. 초계문신은 37세 이하의 연소한 관리를 재교육하기 위해 정조가 규장각 내에 만든 제도이다.

정조는 자신의 정치적 친위 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즉위하자마자 학문 기관 규장각을 설립하였다. 규장각 요직인 제학과 직제학은 홍문관 및 예문관의 당상관 중에 이조(吏曹)에서 후보자를 올리면 왕이 직접 임명하였다. 정조는 각신(閣臣)을 임용하면서 친위 세력을 구축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친위 세력을 양성하기 위해 1781년(정조 5)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였다.

1781년(정조 5) 처음 시작된 초계문신 선발은 정조가 사망하는 1800년(정조 24)까지 10회에 걸쳐 실시되었고 이때 선발된 인원은 총 138명이다. 초계문신 중 각신으로 진출한 사람은 18명이며, 정조 사후 초계문신을 거쳐 간 인재들이 19세기의 주요 인물로 등장했다.

초계문신 제도는 과거에 급제한 참서관·참하관 가운데 37세 이하 문신들을 선발해 40세가 될 때까지 재교육하는 것이다. 이때 규장각 각신들이 교육과 시험을 전담하였다. 초계문신의 교육 과정은 경전류를 강론하는 시강(試講)과 시강을 바탕으로 제술문을 짓는 시제(試製)로 나뉜다.

정조는 초계문신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장려책과 특권을 마련하였다. 또한 초계문신 교육에 대단한 열성을 기울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몸소 시험장에 나와 시험 과정을 살피고 급제자를 정하는 친시였다. 이때 초계문신들이 작성한 시무에 관한 계책을 담은 책문이 상당수에 이른다.

규장각 각신과 직원들의 업무는 어제·어필·보책·인장·고명·어진 등 왕실의 보물을 관리하는 일과 서고(書庫)의 동본(東本), 열고관과 개유와의 화본(華本, 중국본) 등 서적을 봉안하거나 열람 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책을 만들고 관리하는 등 출판사와 도서관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¹⁵⁾ 다양한 기록들에서 문장을 발췌하여 정리하는 회졸(會粹), 정조의 언행이나 기록을 정사(淨寫)하는 일, 왕이 편찬한 서적이거나 문장을 간인(刊印)하는 일, 규장각 소장 도서의 관리, 책의 편집, 어정서를 봉안하는 진서(進書), 책의 포쇄 등의 업무들이다. 이렇게 책을 만들고 봉안하고 관리하는 일이 주업무였던 만큼, 규장각 각신들은 규장각에 소장된 정조가 수집한 국내와 국외(중국) 도서를 열람하고 아패(牙牌)를 사용하여 대출할 수 있는 특권을 지녔다.

도서관과 출판사로서의 규장각의 기능을 좀더 자세히 살피면, 규장각은 도서관을 외규장각으로 두고 목판이나 활자로 서적을 인쇄하였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활자의 제작과 출판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에 갑인자 계열 임진자와 정유자, 중국의 인서체(印書體)를 따라 만든 생생사(목활자), 정리자 등 다양한 종류의 활자들을 제작해 어정서(御定書)를 비롯한 다양한 서책을 간행하였다.

또한 규장각이 관리하는 서고(서고·열고관·개유와)들에 소장된 서적들은 엄격한 규제 하에 왕과 각신들에게만 대출이 허용되었다. 이문원(摛文院)에 비치한 「내부서적청출패(內府書籍請出牌)」를 휴대한 각신에 한하여 빌려주되, 반드시 대출된 책의 서명과 대출 각신의 성명을 기록해 두었다. 장서 관리 또한 철저하여 책의 손상을 우려한 정기적 포쇄가 이루어

15) 이하 규장각 각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규장각지』(甲辰新編) 참조.

졌고, 도난이나 분실을 막기 위해 입직 관원을 배정하여 책을 지키도록 하였다.

규장각의 도서 수집과 출판 사업은 당시 ‘군사(君師)’를 자처했던 정조의 문치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조선 후기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새로 정교하게 구조된 금속활자와 중국에서 곧장 들어온 서적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서적 수입과 출판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 시기 규장각 각신으로 활약한 이들은 이러한 출판 자원을 최선단에서 활용하며 서적과 출판에 대한 경험과 안목을 높일 수 있었다. 다산 또한 그러한 규장각 서적 문화를 왕의 배려 속에도 누구보다 누린 인물이었다.

내가 포의(布衣)로 임금의 지우를 입어, 정종대왕의 총애와 가장(嘉獎)이 동렬(同列)에서도 특이하였다. 그래서 전후에 상사(賞賜)로 받은 서적·내구마(內廐馬)·문피(文皮: 호표(虎豹)의 가죽) 및 진귀하고 기이한 물건 등은 이루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다. 기밀(機密)에 참여하여 소회가 있으면 필찰(筆札)로 조진(條陳)하도록 하여 모두 즉석에서 들어주셨다. 항상 규장각·홍문관에 있으면서 서적을 교정하였는데 직무의 일로 독려하고 꾸짖지 않았다. 밤마다 진찬(珍饌)을 내려 배불리 먹여주고 무릇 내부(內府)의 비장된 전적을 각감(閣監)을 통하여 보기를 청하면 허락해 주었으니, 모두 특이한 예우이다.¹⁶⁾

다산은 이미 성균관 유생 시절 규장각에서 간행된 귀한 책들을 여러 번 받았다. 『대전통편』·『팔자백선』·『국조보감』·『병학통』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관직에 진출하면서 1792년에는 수원성 건설의 설계를 맡으면서 『고금도서집성』 중의 「기기도설」 부분을 하사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중가도설(起重架圖說)」을 지어 임금께 바치기도 하였다.

『고금도서집성』은 1728년(청 옹정 6)에 중국에서 출간된 무려 5,000책이 넘는 방대한 규모의 백과전서이다. 정조는 즉위 직후 1776년(정조 1) 중국에 파견한 사절단의 사신 서호수(徐浩修)에게 『사고전서』를 구입해 오라는 특명을 내렸는데, 그때 『사고전서』는 아직 인쇄가 끝나지도 않았고 수량도 4건에 불과하여 구입할 수 없었다. 이에 사절단은 『사고전서』의 원본에 해당하는 『고금도서집성』을 은자 2,150냥을 지불하고 구입해왔다.

이 책은 조선에 들어온 뒤 곧장 규장각에서 조선식으로 표지를 바꾸고 검서관들에게 목차를 베끼게 하였으며, 당시 명필인 조운형에게 표제를 다시 쓰게 하는 등 조선의 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고금도서집성』은 조선에 딱 하나였고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외부에 유출되는 일 없이, 오직 왕과 규장각 각신들만 볼 수 있는 책이었다. 그런데 다산에게 그중 일부를 내려준 것이다. 물론 『고금도서집성』은 조선에서 유일본인 만큼 원본을 내린 것은 아니고 잠깐 빌려주거나 필사해서 내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훗날 정조의 사위 홍현주는 1827년 익종에게 자신은 규장각 각신이 아니어서 『도서집성』을 평생 보지 못했다면서 빌려줄 것을 간청하여 겨우 책을 볼 수 있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¹⁷⁾ 정조의 사위조차 볼 수 없던 형편이었으니 일반 사대부들은 규장각에 소장된 책들을 보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산이 그 내용의 일부 받아

16) 정약용, <자찬묘지명(광중본)>, 『다산시문집』 16권 「묘지명」

17) 홍한주, 「지수넝필(智水拈筆)」 “지난 정해년(1827) 여름에 익종께서 대리하실 때 나의 재종형 해거공(海居公, 홍현주)이 왕의 사위로서 일찍이 사적으로 모시고 있었다. 공이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각신이 아니라 『도서집성』을 일생 동안 보지 못하였습니다. 원컨대 한번 빌려 주시기를 빕니다’ 하니, 익종이 웃으며 허락하고 액레(掖隸)에게 명하여 공의 집에 보내주었다. 공이 나를 불러 함께 열람했기 때문에 나 역시 한두 번 가서 그 대강을 보았다.”

참고할 수 있던 점은 정조가 얼마나 다산을 신뢰하고 있었는지와 다산이 규장각 서적에 있어 얼마나 큰 특혜를 누렸는지 잘 알 수 있다.

1797년(정조 21)에는 『춘추좌씨전』(10책)을 『주자강목』의 예와 같이 편찬하였는데, 이 책이 훗날 출판되자 그때는 곡산부사로 곡산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그 책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당시 다산은 규장각에서 나오는 최고 물력으로 만든 화려한 판본을 그 누구보다 크게 누리고 있었다.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하던 해, 정조는 죽기 직전 그에게 규영부로 다시 불러 교서의 업무를 맡길 것을 승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이어 내각의 서리를 통해 『한서전(한서열전전)』 10질을 가져와 5질은 집안의 가보로 삼고, 5질을 제목을 써서 내각에 들여보내라는 명을 내린다. 그것이 다산이 정조에게 받은 마지막 책이 되었고, 다산이 규장각의 풍요로운 서책을 누린 마지막이 되었다.

6월 28일에 정조가 승하한 뒤, 다산은 그 해에 『문헌비고간오』를 완성하고는 “내가 옛날에 교리 홍복원으로부터 『문헌비고』를 빌려 보았다가 「간오(刊誤) 1권을 만들었다. 임금님께 올려 보시도록 하려 하였는데, 마침 승하하셨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였으니, 아! 한스럽도다.”라며 정조와 오랜 기간 책으로 이어진 인연을 마무리하게 된다.

6. 청년 다산이 경험한 서책들의 형태적 특징

분류	서명	간행연도	권책	형태	판형 (행자수)	반곽(cm) 전체	판심 어미
고본	상서지원록 尙書知遠錄	1811 저술	7권3책	필사(稿本)	有界(寫格) 10행22자	19.0×13.0 25.0×16.0	黑魚尾
중국본	칠극 七克	1798 ¹⁸⁾	7권4책	목판	9행21자	19.0×13.0 27.0×15.2	黑魚尾
중국본	기하원본 幾何原本						
중국본	수리정운 數理精蘊						
중국본	직방외기 職方外紀						
중국본	영언여작 靈言蠶勺						
중국본	주제군징 主制羣徵						
중국본	천주실의 天主實義						
중국본	성세주요 盛世芻蕘	1796	4권2책	목판		× 23.0	
중국본	진도자증 眞道自證	1721	4권1책	목판	8행24자	20.0×12.8 25.4×16.6	上下向黑魚尾
중국본	고금도서집성 古今圖書集成	1777 수 입	5022책	금속활자 (聚珍本)		× 27.5×17.7	上下向白魚尾
조선본	당송팔자백선 唐宋八子百選	1781	6권3책	금속활자 (정유자)	10행18자	25.8×17.5 38.4×24.8	上二葉花紋魚尾
조선본	국조보감 國朝寶鑑	1782	68권22책	목판	10행18자	24.7×16.9 34.0×22.5	上二葉花紋魚尾

조선본	대전통편 大典通編	1784	6권5책	목판	10행20자	24.3×17.2 37.0×23.6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조선본	병학통 兵學通	1785	2권1책	목판	10행18자	24.1×16.7 34.0×22.0	上二葉花紋魚尾
조선본	사기영선 史記英選	1796	6권3책	목판	10행18자	24.5×17.0 34.0×22.8	上二葉花紋魚尾
조선본	한서열전선 漢書列傳選	1796	1책	금속활자 (정유자)	10행18자	24.7×17.0 34.5×22.5	大黑口 上花紋魚尾
조선본	춘추좌씨전 春秋左氏傳	1799	10책	春秋綱字 목판	5행12자 10행18자	24.0×16.9 34.7×23.2	上下向黑魚尾

이상에서 살핀 성균관 유생과 규장각 각신 시절 경험한 주요 서적들을 보면 크게 유생 시절 남인 친구들과 함께 중국에서 수입한 서학서들, 그리고 규장각 각신이 된 이후 정조의 편찬 사업에 참여하면서 규장각에서 간행된 관찬서 및 규장각 소장 중국서들로 정리된다.

이 시기 규장각에서 간행된 서적들은 중국 서적의 여러 가지 형태적 양식을 모방한 것이 중요한 특징인데, 한 예로 봉면지 혹은 편제면이라 부르는 책의 속표지에 해당하는 면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¹⁹⁾

편제면은 상하좌우의 인찰선 안에 중앙 칸을 좌우보다 두 배 크기로 해 세 줄을 나누어 글자를 적은 형태로, 중앙에는 해서나 예서의 가장 큰 글자로 서명을 쓰고, 우측에는 작은 글씨로 편찬 관서와 시기 등 편찬 정보를 적고, 좌측에는 간행 관서와 방법 등 간행 정보를 수록하였다. 위의 도표에 나타나는 규장각 서적 역시 『대전통편』·『병학통』·『당송팔자백선』 등 대부분의 책에 이러한 편제면을 갖고 있다. 편제면 양식은 정조 연간 간행된 서책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중국의 서책 형태에서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이다.

정조는 즉위 후 규장각을 건립하면서 중국 서책만을 수장하기 위한 건물인 열고관(閣古觀)과 개유와(皆有窩)를 세우고 중국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중국의 활자를 모방하여 생생자(목활자), 정리자(금속활자)를 만드는 등 중국 서책의 형태를 참고하여 조선의 서책을 꾸몄다. 그러한 만큼 그 시절 규장각에서 일한 다산은 중국 서책을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책을 만들 때도 그 형태를 참고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다산 학단에서 제작한 고본 자료들 중에는 필사본임에도 이러한 편제면을 넣고 있는 자료들이 확인된다. 성균관 유생 시절 다산이 정조에게 받은 『대전통편』(1784)에서는 편제면에 이어 왕의 글씨인 어필(御筆)을 그 글씨 그대로 목판으로 새겨 제일 앞에 붙이고 있다. 훗날 다산이 강진 유배지에서 지은 고본 『시경강의』를 보면, 제일 앞에 1791년 처음 정조에게 『시경의』 800조를 올리고 칭찬과 함께 내려온 비지(批旨) “닐리 백가를 인용하여 문장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무궁하니, 참으로 평소 학문이 축적되어 해박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와 같이 훌륭하게 할 수 있겠는가(泛引百家, 其出無窮, 苟非素蘊之淹博, 安能如是, 不負予顧問之意深用嘉尙/辛亥仲冬)라는 내용의 글을, 마치 『대전통편』에서 어필을 서두에 따로 새겨 실은 것처럼 화려하고 큰 글씨로 쓰고 있다. 다산의 『시경강의』 고본은 현재 미국 버클리대 아사미본과 개인소장본 두 종류가 전하는데, 두 책 모두에 이런 식으로 임금의 평이 서두에 화려하게 적혀 있다.

18) 현재 다산이 1785년 전후한 시기에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학서들의 간본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본 발표에서는 우선 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기의 간본으로 정리하였다. 18세기 후반 목판에 나온 자료이기에 형태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보다 정확한 자료들은 추후 보완하기로 한다.

19) 정조 시대 규장각 간행 서적의 편제면에 대해서는 조계영, 『책의 탄생』, 글항아리, 2022, 55~63쪽.

또한 다산의 차남 정학유가 지은 『시명다식』에서는 편제면을 확인할 수 있다. 버클리 아사미본이 집안에서 만든 고본인데 여기에는 붉게 물들인 종이로 만든 편제면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정학연이 쓴 서문을 큰 글씨의 예서체로 화려하게 필사하고 있다. 이 또한 중국 서적을 따라한 것으로 다산 집안 사람들에게 중국서의 형태적 특징이 익숙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음으로 위의 표에서 주목할 점은 책의 반곽과 전체 크기에 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만든 고본들은 대략 「반곽: 19.0×13.0(cm) / 전체: 25.0×16.0」의 크기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당시 규장각에서 간행된 관찬본은 「반곽: 24.5×17.0 / 전체: 34.0×22.5」 안팎의 훨씬 큰 사이즈를 보인다. 조선본이 중국본보다 사이즈가 큰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규장각 관찬본은 일반적인 조선본보다 좀더 큰 사이즈를 보인다. 한편으로 당시 다산이 보았을 서학서를 비롯한 규장각의 중국서는 대략 「반곽: 20.0×12.8 / 전체: 25.4×16.6」 혹은 중국 관찬본 『고금도서집성』은 이보다 약간 큰 「전체: 27.5×17.7」 크기이다.

이를 보면 다산의 고본 자료들은 중국본의 크기와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장정도 중국본의 ‘4침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도표의 규장각 편찬서들은 한 면에 ‘10행 18자’인데, 다산의 고본은 그보다 크기가 작음에도 ‘10행 22자’가 들어가 더 많은 글자를 넣고 있다. 작은 크기의 서책이지만 작은 글씨로 써서 많은 글자가 들어가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이로써 종이를 아끼고 휴대성을 강화할 수 있다. 표지 역시 조선책의 일반적 표지인 두꺼운 장지에 능화문을 넣은 것이 아닌, 찻물(혹은 감물)로 염색한 짙은 갈색 민무늬로 통일하여 적은 비용을 들였지만 책을 보호하고 충해(蟲害)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잃지 않았다.

누차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서적 형태는 당시 조선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척박한 유배 환경이지만 다산은 책을 만들 때, 필요한 경우 화려한 장식을 더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소의 종이로 최대의 정보를 담으며, 책의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는 18세기 후반 젊은 시절 그 누구보다 최선단에서 조선의 서책문화를 온몸으로 향유했던 다산이기에 만들어 낼 수 있던 책으로, 그의 유배지의 저술 활동의 바탕에는 이렇게 책의 형태에서도 그의 청장년기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다산이 경험한 서적문화에 대한 토론문

울산대 인문과학 연구소
이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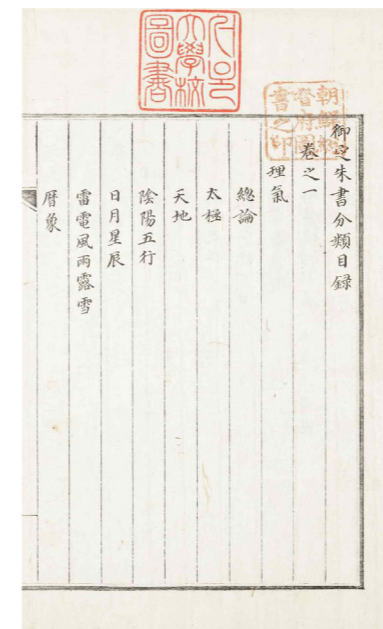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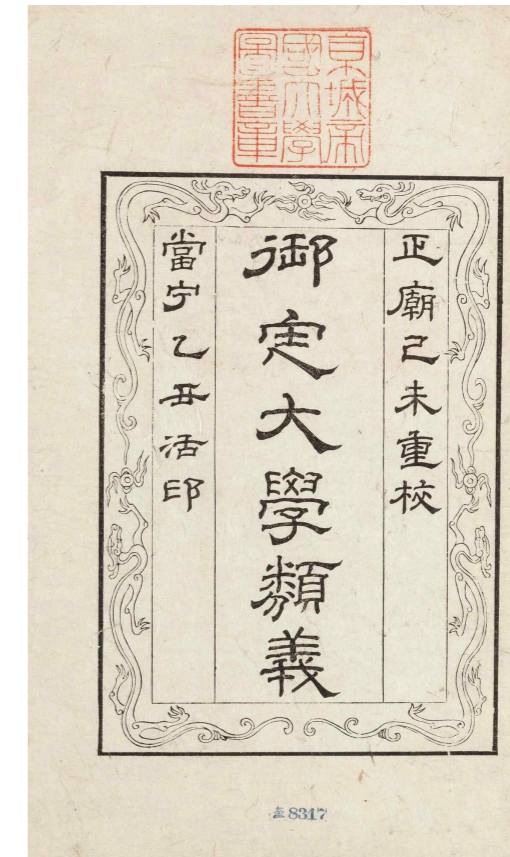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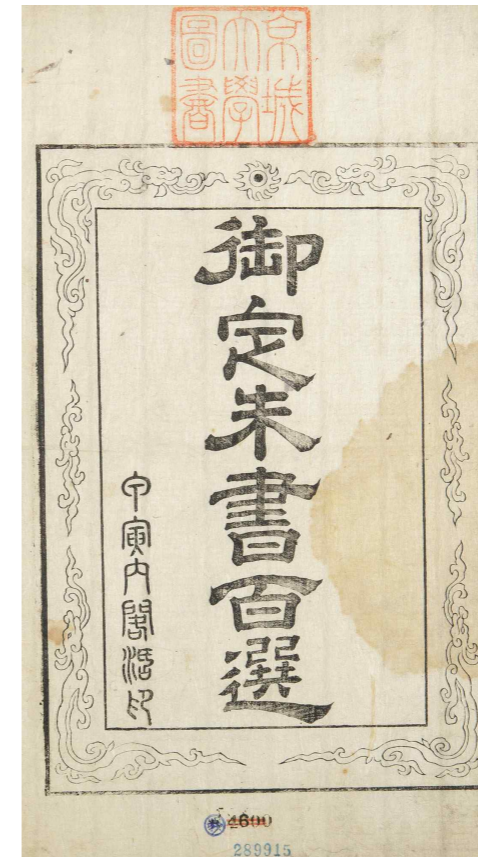
우선 이런 자리에 토론자로 불러주신 다산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남인 연구자라 노경희 선생님의 토론을 맡았는데, 확실히 서지학은 생소한 분야라서 처음 발표문을 받고 어떻게 토론문을 작성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선생님은 다산의 서적 문화를 크게 유생 시절 중국에서 수입한 서학서들, 정조의 편찬 사업에 참여하면서 규장각에서 간행된 관찬서 및 규장각 소장 중국서들로 정리되며, 중국 서책의 형태적 양식-속표지-을 모방하였다. 정약용의 고본은 『시명다식』의 경우 표제면이 있고 중국본의 '4침본' 양식을 보여주고 최소의 종이로 최대의 정보를 담기 위해 '10행 22자'를 넣었으며 충해(蟲害)와 오염을 막을 수 있게 찻물(혹은 감물)로 염색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정조는 표제문이라는 장식을 차용하여 권위를 드러냈고, 정약용은 최대의 정보를 담기 위해 실용적 방식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자면, 정조가 중국본의 영향으로 속표지를 넣었다고 하셨는데, 세손 시절에 지은 『자양자회영』이나 『주자회선』에는 표제문이 없었던 반면 『주서백선』에는 넣은 점으로 보면, 대체로 즉위 이후에 표제문을 달았던 듯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괄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어정대학유의』에는 들어갔지만 『어정주서분류』는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늬도 대체로 용무늬이기는 하나 시대별로 살짝씩 다른 듯합니다.

또 하나는 종이 크기에 대한 겁니다. 요즘도 인쇄할 때 A4, B3 등의 규격이 있는데, 조선 시대에도 종이를 만들면서 이런 규격들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의 고본 책자 크기와 비슷한 사이즈가 원래 있었는지 아니면 핸드메이드로 따로 만들었는지, 그와 비슷한 사이즈로는 어떤 용도로 썼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과문해서 조선 문집 중에 이런 표제문이나 4침안을 차용한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약용 외에도 이렇게 청대 제본 양식을 차용한 인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조 연간 다산의 관직 생활과 남인 문단에 관한 기억

백승호(국민대)

1. 서론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청년 다산”이다. 우리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위대한 업적에 경도되어 그도 한때 청년 시기가 있었음을 잊어버리기 쉽다. 1762년 출생한 그는 1752년생인 정조보다 10년 연하였는데, 정조 즉위년인 1776년에 15세였고, 정조가 서거한 1800년에 39세였다. 22세 때인 1783년 소과에 합격하였고 28세 때인 1789년 문과에 합격하였다. 본 발표는 후대의 시각으로 위대한 학자 다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대 시점에서 청년 관료 다산의 측면에 주목하여 그가 선배, 동료 관료들을 기억하고 기록을 남겨 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다산은 18세기 남인의 일원이었고 그가 동당의 문인들을 기록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그의 위대한 사상과 문학이 동시대 문인들과의 교류와 연대 속에서 형성된 바탕을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의 시각으로 본 남인 문단의 기억은 내부자의 입장에서 남인 문단 내부의 인물 관계와 정치 국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기록의 시점과 그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그 기록을 읽어내야 할 것이다.

정조 연간 남인은 체제공을 중심으로 탕평 정국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체제공은 청남과 탁남의 후예들을 아우르며 기무여열이라는 남인에게 쓰여진 정치적 부담을 극복하고 동당을 결속하였다. 체제공은 목만중(睦萬中), 정범조(丁範祖), 정재원(丁載遠), 한광전(韓光傳), 유항주(兪恒柱), 채홍리(蔡弘履), 이동우(李東遇), 신광하(申光河), 심박(沈璞), 윤필병(尹弼秉), 이동욱(李東郁), 이정운(李鼎運) 등과 시사를 결성하였다.

정조 연간 다산은 신진 관료로서 선배 문인들에 관한 기록을 남겨 두었다. 동당의 핵심 문인으로서 다산의 글을 보면 개별 남인 문인의 인물상과 문인 간 교류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 기록들이 훗날의 정치적 고난을 겪으며 수정되고 정리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정조 연간 남인을 연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상을 정립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만하다. 그리하여 본 발표는 먼저 정조 연간 남인 문단의 구도 속에서 다산의 위상과 환력을 검토한 뒤, 다산이 남긴 여러 기록을 통해 남인 문단에 대한 그의 기억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정조 연간 남인 문단의 구도 속에서 다산의 위상과 관직 생활

1776년 정조가 즉위하면서 체제공은 규장각 제학, 각 조의 판서를 역임하였고, 정범조, 이헌경 등 다른 남인들도 조정에 나아갔다. 그러나 체제공이 서명선과 갈등을 겪으며 홍국영

과 화응한 역적이라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채제공은 1780년대의 대부분을 재야에서 보냈다. 그는 은거하면서도 문학 활동을 통해 남인을 결속했는데 1786년 시점에서 온 조정이 그를 역적으로 몰았고 남인 내부에서도 채제공과 관계를 부정하며 논핵하는 상소를 올리는 인물이 등장했다. 이른바 채당(蔡黨)과 홍당(洪黨)이 분기하는 시점이었는데, 홍수보(洪秀輔) 부자, 강박의 손자 강세륜(姜世綸), 채제공의 문하생 이종섭(李宗燮), 신광수의 아들 신우상(申禹相) 등이 채제공을 논핵하는 차자에 이름을 올렸다. 1788년 채제공이 우의정으로 조정에 복귀한 이후에도 그는 1786년의 시점에서 자신을 배반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산이 남인의 다양한 분파와 인척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다. 신서파 이승훈과도 가까운 인척 관계이지만, 홍당의 주요 인물과도 인척 관계였고 채제공의 핵심 문인이자 서학을 배척한 윤필병과도 인척 관계에 있었다. 장인인 홍화보(洪和輔)가 홍수보(洪秀輔)와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다산은 홍당의 주요 인물들과도 교유가 있었고, 조부 정지해가 홍길보(洪吉輔)의 사위로 윤필병, 권이강과 동서지간이었다.¹⁾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정약용의 부친 정재원과 이승훈의 부친 이동욱이 채제공·목만중·이정운·채홍리 등과 긴밀한 교류를 나눈 18세기 남인 문단의 핵심적인 문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정조 연간 채제공을 중심으로 본 남인 관료 문인의 구도는 구성원의 연배와 관계를 고려할 때 크게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채제공의 동년배 또는 후배로 볼 수 있는 남인 원로 문인들이다. 대략 1720년대, 1730년대 출생한 문인으로 채제공, 정범조, 목만중, 오대익, 윤필병, 정재원, 유항주, 채홍리, 이동욱 등이 해당한다. 둘째, 1740년대, 1750년대 출생한 문인으로 채제공의 초기 문인이자 정조 연간 중진 관료가 된 문인들이다. 이정운, 이익운, 우경모, 우석모, 이유경, 이주명, 유하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1760년대 출생한 문인으로 채제공의 후기 문인이자 정조 연간 다산 같은 신진 문인들이다. 다산, 채홍원, 정홍경, 윤영희, 한치응 등이 해당한다.

이처럼 다산이 남긴 정조 연간 남인 문인에 관한 기록은 다산의 위대함에 경도된 후대인의 시각이 아니라 당대 남인 내부에서 그가 점한 위치를 고려해서 독해할 필요가 있다.²⁾ 예를 들면 다산이 소과 합격한 후 초천으로 내려가 수종사를 유람한 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계묘년(1783) 봄에 내가 경의(經義)로 진사(進士)가 되어 초천(苕川)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길에는 초라해서는 안 된다. **두루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가거라.**”

하셨다. 이리하여 좌랑(佐郎) 목만중·승지(承旨) 오대익·장령(掌令) 윤필병·교리(校理) 이정운 등이 모두 와서 함께 배를 탔고(중략)

1) 윤필병과 정약용의 관계에 관해서는 윤재환, 『無號菴 尹弼秉과 『無號菴集』 檢討 - 尹弼秉과 『無號菴集』의 소개를 중심으로 -, 『Journal of Korean Culture』72,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2026에서 지적한 바 있다.

2) 채제공을 중심으로 정조 연간 남인을 세 부류로 구분하는 시각은 백승호, 『正祖 年間 南人 文壇과 知識人의 結束』, 『한국문화』8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참조.

현재 널리 통용되는 「유수종사기」 번역문을 보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가거라”고 한 부친의 말씀과 “이리하여”라는 부사 때문에 목만중 이하 여러 문인이 다산의 “친구들”로 잘못 보일 수 있다. 구두도 중간에 끊지 않고 ‘함께 가거라’까지 한번에 끊었다. 1727년생 목만중과 1762년생 다산은 35년의 연배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이 친구일 수는 없다. 연배를 고려하면 부친 정재원이 친우 목만중 등을 불러서 ‘함께 갈 것이다’, ‘함께 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문장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다산이 1789년에 문과에 합격한 이후 그가 정조 연간 역임했던 주요 관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

- 1783년 소과 합격
- 1789년 대과 합격, 초계문신(抄啟文臣)
- 1790년 사헌부 지평, 사간원 정언
- 1791년 사간원 정언
- 1792년 홍문관 수찬
- 1794년 성균관 직강, 홍문관 교리·부수찬
- 1795년 동부승지, 병조 참의, 금정 찰방
- 1796년 병조참지
- 1797년 동부승지, 곡산부사
- 1799년 병조참지, 형조참의

위 시기 다산의 초계문신으로서 정조의 문치를 구현하는 한 신하로 국왕을 보필하였고, 구체적인 관직에 따른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788년 채제공이 우의정으로 등용된 이후로 남인의 정계 진출이 활발해 졌는데, 다산은 1789년 문과에 합격한 이후 잠시 희릉(禧陵) 직장이 되었다가 한동안 승정원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790년 2월에는 예문관 검열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아 3월 충청도 해미에 잠시 유배되었고 동년 7월 사간원 정언, 9월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다. 1791년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진주목사로 부임한 부친을 뵈고 오느라 잠시 의금부에 갇혔다.⁴⁾ 5월에 사간원 정원이 되었고 9월에 이른바 진산사건이 발생하였다. 한동안 실직을 받지 못하고 부사과(副司果)로서 있었고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어도 나가지 않았다. 1792년에는 홍문관 수찬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부친상을 당해 삼년 상을 치렀다. 1794년 상을 마치고 7월에 성균관 직강으로 잠시 나아갔고, 10월 말에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다. 11월에는 암행어사로 경기도 적성, 연천, 삭녕 등지를 다녀왔는데, 이때 훗날 재상이 되어 그의 해배를 적극 반대하는 서용보를 논핵하였다. 1795년 1월에는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되었다가 2월에는 병조참의에 제수되었다. 정조의 을묘 원행을 시종하였고, 3월에 실직을 잃고 다시 부사직이 되었다. 7월에 박장설의 상소가 있어 금정 찰방으로 나아간다. 그는 이 시기 천주교 신자 김복성, 이존창을 잡았고⁵⁾ 서암강학회에

3) 이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산의 전기적 정보는 송재소, 『다산시 연구』, 창작사, 1986; 조성을,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 지식산업사, 2016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다.

4) 1791년 4월에 장인 홍화보의 상을 당하였다.

5) 정민, 『다산의 일기장』, 김영사, 2024, 114-123; 189-196면에 천주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신분이 노

참석하였다. 1796년에는 11월 중순에 규장각에서 『사기영선』 교서작업을 하였고, 11월 하순에 병조참지에 제수되었다. 1797년 6월에 동부승지에 제수되었으나 이내 변방소를 올려 체직되었고 이 상소가 논란을 초래하자, 윤6월에 곡산부사에 제수되었다. 1799년 4월 하순에 조정의 부름을 받아 내직으로 옮겼는데, 병조참지, 동부승지 등에 잠시 제수되었고, 5월에 형조참의로 나아갔다가 6월에 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3. 다산의 기록으로 본 정조 연간 남인 문단

다산의 문집에는 「樊翁遺事」라 하여 18세기 남인 문단의 종주 역할을 했던 채제공에 관한 기록이 다수 있다. 다음과 같이 채제공에게 떡을 매우 좋아하는 기호가 있었음을 알게 해 주는 기록도 있다.

<文肅啗餅> 문숙공이 떡을 먹다.

문숙공 채제공은 떡을 좋아하여 떡을 보면 반드시 빙그레 웃으며 “떡이 참 좋구나!”라고 하였다. 주상께서 일찍이 희정당에 임어하시고 문숙공이 시험관으로 입시하였는데, 주상께서 한상을 내리셨다. 옛 관례에는 대신은 별도의 그릇에 덜어내고 온전한 상은 여러 재상들에게 돌린다고 하였는데, 문숙공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스스로 떡을 절반이나 베어 먹은 뒤에 여러 신하들에게 권하니, 판서 정창순이 발끈 화를 내며 말하였다. “제가 비록 노둔하나 대신이 남긴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주상이 크게 웃으며 “경상들이 한 자리에 있으면서 한 그릇 떡을 두고 다투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문숙공도 사과하였다. 이윽고 주상께서 안으로 들어가시고 문숙공도 잠시 물러나 사알방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주성도 다시 나와 물었다. “경은 무탈한가?” 문숙공이 말하였다. “성상의 하교가 무슨 말씀이신지요?”, 주상이 말하였다. “노인이 떡을 많이 먹었으니, 배탈이 나지는 않았는가?” 문숙공이 아뢰었다. “신이 잠시 사알방으로 물러났었는데 신의 집에서 신이 실컷 먹은 줄도 모르고 또 떡 한 그릇을 보내왔기에 신이 또 절반 넘게 먹었습니다.” 주상이 말하였다. “차 마실 텐가?” 문숙공이 말했다. “신은 떡을 먹으면 체기가 저절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주상이 웃으며 말하였다. “떡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해야 하겠군.” 6)

한편으로는 채제공이 시회를 열면서 탁남의 후예들을 포용하여 남인을 결속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蔡、柳世嫌> 채씨, 유씨 가문의 세힘

대장 유혁연은 경신옥사에서 죽었는데, 그 조카 유성삼이 회맹연에 참석하였다. 그 후에 좌윤 채

출된 김복성을 잡아들이고, 이존창을 검거하는 상황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6) “蔡文肅【濟恭】性喜餅，遇餅必莞爾而笑曰：“美哉餅也。”上嘗御熙政堂，文肅以考官入侍，上賜饌一桌。故事，大臣用別器除出，以全桌與諸宰。文肅不然，自啗餅過半，而後勸諸臣。鄭判書昌順然起奏曰：“臣雖驚，不食大臣之餘矣。”上大笑着曰：“卿相一堂，顧爭一器餅耶？”文肅亦謝之。俄而上入內，文肅少退，出司謁房，既還入，上亦還出，問曰：“卿無恙否？”文肅曰：“聖教何謂也？”上曰：“老人喫餅太多，得無腹疾否？”文肅曰：“臣少退司謁房，臣家不知臣飽德，又送一器餅，故臣又啗之過半矣。”上曰：“欲吃茶否？”文肅曰：“臣喫餅，滯氣自降，故素不吃茶矣。”上笑着曰：“即於餅，當以別論矣。”정약용, 위의 책, 143쪽.

성윤이 그 패륜을 논핵하였으므로, 마침내 서로 혐의 있는 집안이 되었다. 문숙공이 풍단 시회를 열었는데, 도정 유영진이 그 아들 유하원으로 하여금 가서 배우게 하였다. 문숙공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으나 문숙공의 부친 지사공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는 사람을 막지 말고 또 저쪽에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감춰두면 되는 것이다.” 마침내 입문을 허락하여 문인이 되었다.7)

이 인용문은 유하원이 채제공의 문하생이 된 계기를 기록하였다. 사실은 집안 간 혐의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채제공의 부친 채응일이 마음을 돌리기를 권유했다는 내용이다. 채제공은 시회를 통해 청남과 탁남을 결속하였는데, 유혁연은 숙종 연간 남인이 집권했을 때 훈련대장 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부친이 그에게 유하원을 받아들여도록 권하였고 마침내 그가 풍단시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후일 유하원은 중요한 문인이 되었다. 채제공은 시회의 일원이 된 그에게 <楓壇使柳河源拈唐人韻>이라는 작품을 주어 기대를 표하였다. 남인의 결속과 재건을 도모했던 풍단 시회의 이면을 잘 드러내 주었다. 또한 다음 인용 구절처럼 시회의 분위기를 잘 전해주는 기록도 있다.

용담현령 심규는 젊어서는 글을 짓는데 부지런히 애써 힘쓰지 않았으나, 시를 지을 때에는 큰 소리를 잘 하였다. 일찍이 번암 선생의 시회에 오기로 약속해 놓고 오지 않아 제공들이 안타까워했다. 그러자 번암이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어렵지 않지. 여정의 시는 내가 대신 짓겠노라.”

그리고 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大雪長安滿 큰 눈이 서울에 가득 내리고
疎鍾美洞來 성근 종소리 미동에 들리네.

좌중이 모두 포복절도했다. 이 구절이 심규의 시와 매우 흡사하여 그 정수를 얻었기 때문이다.8)

2장의 정조 연간 남인 문단의 구도로 돌아가, 남인 원로에 해당하는 목만중과 채홍리에 관한 다산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만중에 관해서는 다산이 「정현묘지명」에서 그를 ‘악인’으로 규정한 다음 부분이 유명하다.

5년 뒤인 기미년 봄에 신 제공이 죽고 다음해 6월에 상이 승하하셨다. 그 다음해 신유년 봄에 화(禍)가 일어나서 신 가환은 옥사(獄死)하고 신 기양은 단천(端川)으로 귀양가고 나는 장기(長鬢)로 귀양갔다. 이해 거울에 악인(惡人) 목만중(睦萬中)·홍낙안(洪樂安)·이기경(李基慶) 등이 용사(用事)하여 신 제공의 관작을 추탈하고 다시 신 가환의 죄를 논하여 가율(加律)을 청하고 또 나를 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하였으나, 여러 대신이 구해준 덕에 강진(康津)으로 귀양갔으니 이것이 그 동안에 있었던 영고 성쇠의 대략이다.9)

7) “柳大將赫然死於庚申之獄，而其從子星三參於會盟宴。其後蔡左尹【成胤】劾其悖倫，遂爲嫌家。文肅之爲楓壇詩會也，柳都正【榮鎮】令其子【河源】往學，文肅欲弗受，蔡知事【文肅之父】曰：“來者弗拒，且可引在彼，隱之可也。”遂許及門，得爲門人。【都正，星三之孫。文肅，左尹之孫】정약용, 「與猶堂全書補遺○餽餽錄」, 『정본 여유당전서』37, 139쪽.

8) “沈龍潭達，少不勤苦績文，然爲詩好大言。嘗於樊翁詩席，有約不赴，諸公恨之。翁曰：“是不難。汝漸之詩，吾代述之。”其一句曰：“大雪長安滿，疎鍾美洞來。”座客皆絕倒。蓋此句酷似沈詩，得其神髓。”정약용, 위의 책, 148쪽.

그렇지만 다산 문집에 수록된 「유수종사기」, 「화앵첩발」 등 초기작에서는 목만중과의 교유가 확인된다.

<陪家君出豆毛浦 陸佐郎【萬中】亦至 同赴菖川 廣州尹爲送管絃一部 舟中次陸丈韻>
<부친을 모시고 두모포로 나가니 좌랑 목만중도 있어, 함께 소내로 향했다. 광주부윤이 악대를 보내왔다. 배 안에서 목어르신 시운에 차운하다.>

湖上移舟晚 석양 무렵 호수에 배를 띄우니
春天正蔚藍 새파란 봄 하늘이 쪽빛 같구나
徑過垂柳岸 능수버들 기슭을 곧장 지나쳐
閒汎落花潭 꽃잎 진 못물에서 한가히 등실
絲竹欣初起 처음 풍악 울림이 즐겁다마다
櫻桃憶舊舍 앵도를 머금었다던 일 생각나네.
【古進士有櫻桃會】 옛날에 과거 합격자에게 앵도회가 있었다.
幸隨王謝後 왕씨와 사씨를 따라
揮麈學清談 주미 손에 쥐고 청담을 배우리.

인용한 작품처럼 목만중은 정재원의 절친한 교유가 있었다. 「與丁器伯韓景善一之同舟至奉恩寺」; 「狎鷗亭」; 「鶴灘」; 「廣津」; 「夢烏亭丘墟」; 「曳船」; 「宿唐汀」; 「未到斗江十里, 彝仲諸人小舟來迎」 등 여러 작품에서 소내를 찾아갔던 상황을 알 수 있다. 만년에 절친한 벗을 그리워 하며 지은 <존몰절구>에도¹⁰⁾ “살아 있다면 자세히 마음을 나눌” 친구로 다산의 부친을 꼽았다. 다산은 목만중과 교유가 있었다라고 보다는 부친의 교유 현장에 아들로서 배석한 셈이다.

목만중이 채제공과 오랫동안 뜻을 함께 하여 남인 문단의 원로로 활동해 왔다. 때로는 1786년 위기 때 마음이 흔들리는 이익운을 단속하고, 이정운과 함께 채제공을 신원하는 상소문을 기초하기도 하였다.¹¹⁾ 그러나 이후 채제공 문하생들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환로 진출이 활발해 지자 그가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하생들이 실권 있는 요직에 나아가고, 본인은 천주교에 관한 완고한 입장 때문에 후배들에게 경원당하기도 했다.¹²⁾

채당과 흥당에 관한 논의에 중심에 있는 채홍리에 관한 작품도 다산이 남기고 있다. 윤필병, 이정운, 채홍리 세 노인에 관한 노래인 <대릉삼로가>가 그것이다. 그 일부를 인용한다.

岐川笑謔權徜徉 채 판서는 농담 잘 하고 소요하기 좋아하는데
豐顛微皺鬚眉蒼 도톰한 뺨과 잔주름에 수염과 눈썹 까맣구나.

9) 粵五年己未春, 臣濟恭卒, 厥明年夏六月, 上薨. 厥明年辛酉春, 禍作, 臣家煥瘦于獄以死, 臣基讓謫端川, 臣鏞謫鬻. 是年冬, 惡人睦萬中、□□□、洪樂安、李基慶等用事, 追奪臣濟恭爵, 復議臣家煥罪請加律, 又逮致臣鏞于獄, 將殺之, 賴諸大臣救, 徙謫于康津, 此否泰消長之大略也. 정약용, 「貞軒墓誌銘」, 『정분 여유당 전서』3, 203-224쪽.

10) 목만중, <讀杜工部存沒絕句傲體述感>, 『餘窩集』권7, 한국문집총간 속90, 122쪽.

11) 백승호, 앞의 논문.

12) 목만중이 백사라는 시사를 만들 때 십 년 이상 차이나는 후배들에게 망년지교를 허했다.

書法離奇潑墨光 서법이 기이하여 먹물이 번져 빛이 나고
烟雲草樹交滄涼 안개 구름, 풀과 나무 얽혀 서늘한 기운 이네.

(중략)

樊巖相公國之著 번암 상공은 나라의 원로로
雅度清鑑眞吾師 고아한 품모 맑은 감식은 실로 우리의 스승
(중략)
逍遙翰墨復何求 문필 속에 소요하거늘 다시 무얼 바라라
吁嗟三老宜早休 아아, 세 노인이시여 벼슬 일찍 그만두소서.
鵜鷺終日坐水頭 사다새는 종일 물가에서 먹이 찾지만
鷺鷥不爲稻梁謀 봉황은 곡식 궁리 따위 전혀 안 한다오.

이 작품은 1795년 작품이다. 「정현묘지명」에서 번암이 정치적인 시련을 입어 도성 밖에 살고 있을 때, 목만중과 채홍리는 채제공을 배반했고, 정범조, 유향주, 윤필병, 이가환 등이 지조를 지켰다고 했는데, 작품 창작 시기를 고려하면 그 진의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향주를 기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채홍리를 대비시켰다.

승지 유향주는 성품이 강직하면서도 편벽되었다. 일찍이 사헌부에 들어갔을 때, 금패를 발급받아 사사로이 도축한 이를 잡았는데 잡고보니 호위군관이였다. 정승 한익모가 당시 대장이었는데, 금리(禁吏)를 신칙하여 그를 풀어주었다. 공이 노하여 말하였다. “대신이라는 자가 진실로 법사(法司)에게 분부하여 사사로이 도축한 이를 풀어줍니까? 법이 서지 않는 것이 대신 때문이군요.”라고 하고는 종이를 찾아 차자를 기초하여 장차 그를 논핵하려고 하였다. 한익모가 급히 빈객을 보내 사과하며 깊이 스스로 자책하였다. 공이 말하였다. “대신이 대간에게 사과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라고 하며 마침내 그만두었다. (중략) 문숙공 채제공이 중간에 욕을 당하실 적에 판서 채홍리가 비방하는 말이 많았었는데, 공이 문숙공에게 편지를 보내 비방을 초래한 이유를 극렬히 논파했는데, 말이 모두 뼈에 사무칠 정도로 날카로웠다¹³⁾

그런데 채홍리는 1780년대 채제공이 실각했을 때, 그를 위해 정민시에게 찾아가서 정민시가 채제공을 논핵하는 차자에 동참하지 말 것을 설득했다.¹⁴⁾ 대체와 소채의 같등이라고 잘 알려진 실록의 기록은 우물쭈물하는 채홍리의 성품을 대변한다. 이 상황은 재상 채제공과 이조판서에 제수된 서호수가 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을 정조가 개탄한 것이다.¹⁵⁾ 서호수가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는데, 이를 받아들이고 벼슬길에 나아가면 재상 채제공과 혐의되므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채제공은 서호수가 업무에 나오지 않자 다음과 같은 채홍리의 말을 들었다고 하며 이를 임금에게 아뢰었다. 채홍리가 1786년 서명응의 집에 공무 차 방문했을 때, 서명응이 ‘채제공을 그리워하지만 정치적 입장이 달라 만날 수 없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정조는 이 말을 듣고 이와 같은 상황이면 서명응의 아들 서호수가

13) 俞承旨恒柱, 性剛褊耿介. 嘗入憲府, 發禁牌, 執私屠者, 卽扈衛軍官也. 韓政丞翼謨時爲大將, 飭禁吏放之. 公勃然曰: “大臣者, 固分付法司放私屠者乎? 法之不立, 由大臣.” 覓紙草劄子, 將劾之. 韓相急遣客謝之, 深自引咎. 公曰: “大臣謝臺諫, 可貴也.” 遂已之. (중략) 文肅之中屈也, 蔡判書弘履多謗言, 公上書文肅, 極論致謗之由, 語皆次骨. 정약용, 앞의 책, 146쪽.

14) 李在璣, 『訥菴記略』.

15) 『承政院日記』 정조 15년 6월 20일 癸亥; 『正祖實錄』 권32, 정조 15년 6월 30일 癸酉; 권33, 15년 7월 3일 丙子; 15년 7월 5일 戊寅.

부친의 뜻을 어기지 말고 판서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 그러자 서호수가 상소를 올려 채홍리의 말이 근거 없음을 반박하였고, 채홍리는 자신이 말을 모호하게 전한 죄를 사죄였다. 그러자 정조가 채홍리가 채제공을 지난 10여 년간 저버린 것이 크다고 노하였다.¹⁶⁾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채제공은 끝내 채홍리를 포용하였고 그를 자신의 사회에 불러들였다. 그는 채제공의 핵심 문인인 이정운과 절친하였다.¹⁷⁾ 채당과 홍당의 분기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지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산의 장인 홍화보 관련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나의 장인 절도사 홍화보 공은 호협으로 의를 좋아하신다. **바야흐로 문숙공 채제공 공이 정치적 인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문하생, 친우 가운데 그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홍공이 이러한 시를 지었다.

末俗紛紛趨勢途 말속은 어지럽게 권세의 길을 내달리는데
乘機處處占榮枯 기회를 타려고 곳곳에서 영화와 몰락을 점치네.
何人不負楊臨賀 그 누가 양빙(楊憑)를 저버리지 않으리라마는
然後方稱大丈夫 그런 연후에야 대장부라 칭할 수 있으리라.

공의 중형 판서 홍수보(洪秀輔) 공이 계문을 올려 문숙공을 논핵할 때에도 공은 그래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문숙공의 집에 갔을 때, 인사 말씀이 끝나자 문숙공이 겸인에게 “손님의 말을 뜰에 매시게, 문 앞에 세워 놓지 말고,”라고 하셨다. 공이 “왜 그러십니까?”라고 묻자 문숙공은 “현인에게 누가 될까봐 그렇소.”라고 했다.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대감께서는 어찌 그리 구구하십니까, 남들이 모르게 하고 싶으면 아예 오지 않는 것만 못하지요. 누가 될까 두려웠다면 어찌 왕래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 즉시 말말이꾼을 불러 다짐하기를 “너는 동내 어귀에 말을 매어두고 누가 묻거든, ‘회현방 홍병사가 채판서를 찾아왔습니다’라고 답하거라.” 라고 하니 문숙공이 크게 웃었다.¹⁸⁾

위 인용문에 중형으로 언급된 홍수보는 채당과 대립되는 홍당의 대표적인 문인이다. 홍화보와는 형제지간으로 홍중효의 계자로 입적되었다. 1780년대 채제공이 정치적 좌절을 겪을 때에도 1783년 5월까지의 그들과 교류를 끊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수보의 아들 홍인호(洪仁浩)가 중화 부사 시절 지은 작품집인 『서득록』에 서문을 써준 시점이 1783년 5월 이후이기 때문이다.

위 인용을 보면 다산의 장인 홍화보가 생 홍화보가 어려운 시기에도 채제공을 변함 없이 지지하는 장면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1786년 홍수보가 대사헌으로서 채제공을 성토한 것을

16) 오히려 正祖가 노하는 대목에서 蔡濟恭이 蔡弘履를 얼마나 보호했는데 이를 저버리는 행태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蔡濟恭은 생전 내내 蔡弘履를 아끼며 포용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17) 대채, 소채의 갈등과 채홍리에 관한 서술은 백승호, 앞의 논문.

18) 余聘翁洪節度, 【和輔】豪俠好義。方蔡文肅之沈屈也, 門生切友無不畔棄, 公有詩曰: “末俗紛紛趨勢途, 乘機處處占榮枯。何人不負楊臨賀, 然後方稱大丈夫。” 公仲氏判書, 發啓論文肅, 公猶不棄, 嘗往文肅之室, 寒暄已, 文肅顧謂僮人曰: “客馬宜繫庭前, 勿令門前立也。” 公曰: “何故?” 文肅曰: “恐爲賢累。” 公嘻笑曰: “何大監之區區也? 欲人勿知, 莫如勿爲, 既恐爲累, 何必相及?” 卽座上招御者, 戒之曰: “爾其係馬于屏門【卽巷口】之外, 有問者, 爾可曰, ‘會賢坊 洪兵使爲訪蔡判書來也。’” 文肅大笑. 약용, 위의 책.

지칭한다.¹⁹⁾ 이 성토는 충역의 문제를 논하고 있기에 당시 많은 남인들이 연루될까 두려워 여기에 동조했다고 한다. 강박의 손자 강세륜, 채제공의 애제자 이종섭 등도 외압에 이기지 못하여 마지 못해 동조했는데, 훗날 채제공이 정계에 복귀하여 남인의 결속을 다시 추구할 때에도 1786년에 자신을 저버린 인물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이정운과 이익운은 채제공의 핵심 문인이었다. 특히 1748년생 이익운이 정조와 채제공의 심복으로서 남인 문단을 결속하고 관리하는 실재를 담당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조를 가까이 모셨기에 각종 사건에서 남인들을 단속하는 장면이 종종 보인다. 1794년 승지에 제수되었을 때 사직소를 올렸는데, 이때 김종수 처리 문제를 언급하다가 흑산도 유배를 가게 된다. 다산은 그를 위해 송별시를 지어 준다.

送李承旨 益運 謫黑山島 흑산도로 유배 가는 승지 이익운을 전송하다.

匱而銀靑下玉墀 은 인장 푸른 인곤 풀고 옥 섬돌 내려가니
黑山秋色汎雙眉 흑산도 가을빛이 두 눈썹 위에 넘실대네.
芙蓉水冷宮霜重 부용지 물 차갑고 궁중에 서리 쌓일 때
橘柚天荒海霧吹 유자나무 심긴 황량한 땅에 바다 안개 자욱하리.
憲府五更烏寂寞 오경 사헌부에 까마귀 소리 고요하고
祖筵斜日燕差池 저물녘 송별연에 제비들이 어지럽게 나누나.
且休銅雀江頭望 동작 강가에서 바라볼 것 없다오.
須到慈雲港口遲 자운도 항구에 어느 때 다다를까.

다산을 이끌어 주는 남인 중진으로서 이익운의 면모는 다음 한시에서도 잘 나타난다. 다산이 그에게 보낸 시이다.

奉簡鶴麓 李承旨 학록 이 승지에게 올린다.

蒼蒼雨色大陵西 대릉 서쪽에 빗기운 어슴프레한데
吏部家依陴隄低 시부시랑의 집은 성가퀴에 붙어 나지막하네.
垂柳門清無馬繫 맑은 문 앞 수양 버들엔 매인 말 하나 없고
綠槐園暗有鶯啼 어두운 동산 푸른 화나무에 피꼬리 울어대네.
獨持明鑑懸孤照 혼자 맑은 거울을 높이 외롭게 비추고
【李公時爲余, 於筵中數有陳白】이공이 당시 나를 위해 경연 석상에서 자주 진술하여 아람
苦設津梁渡衆迷 애써 다리 설치하여 미혹된 중생을 건너게 하네.
若許重開文字飲 만약에 문자음 다시 열게 된다면
未應蹇衛怯衝泥 노둔한 당나귀도 진창길 겁내지 않으리나.

이 시는 1796년 5월 하순 경의 작품인데, 금정찰방에서 돌아와 아직까지 조정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익운이 정약용의 관직 진출을 위해 애써 준 것을 언급한 작품이다. 승

19) 그 외에도 1788년에는 홍인호가 승정원의 복역(覆逆)을 청하는 틈에 참여하였다. (김시준 역, 1985 『벽위편』, 삼경당, 163-166면)

지로서 국왕의 지근에 있는 인물을 세상의 명리에 초연한 은사로 그려내었다. 세상 사람을 비취 주는 거울, 건네 주는 다리의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을 도운 것이 공적인 목적에서 옳고 그름을 밝히고 인재를 등용하는 공의를 밝힌 것으로 실제 정치 현장의 행위를 형상화하였다. 미련에서는 조만간 시회가 열린다면 참석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익운의 도움으로 정계에 복귀하고 싶은 다산의 의사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운과 다산의 관계도 1797년 이후로는 변화가 보였다. 『백일록』의 다음 기록을 보면 둘 사이에 틈이 있었음을 국왕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기미년(1799) 여름 영춘현에 입시하고 있었다. 주상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정약용이 경의 단점을 나에게 들리게 하는 경우가 많구나. 어떤 경우는 그 사람됨이 미덥지 못하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권세가 재상 채제공보다 십 배나 더하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남인에게 무익하다고 한다. 이석(李奭)도 경의 단점을 많이 들추어내는 것이 서인보다도 심하다. 모르겠구나. 무슨 연고로 경이 이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인지,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된 것인가?”

신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정약용은 제가 이조에 있을 때 그의 형 정약현을 위하여 여러 차례 초사(初仕) 자리를 구하였는데 신이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시다. 그랬더니 과연 크게 원한을 품고 올해부터는 전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시다.”²⁰⁾

이익운의 권세가 채제공보다 더 했다고 하는 언급도 놀랍고 정약용이 이익운을 원망하는 언급을 한 것도 놀라운 부분이다. 남인 중진과 신진 문인 사이의 갈등이 채제공 사후, 정조 서거 이후에 남인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익운은 남인 원로 목만중과도 갈등을 겪었는데 목만중이 서학을 물리치기 위해 이기경과 함께 하자고 이익운에게 제안한 것을 그가 거절하였다. ²¹⁾ 이후 목만중은 그를 서학도로 지목하였고, 아들 이명호가 죽자 그 역시 문제 삼았다. 채제공 생전 동당으로 결속되어 있던 남인은 원로, 중진, 신진 사이에 잠복되어 있던 갈등 요소가 표면화되었다. 이것이 정치 세력으로서 남인이 몰락을 앞당기는 데 작용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4. 결론

20) 李益運, 『百一錄』,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己未夏 入侍于迎春軒. 上曰: “丁若鏞多以卿短處, 使之聞之於予. 而或謂之其人不足信, 或謂之權威十倍蔡相, 或謂之無益於午方. 李哲亦語卿事多挾摘, 甚於西人. 未知何故卿之見忤於此輩, 有何所由而然否?” 臣對曰: “若鏞則臣之居銓也, 爲其兄若鉉, 屢求初仕, 而臣一不照望, 果大啣之, 自今年歲後, 一未相訪.” (중략)”

21) 이익운, 『백일록』.

다산은 무엇을 말하지 안/못 했나?

-백승호 선생님의 <정조 연간 다산의 관직 생활과 남인 문단에 관한 기억> 질의문

부유섭(제주대학교)

질의자는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유배 이전의 다산**을 ‘청년 다산(?)’이란 카테고리로 묶어 조명해보자는 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의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선생님께서 ‘먼저 정조 연간 남인 문단의 구도 속에서 다산의 위상과 환력(관련의 오자?)을 검토한 뒤, 다산이 남긴 여러 기록을 통해 남인 문단에 대한 그의 기억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산의 문집을 통해, 혹은 다산과 일정한 교류를 갖고 있는 인물과의 교류를 밝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문학계에서 보자면, 많은 선학들의 연구가 있어서 일정 부분 개략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음에도 ‘청년 다산’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자 하는 의도가 다시 ‘청년 다산’의 면모를 환기시키려는 의도 보다는 뭔가 다산에 대해 더 말해야 할 것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다산 연구에 있어 정민 선생님의 작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문학계에서 애써 무시하던 천주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며 그 촘촘한 관계망을 선생님의 시각으로 정리하고 있어 앞으로는 반드시 옳듯 그르든 이 책(논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실한 천주교사의 연구를 앞에 두고도 참조하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보면 다산에 대해서만큼은 ‘다체간 연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이는 것이 ‘청년 다산’일 것입니다.

이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거칠지만 몇 가지 백선생님의 논문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이 논문에서 ‘천주교 관련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청년 다산’이 천주교에 대해 어떤 포지션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2. 다산의 목소리만으로 다산을 말하는 것이 온당한가?
다산의 문집을 포함한 다산의 저술만으로는 온전한 다산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맥은 정민 선생님의 저술 속에서 충분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1)2)은 함께 대답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다산의 기록으로 본 정조 연간 남인 문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심경호 선생님 번역의 『여유당 전서』(시문집)입니다. 기존 번역의 오역을 많이 고치는데다가 인물 관계망, 지명 등에 연구자들이 참고해야 하고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이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훨 쉽게 남인 문단의 구성원과 활동을 파악하기에 용이할 것 같아 메모해 둡니다.

남인 문단 구성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논문을 통해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다산의 교류에서 ‘다산은 무엇을 말하지 안/못 했나?’입니다. 이점에 대해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다산(茶山)의 목민(牧民) 사상과 영남(嶺南) 남인(南人)

박철상/한국문헌문화연구소

- 목 차 -

1. 시작하는 말
2. 정재원과 영남
3. 다산과 영남
4. 맺음말

1. 시작하는 말

다산 정약용 연구는 500권에 달하는 그의 문집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현재도 실학의 집대성자라는 평가에 걸맞게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선시대 인물 중 가장 방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된 인물에 속한다. 그럼에도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그의 젊은 시절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의 학문적 연원에 대한 연구 역시 많지 않은데, 이는 18년에 걸친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유배 이전의 자료들이 소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부친 정재원을 비롯한 선조들의 문집조차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해, 그의 초기 활동과 학문적 연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필자는 다산의 『목민심서』 편찬 과정을 검토하면서 다산 목민 사상의 연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산은 『목민심서』를 단순한 지방행정의 실무교본이 아니라 문사철(文史哲)이 융합된 다산 사상의 결정체로 자리매김하였다. 『목민심서』 이전에 다양한 목민서가 편찬·간행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다산의 저작과는 성격이 달랐다. 다산은 학문의 절반이 수신(修身)이고 나머지 절반이 목민(牧民)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다산의 목민 사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인물은 부친 정재원이다. 다산은 부친을 따라다니며 목민관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이후 곡산부사(谷山府使)를 지내면서 이를 직접 검증하였다. 아울러 정재원은 영남 문인들과 깊은 교유를 나누었는데, 이 인맥은 다산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따라서 영남 남인들의 목민 사상은 다산의 목민 사상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산과 영남 문인의 교유 관계는 정민 교수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인행에 대해서는 「다산과 이인행의 남북학술 논쟁」(『다산학』 15호, 2009)에서, 신영로에 대해서는 『다산 증언첩』(휴머니스트, 2017)에서 이미 다루었다.

본 논고는 다산 목민사상의 연원을 추적하는 시론(試論)적 성격의 연구이다. 이를 부친 정재원의 활동과 다산의 영남 남인들과의 교유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2. 정재원과 영남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정재원이 소장했던 『반계수록(磻溪隨錄)』이 수장되어 있다(청구기호: 古 6741-1). 권1~권2가 수록된 1책만 전하며, 권1 첫머리 하단에 【압해(押海)】【정재원장(丁載遠章)】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반계수록』은 1770년 경상감영에서 간행되었으며, 최흥원(崔興遠)을 비롯한 영남 학자들의 교정을 거쳤다. 이 책은 정재원은 물론 다산도 애독한 책으로, 다산 실학사상의 연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재원(丁載遠, 1730~1792)의 문집은 간행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행적은 채제공이 지은 묘갈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묘갈명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내가 일찍이 참소를 피해 명덕산에 은거할 때,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오직 정군(丁君) 기백(器伯, 정재원의 字)만 때때로 찾아와 개천 소리와 산 빛을 벗 삼아 이야기를 나누며 해가 저물어도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자신을 위한 처세를 모른다며 웃었다. 내가 재상이 되고 또 혼인을 맺자 오히려 그의 발길이 문에 드물어졌다. 사람들은 다시 그가 출세를 도모할 줄 모른다며 웃었다. 그러나 이로써 나는 정군이 사모하는 것이 고인(古人)의 도(道)이며, 속된 오늘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임을 더욱 알게 되었다.¹⁾

이는 정재원의 사람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다. 남인의 영수 채제공은 정조의 총애를 받던 재상이자, 후에 정재원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 채제공의 서자 채홍근(蔡弘謹)과 정재원의 서녀(庶女)가 혼인했기 때문이다. 정재원은 1762년 생원시에 합격한 뒤 연천현감, 화순현감, 예천군수, 울산부사, 진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1792년에는 진주목사 재임 중 관아에서 순직하였다. 다섯 차례의 지방관 임기 중 세 차례가 영남 지역이었고, 이 시기 영남 문사들과 깊은 교류를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인맥은 다산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목민 사상의 토대 또한 함께 전달되었다. 정재원의 영남 지역 교류 관계는 그가 남긴 몇 통의 편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1) 蔡濟恭, <通訓大夫晉州牧使丁公墓碣銘>, 『樊巖先生集』권53. “濟恭嘗避讒遜明德山中,久要稍稍引去,獨丁君器伯時來訪,晤語川聲嶽色之間,不日暮不起.人未始不笑其不能爲身謀也.及濟恭拜相,又結婚媾好,君之跡乃反罕及於門.人又未始不笑其不能爲進取計也.然因是而益知君之所慕者古人之道而非今俗人所可與也.”

첫째, 1790년 울산부사 시절 독락당(獨樂堂)으로 보낸 편지이다.

지난 겨울에 보였던 일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새봄을 맞아 평안히 지내 시는지 안부를 여쭙며, 그리운 마음을 둘 데가 없습니다. 저는 공무에 시달리고 몸이 아파 아직도 근심과 괴로움이 많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서쪽에서 불법으로 장사 지낸, 투장(偷葬) 건에 대해 여러 차례 엄히 독촉하여, 어제 이미 묘를 파내어 옮겼으니, 이로써 부탁하신 일을 저버리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시켜 편지를 전하려 하였으나, 이미 농번기라 농사철에 인력을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을까 염려되어, 이에 관청의 공무 편을 통해 아뢰니다. 본 고을 향교 성전(聖殿)에 기둥 몇 개를 교체할 곳이 있는데, 몸집이 큰 목재는 도저히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귀덕 산소의 아주 먼 곳에서 소나무 몇 그루를 베어 왔으니, 이는 만부득이한 처지에서 나온 일입니다. 일이 급하여 미처 보고하지 않고 먼저 베는 격이 되었으니, 평소 금부(禁府)에서 내린 산림 벌채 금지의 엄한 교령을 생각하면 불행한 일 중에서도 매우 송구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본래 사서 쓸 곳이 없어 그런 것이니, 또한 반드시 상황을 헤아려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사웁니다. 오직 이 점만 바랄 뿐이며, 나머지는 다 갖추어 쓰지 못하니 두루 살펴 주시리라 여기며 삼가 올립니다.
경술년(1790) 1월 26일, 정재원 돈(頓).²⁾

피봉에는 수신자가 ‘玉山溪亭 李生員宅’으로 되어 있다.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회재(晦齋) 이언적 후손가에 보낸 것으로, 투장(偷葬)으로 고민하던 회재 집안의 고충을 해결해 준 내용을 알리고, 향교 성전 수리를 위해 회재 집안 소유 목재를 베어 사용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다. 정재원과 회재 후손가 간 교류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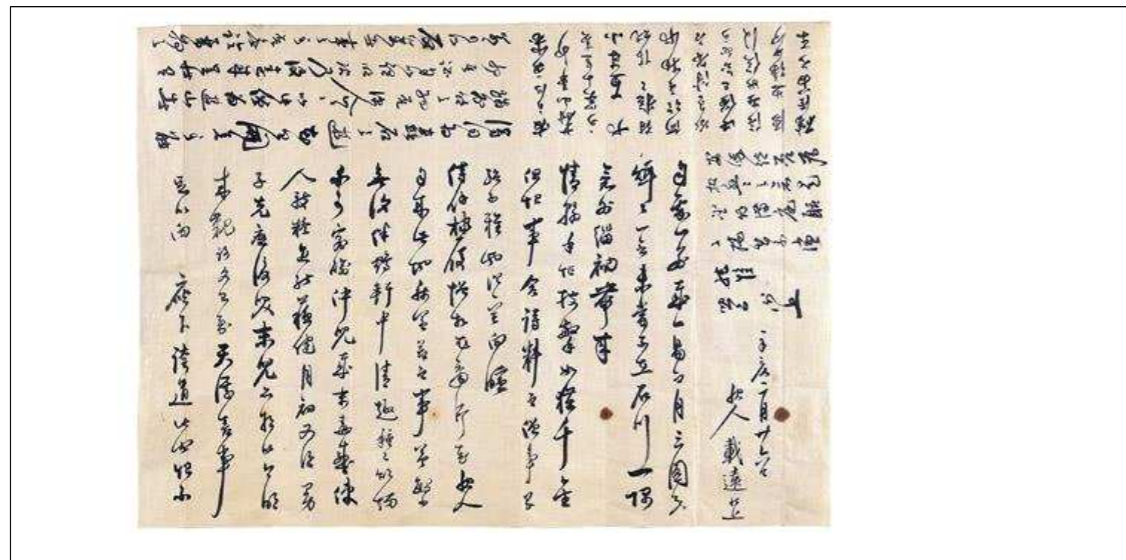


2) 前冬奉晤,至今慰仰,惟惟新春,靜履起居增吉,區區不任仰羨.載遠,公擾身病,尙多悶惱,奈何.凡西偷葬者,屢加嚴督,昨日已爲掘移,可謂不負所約耶.欲送渠傳書,而已當農節,恐有奪時之嫌,茲因官便 仰報耳.鄙邑鄉校聖殿,有數柱修改處,體大之木,萬無可得之道,貴山局絕遠處,斫來數三松,此出於萬不得已也.緣於事急,亦不免先斬後報,向來禁府侵伐之教,不幸之中,萬萬歉歎.然本無可貿用處,且審必有明恕矣.惟是之望,餘姑不備,統惟下照,狀上.庚戌元月廿六日,丁載遠 頓.

둘째, 1790년 12월 4일 정재원이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후손이 거주하던 호연정(浩然亭)으로 보낸 편지이다. 『병와저서목록』에는 정재원의 편지 3통이 실려 있는데, 이 중 하나이다. 피봉에는 ‘진주목사 올산사장(晉牧在蔚山謝狀)’이라 기록되어 있어, ‘진주목사가 올산에서 보낸 답장’임을 알 수 있다. 올산부사로 재직 중이던 정재원은 1790년 11월 10일 진주목사로 이동 발령을 받았으나, 조령에 따라 진주로 가지 못하고 올산에 머물렀다.

복제(服弟)는 뜻밖에 이직(移職)을 했는데, 또 토양이 나쁘고 피폐한 지역이라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걱정입니다. 어찌합니까? 게다가 환곡(還穀) 일을 마감하고 부임하라는 조정의 명령이 있어 언제나 출발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인도 아니고 객도 아니니 더욱 답답합니다. 보내주신 선집(先集)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개장(改粧)하여 소중히 보겠습니다. 비록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지만, 갈림길에 선장(仙庄, 상대방 집을 높이 부르는 말)을 방문하는 인편이 있습니다. 이제 장차 멀리 떨어지면 두 사람이 서로 서글퍼질 것이니 어찌 말씀하신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바야흐로 형세를 관망하며 감사께 인사를 드리려 가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잠깐 이별의 회포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난 누각(樓閣)의 봄놀이를 과연 말씀대로 한다면 아주 기이한 일이 될 것이니 꼭 도모하겠습니다.³⁾

이 편지는 정재원이 이형상 집안에서 보내온 이형상 문집을 받고 답장한 것으로, 이형상 문집은 손자 이만송(李晩松)이 1774년 간행하였으므로 이 편지는 정재원이 이만송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진주목사 이직 사실을 알리고 방문 의사를 전하고 있다.



셋째, 1791년 이근오(李覲吾)에게 보낸 편지이다.⁴⁾

이별한 뒤로 해가 한 번 바뀌었고 달은 세 번이나 등글어졌어도 그리운 마음은 석천(石川)의 한 구석에 가 있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뜻밖에도 승려가 당신의 편지를 가지

3) 服弟, 意外移職, 又是土惡弊繁之地, 未去而先愁, 奈何. 且以有勘羅後赴任之朝令, 姑未知何日啓程, 非主非客, 尤可悶惱. 先集荷此分惠, 謹當改粧寶玩. 雖未源源, 臨岐仙庄, 過從有便, 今將涯角矣, 兩相悵惘, 安得不如教也. 方欲觀勢, 延命而去, 然則可不暫叙別懷也. 名樓春遊, 果能踐言則大是奇事, 必圖之.

4) 이에 대해서는 『문헌과 해석』38호에 필자가 소개한 바 있다.

고 왔기에 허겁지겁 펼쳐보았는데 마치 천금(千金)을 얻은 듯 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일이 시 짓는 재료로는 적합하였지만 승려의 일은 운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가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들께서 잘 지내신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이곳에 온 뒤로 병세는 더 심해지고 사무는 더 바빠져 다시는 반학헌(伴鶴軒)의 정취를 느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많은 번뇌를 비길 데가 없습니다. 둘째 아이는 지난 연말에 독감으로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쳤는데 근래에 건강을 되찾았고, 월초에는 다시 사내 아이를 얻었으므로 앞에는 걱정을 끼쳤다가 뒤에는 웃음을 선사했다고 하겠습니다. 막내 아이는 금명(今明)간에 근친(覲親)을 온다고 노문(路文)이 이미 도착해 있으므로 어떤 곳에서 생긴 기쁜 일이라 좌하(座下)께 자랑할 만합니다. 이 사이에 함께 축석루(矗石樓)에 놀러가지 못하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꽃도 피었는데 이별할 때의 약속을 실행할 수 없겠는지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승려는 탁발승(遊山者)인가요? 그 송사(訟事)는 스스로가 명판결이라 하면서 다시 멀리까지 와서 소장을 올리는 걸 보면 사건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모양인데, 일의 가부(可否)는 말할 것도 없고 진주(晉州)에 있는 관아에서 올산(蔚山)의 일을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스운 일이니 나무랄 것도 없습니다. 보내주신 작은 봉투는 하나하나가 정으로 주신 것인데 어떤 물건인지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편지와 함께 보내려는 물건이 있었는데 이 승려는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인편을 기다렸다가 보내려고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반계옹(磻溪翁)께서는 편안히 잘 지내시는지요?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뜰에 소란이 너무 심해 이만 줄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라며 답장을 올립니다. 신해(辛亥, 1791)년 2월 26일 복인(服人) 정재원(丁載遠)이 글을 올립니다.⁵⁾

이 편지의 피봉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다.

李注書 記室 回納
晉牧謝狀

진주목사가 이주서(李注書) 댁으로 보낸 답장임을 알 수 있다. 1791년 정재원이 진주목사 시절 보낸 편지이다. 수신자 이주서는 누구일까. 편지 속에 단서가 있다. 먼저 반계옹(磻溪翁)의 안부를 묻는 대목이 나온다. 반계는 이양오(李養吾, 1737~1811)의 호이며, 석천(石川)은 이양오의 종제 이근오(李覲吾, 1760~1834)가 태어난 곳이다. 이근오는 다산의 둘째 형 정약전(丁若銓, 1758~1816)과 1790년 문과 동방(同榜)으로, 그의 문집 『죽오유집』에는 다산의 시에 차운한 시와 정약전에게 보낸 시가 실려 있어 교유 관계를 증명한다. 따라서 이주서는 이근오로 추정된다. 또한 편지에서 언급된 반학헌(伴鶴軒)은 올산도호부 동헌의 명칭으로, 정재원이 진주목사 부임 전 올산부사로 재임(1789.4~1790.9)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이 편지에서

5) 自我一別, 歲一易, 而月三圓矣, 耿耿一念, 未嘗不在石川一隅. 意外, 繼衲帶來情翰, 手忙披擊, 如獲千金. 但恨事合詩料, 而僧事則殆不雅也. 從審向暄侍餘隸履增相, 尤庸仰慰. 服人, 自來此地, 病益苦, 而事益繁, 無復伴鶴軒中情趣, 種種煩惱, 不可容喻. 仲兒, 歲末毒感, 使人致疑, 近能蘇健, 月初又得男子, 先憂後笑. 末兒, 亦將以今明來覲, 路文已到, 天涯喜事, 足以向座下誇道. 此間, 恨不得同爲矗石之遊. 花且開矣, 可能踐別時之約否. 深企深企. 以此僧爲遊山者耶. 其訟, 自以謂明決, 乃復遠來呈狀, 有若可以反案者, 事之可否, 無論, 晉州之官, 可以更判蔚山事耶. 可笑不足責也. 惠來小封, 粒粒情貺, 何論其物也. 欲有伴簡, 而此僧已知非可信者, 姑俟後便, 恕諒如何. 磻溪翁, 亦平安侍否. 爲報懸懸之意, 是望. 餘滿庭話話甚, 不宜. 統惟照下, 謝上. 辛亥 二月 廿六日, 服人 載遠 狀上.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다산 형제와 조카에 관한 기록이다.

둘째 아이는 지난 연말에 독감으로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쳤는데 근래에 건강을 되찾았고, 월초에는 다시 사내아이를 얻었으므로 앞에는 걱정을 끼쳤다가 뒤에는 웃음을 선사했다고 하겠습니다. 막내 아이는 금명(今明)간에 근친(覲親)을 온다고 노문(路文)이 이미 도착해 있으므로 이 먼 곳에서 생긴 기쁜 일이라 좌하(座下)께 자랑할 만합니다.

‘둘째 아이’는 정약전을 지칭한다. 지난 겨울 독감으로 고생했으나 2월 초 득남(得男)하였는데, 이 아이가 바로 다산이 아끼고 후계자로 여겼던 정학초(丁學樵, 1791~1807)이다. 정학초는 17세에 요절했으며, 다산은 「형자학초묘지명」을 지어 애도하였다. 정재원은 다산이 근친을 위해 진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다. 정약용의 진주 근친 사실은 정규영이 편찬한 『사암선생연보』 신해년조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다산이 진주를 다녀온 후 지은 「석갑산정씨육총변」이 문집에 실려 있다. 이 글은 진주 석갑산의 6기 무덤이 정씨 묘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다산의 기록에 따르면, 옛날 낭혜(朗慧)라는 요승이 풍수를 안다고 다산의 조부 정지해(丁志諧)에게 “진주 석갑산에 대장군묘가 있다”고 말했고, 조부가 직접 확인한 뒤 비문의 괴이함을 의심하면서도 ‘丁’자가 새겨진 정변(丁旻) 묘를 정씨 고적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재종조 정지영(丁志永)도 답사 후 제사를 지냈고, 남원 일대 정씨들이 해마다 향사를 올렸다. 따라서 이 일은 다산 가문에서 중요한 사안이었다. 1791년 봄 정재원은 근친 온 다산을 데리고 석갑산을 답사했고, 다산은 직접 확인 후 정씨 묘가 아님을 결론지었다.

울산부사와 진주목사 시절 정재원의 편지를 통해 영남 지역에서 그가 차지한 위상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교유 관계는 고스란히 다산에게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다산과 영남

다산의 <목민심서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성조(聖朝)의 인정을 받아, 연천현감(漣川縣監)·화순현감(和順縣監)·예천군수(醴泉郡守)·울산도호부사(蔚山都護府使)·진주목사(晉州牧使)를 지냈는데, 모두 치적이 있었다. 비록 나는 불초하지만 그때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워서 다소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으며, 뒤에 수령이 되어 이를 시험해 보아서 다소 증험도 있었다.⁶⁾

이는 자신의 목민 사상이 부친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스스로 밝힌 대목이다. 그렇다고 『목민심서』가 오직 이 경험만으로 편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산은 이전의 목민서들을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그중 남인 계통과 관련된 것으로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임관정요(臨官政要)』가 있으나, 이에 앞서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이 생질 이덕기(李德沂)에게 써준 글이 있다. 이덕기는 1604년 목천현감으로 부임했는데, 아마도 당시 써준 글로 보인다. 이 글은 이원익의 문집에 <서증이생덕기지임>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으나, 본래는 『청송지남(聽訟指南)』

6) 丁若鏞, <牧民心書序>, 『牧民心書』. “聖朝監二縣守一郡護一府牧一州,咸有成績.雖以鏞之不肖,從以學之.竊有聞焉,從以見之,竊有悟焉.退而試之,竊有驗焉.”

南)』 부록에 수록된 <이상국오리게기생이덕기서>를 정리한 것이다. 『청송지남』 말미의 발문을 통해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다.

병신(丙申)년 겨울에 나는 분수에 넘치게도 삼척부사가 되었는데 송사를 심리할 때 식견이 고루하여 원고와 피고의 옳고 그름이 혼란스러워 판단키 어려웠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지 오래되었다. 어떤 사람이 『청송지남』 한 책을 주기에 이를 책상 위에 두고서 의문 나는 점이 있을 때마다 찾아보고 참고로 했더니 두 사람의 다툼이 있는 날이면 진짜와 가짜를 즉시 가릴 수 있었으니 도움 되는 바가 컸다. 대개 각 항목의 법조문에 따라 분류하고 모아두어 한 눈에 자세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송(聽訟)의 지남(指南)’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 또 오리(梧里) 이상국(李相國,李元翼)공이 그의 생질(甥姪) 이공(李公,李德沂)을 경계하며 준 글을 구했는데, 관리된 자가 조금도 실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니, 이는 목민관의 훌륭한 지침이 될 만하였다. 정사를 돌보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책 끄트머리에 기록한다. 전성후인(全城後人) 이성기(李聖基)는 삼가 기록한다.⁷⁾

발문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병신년 삼척부사로 부임한 이성기가 간행한 것이다. 이성기는 누군가로부터 『청송지남』을 받아 사송(詞訟)에 유용하게 사용하였고, 이에 이원익의 생질에게 준 글을 구해 부록으로 첨부하여 간행하였다. 그렇다면 간행 시기는 언제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성기가 삼척에서 간행한 또 다른 책 『격몽요결』의 발문을 살펴보자

울곡(栗谷) 이선생(李先生,李珥)이 손수 지은 『격몽요결』은 후학들의 모범이 되었지만 일찍이 간행한 게 거의 없었다. 하물며 영동(嶺東)의 여러 군에는 원래 이 책이 없어서 중간(重刊)하여 유포하고자 했지만, 재력이 부족하여 뜻만 있지 실행에 옮기지 못할 즈음에 지금 방백(方伯)이신 강백헌(姜栢年) 어른이 우리 삼척부(三陟府)에서 『가례(家禮)』를 간행토록 했다. 판각을 마친 뒤에 약간의 판자를 모아 그대로 글자를 새겼는데 열흘이 되지 않아 일을 마쳤다. 아! 또한 다행이구나. 전성후인(全城後人) 이성기(李聖基)가 전말(顛末)을 대략 기록한다.⁸⁾

여기에도 날짜가 없으나, 강원도 관찰사 강백년이 삼척부에서 『가례』를 간행토록 하고 남은 판자로 『격몽요결』을 찍었다는 내용이다. 강백년의 강원감사 재임 시기는 『승정원일기』에 따라 1658년 4월 5일(효종 9년) 임명, 1659년 10월 4일(효종 10년) 체직으로 확인된다. 이성기의 삼척부사 임기는 『승정원일기』에 1656년 10월 21일 제수된 것으로 나오나, 같은 해 12월 6일 하직한 인물로 무반 출신 신여호(申汝豪)가 기록되어 있는데 명백한 오류이다. 다행히 『삼척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7) “丙申冬, 余忝倅陟州, 聽訟之際, 識見孤陋, 甲乙之是非, 昧昧焉難斷. 以是爲病者久矣. 有人以聽訟指南一冊贈之者, 置諸案上, 凡有疑處, 輒爲考據, 則當彼此爭訟之日, 眞贋立辨, 所補者其大矣. 盖緣各項法條, 分門類聚, 瞭然明且詳者故也. 聽訟之指南, 可謂不誣矣. 且得李相國梧里公, 戒其甥李公書, 使爲吏者, 不失尺寸跬步之地, 則斯可作字牧者之良法, 欲與聽政者全之, 因記篇尾焉. 全城後人李聖基謹識.”

8) 李珥, 『擊蒙要訣』, <擊蒙要訣跋>. “栗谷李先生手著擊蒙要訣爲後學之矜式, 而曾所刊行絕無而僅有. 況嶺東諸郡, 元無是冊, 欲爲重刊以布, 而財力不敷, 有意未就之際, 今方伯姜公栢年翁, 俾本府刊出家禮. 剞劂成就之餘, 鳩集若干板子, 仍爲鐫梓, 不十日功告訖, 吁亦幸矣. 全城後人李聖基略記顛末云.”

李聖基 丙申(1656)來, 庚子(1660)移尙州牧使⁹⁾

이성기는 1656년 삼척부사로 부임해 1660년 상주목사로 이동했다. 따라서 이성기와 강백년의 재임 기간이 겹치는 1658년 4월~1659년 10월 초 사이에 삼척에서 『청송지남』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송지남』 부록에는 <이상국오리게기생이덕기서>, <정원전지>, <수령철사>, <명태조유지>, <사간원계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이원익의 글은 『오리선생문집보유』 「잡저」에 <서증이생덕기지임>으로 실려 있으며, 일부 문구 출입이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문집에는 「명태조유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반면 『청송지남』에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이성기는 이 글을 어디서 구했을까. 강원감사 강백년으로부터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이원익 문집이 간행되기 전이었고, 강백년(1603~1681)의 사촌형 강학년(姜鶴年, 1585~1647)이 이덕기(1573~1613)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이덕기는 본관 한산, 자는 희점(希點)이며, 음서로 현감을 지낸 인물로, 명재상 이원익의 생질이다. 강백년의 부탁으로 이원익의 글이 『청송지남』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이원익의 이 글은 이후 조선후기 대표적인 목민서인 『선각(先覺)』¹⁰⁾에 포함되면서 더욱 널리 유통되었다. 또한 영천(永川)에서는 1649년에 『결송유취(決訟類聚)』가 간행되었고, 1707년에는 의령(宜寧)에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가 간행되었다. 『청송지남』과 『결송유취』는 서명만 다를 뿐, 실제는 동일한 책이다.

영남 남인들의 이러한 목민서 편찬과 간행 전통은 자연스럽게 『목민심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인 출신 목민관들의 행적이 『목민심서』에 직접 수록된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병와 이형상을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다산의 부친은 이형상 집안과 교유했으며, 이형상 문집을 기증받기도 했다. 이형상은 경주부윤 재임 중 음사(淫祀) 혁파를 관찰사에게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하고 영천으로 물러났다. 그의 문집에 실린 <경주 음사청금첩(慶州淫祀請禁牒)>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경주부윤 사직 후 영천(永川)에 은거하며 지은 시가 전한다.

舉境掃淫祠, 온 고을 음사(淫祠) 쓸어내는 일
奮然捐更諫, 분연(奮然)히 읍(捐)하고 거듭 간(諫)하니
謂被外庭笑, 조정 신하들의 비웃음 살 줄 알았는데
果遭官長訕, 과연 상관의 비방을 만나
旅泊臨臯下, 임고(臨臯) 아래에 잠시 지내니
靑山帶幽磎, 산은 푸르고 시내는 그윽하네.¹¹⁾

이 시는 음사 혁파를 추진하다 상관의 비방을 받아 사직한 상황을 보여준다. 1700년 3월 12일 『승정원일기』에는 이형상이 사직서를 내고 떠나자 파출(罷黜)했다는 경상감사의 서목이 실려 이를 뒷받침한다. 이후 이형상은 1701년 11월 11일 제주목사로 재차 제수되어 1702년 3월 25일 도임했다가, 1703년 3월 5일 대사간 이건명의 주청으로 물러나 5월 28일 제주를 떠

9) 沈鐸 編, 『陟州先生案』, 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0) 이 책 역시 번역·간행되었지만(정호훈 역주, 『선각』, 해안, 2013) 저자를 밝히지는 못했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이 책은 1794년에 柳光命이 편찬한 것이다.
11) 蔡彭胤, 『希菴先生集』권6.

났다. 이 기간 그는 지방관으로서 많은 치적을 남겼는데, 특히 신당과 사찰을 훼손하여 음사를 개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형상은 경주부윤 시절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임금의 재가를 받아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사실은 『목민심서』에도 실려 있다. 『목민심서』권7, 「예전(禮典)」6조에 있는 <제사(祭祀)>의 기록이다.

혹시 고을에 잘못된 관례로 전해 내려오는, 음사(淫祀)가 있다면, 선비와 백성들을 깨우쳐서 이를 헐어 버리도록 해야 한다.¹²⁾

뒤이어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목민관 중 관련 치적을 남긴 인물들을 열거하며 이형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형상이 제주목사가 되었을 때, 고을에 광양당(廣壤堂)이 있어 토착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 관습처럼 널리 퍼져 있었다. 공(이형상)이 명하여 이를 불태우니, 이를 들은 사람들이 통쾌해하며 칭찬하였다. 옛날 김치(金緞)가 영남의 관찰사로 있을 때 태백산(太白山) 신사(神祠)를 훼손한 일이 있었는데, (이형상의 조치는) 그것과 비길 만한 훌륭한 치적이라 할 수 있다.¹³⁾

이형상의 치적은 영남 선비들에게 널리 회자되었으며, 다산 역시 이를 숙지하고 있었다. 『목민심서』에 이형상의 사례를 서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산과 영남 학인들의 교유를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 문헌으로, 1817년 강진 유배지를 찾은 인동(仁同) 출신 신영로에게 써준 <서증신영로(書贈申永老)>가 있다. 이 글에는 몇 종의 이본이 전하며, 제목과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래 정인보 선생이 1935년 8월 『신동아』에 소개한 글이며, 이후 『담원국학산고』에 재수록되었다. 다만 오탈자가 적지 않아, 정민 교수가 새로 발굴한 사본을 바탕으로 『다산 증언첩』에 소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우리 선인(先人, 정재원)께서 예천 군수, 울산 도호부사, 진주 목사를 지내셨으니, 이 세 고을은 모두 옛 진한과 변한의 땅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영남 지방을 여러 차례 두루 다니게 되었고,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지내는 여가에 선생(先生)과 어른들을 모시고 즐거이 어울리며 가르침을 받았으며, 경학을 공부하는 선비들과도 친교를 맺는 이들이 많았다. 간혹 벼슬살이로 서울에 있는 이들과도 이웃처럼 서로 왕래하였으니, 아, 이는 모두 옛날 일이다.

가경(嘉慶) 신유년(1801) 봄, 내가 장기현(長鬐縣)으로 귀양 갔을 때도 역시 영남 땅이었다. 이때 친척과 옛 친구들은 감히 내게 아는 체를 하지 못하였으나, 길에서 한 번이라도 마주친 이들은 모두 길가에서 위문하고 안부를 물었다. 그 정후하고 여진 인심은 하늘이 준 본성인 듯하였다. 그해 겨울, 다시 강진으로 귀양 갔으니, 이때부터 영남 인사들과는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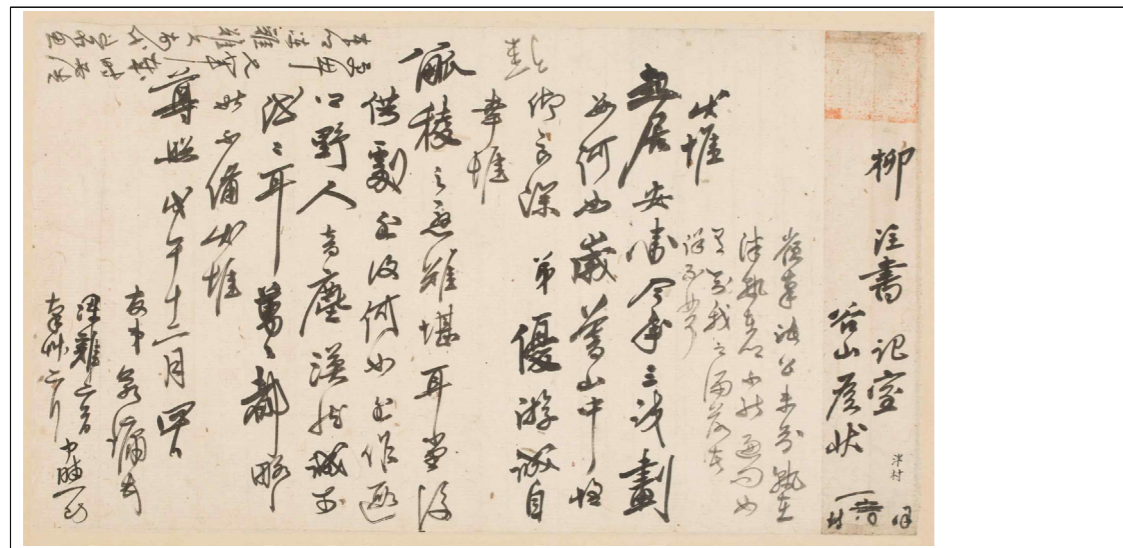
을축년(1805)에 소호(蘇湖) 이장(李文, 李堦)께서 고이(阜夷)로 귀양살이 왔다가, 이듬해

12) 其或邑有淫祀, 謬例相傳者, 宜曉諭士民, 以圖撤毀.
13) 李衡祥爲濟州牧使, 州有廣壤堂, 士民祈禱成風, 公命焚之, 聞者稱快. 昔金緞觀察嶺南, 毀太白山神祠, 可以匹美云.

풀러나 돌아가시며, 강진현 동문 밖 주막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주역』의 추이(推移)의 이치를 여쭙어 물으니, 작별하시며 <곤괘(困卦)>의 단전(象傳)을 풀이하여 그 뜻을 밝혀 적어 내게 주시고 가셨다. 또한 이르시기를 “추이(推移)란 주자(朱子)의 괘변도(卦變圖)에 남아 있는 뜻이다”라고 하셨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내가 다산(茶山)에 초막을 짓고 살았고, 지금 다시 십여 년이 지났다. 머리는 벗어지고 이는 벌어져 생기가 다 쇠잔하였고, 영남의 옛 친구들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늘 아련히 그리워할 뿐이다.---(중략)---내 논저가 비록 취할 만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편찬한 옛 성인들의 말씀은 분류와 구성이 매우 정밀하니, 후학들이 혹 취할 만한 구석이 있을지 모른다. 나는 이제 죽을 날이 머지않았으니, 훗날 혹시 이 몇 권의 책을 들고 영남으로 오는 이가 있거든, 바라건대 여러 군자께서는 하늘 같이 넓은 도량과 후덕함으로 저를 닮아 책을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 거두시어 모래와 자갈은 걸러내시고, 초부의 말처럼 보잘것없는 의견이라도 가려 취하셔서, 백 분의 일이라도 보존하여 자취를 남겨 주길 바란다. 그리하면 혹시라도 허물과 더러움을 포용하는 군자의 성대한 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하여 삼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나는 이제 자손들이 곤궁해졌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린 지 오래다. 그런 나를 측은히 여겨 가엾게 보아 줄 이가 있겠는가?---(하략)¹⁴⁾

부친을 통해 영남 학인들과 교유한 정황이 자세히 담겨 있으며, 다산이 그들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는지 확인된다. 특히 자신의 저술을 영남 학인들이 거두어주기를 바라는 문구에서는 영남에 대한 다산의 깊은 애정과 학문적 유대감을 읽을 수 있다.



14) 昔我先人爲醴泉倅,爲蔚山都護,爲晉州牧,三邑皆古辰韓弁韓地也.是故,余之跡,屢及嶺南,省定之暇,得與先生長者,陪歡奉教,而經生學子,亦多與之友善者,其或宦遊經輦者,相往返如鄰里,嗟乎,此昔年事也.嘉慶辛酉春,余謫長鬢,亦嶺南也.時,親戚故舊,不敢相知,然所過凡有一面者,莫不路次慰問,蓋其敦樸仁厚,天性然也.其年冬,復謫康津,自茲以來,與嶺南人士,聲問邈然.乙丑之歲,蘇湖李丈,謫臯夷苦,厥明年解還,訪余于縣東門之店舍,余得以周易推移之義質問焉,其別也,書困之象演其義,以贈余而去.且曰推移者,朱子卦變圖之遺意也.後數年,余結廬于茶山,今又十有餘年,頭童齒闕,生意索然,而嶺南舊識,不可復見.常忽忽思念.--(중략)--雖其論著無可取,其所輯古人之言,部分頗精,末學或有取焉.余今死亡無日,他年或有以是數種書携至嶺南者,望諸君子,穹量厚德,勿以人廢之,受焉收之,淘汰沙礫,採擇芻蕘,存其百一,以留其跡,庶幾有補於含垢納污之盛德云耳.余今子姓憔悴,而斯世之棄君平久矣.其有惻然以垂憐者否.--(하략)

다산이 역임한 유일한 지방관 직책은 곡산부사이다. 재임 중 보낸 편지 한 통이 전한다.

평안히 지내시는지 문안드립니다. 올해 세 번의 시험 결과는 어떠한가요? 한 해가 저무는 데 산중에 있으니, 그리움이 더욱 깊습니다. 저는 한가하게 지내는 게 진정 다행스럽습니다만, 임금을 향한 그리움만은 건디기 어렵습니다. 당후(堂后,注書)의 바쁜 일은 요즘 어떤가요? 요즘은 먼 시골의 야인(野人)으로 지내느라 외부 소식이 뜸한지라, 오히려 마음이 한가롭고 평안합니다. 드리고픈 말씀이 많지만 모두 생략하고 이만 줄입니다. 살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오년(1798) 12월 4일, 우제(友弟) 약용(若鏞) 돈(頓).

동계(凍鷄, 얼린 닭) 두 마리
남초(南草, 담배) 두 근
중포(中脯, 말린 고기) 한 접(貼)

다시 생각해 보니, 형님들께서는 연말에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시길 터이니, 동계(凍鷄)는 오래 보관하기 어려울까 하여 대신 석어(石魚, 조기) 일속(一束)을 보냅니다. 영남 지역 여러 선비들 중, 누가 성균관에 계시고 누가 고향에 계신지 알지 못해 일일이 안부를 묻지 못했습니다. 만약 저를 아시는데 빠진 분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¹⁵⁾

피봉에는 수신자가 ‘유주서(柳注書) 기실(記室)’로 되어 있다. 1798년 12월 4일 곡산부사 정약용이 주서 류이좌(柳台佐, 1763~1837)에게 보낸 편지이다. 류이좌는 류성룡의 8대손으로, <서증신영로>에서 언급된 대로 서울에서 관직에 있던 영남 인사들과 이웃처럼 왕래하던 인물 중 한 명일 것이다. 편지 말미에서 영남 문사들과의 지속적인 교유를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최근 필자는 『다저(茶著)』라는 소책자를 열람한 바 있다. '다산의 저술'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이 책자의 전반부에는 다산의 글로 보이는 <예론(禮論)>과 <악론(樂論)>이 수록되어 있고, 뒤쪽에는 <여유당집총목(與猶堂集總目)>이라는 제목 아래 다산의 저술 33종이 권수(卷數)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경집(經集) 200권, 잡저(雜著) 110권으로, 다산 자신이 <자찬묘지명>(광증본)에서 언급한 500권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한 분량이다. 이는 유배기 중에 작성된 목록임을 시사한다. 이미 '여유당집'으로 문집의 제목을 확정하고, 경집과 잡저로 구분하여 정리했던 단계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목민심서』가 9권, 『살옥발미(殺獄跋尾)』가 3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다산이 한익상에게 보낸 편지를 발굴하여 『목민심서』 초고본이

15) 伏惟起居安衛.今年三試劃數何如.歲暮山中,懷仰良深.弟,優游誠自幸.惟觚稜之戀難堪耳.堂後供劇,近復何如.近作遐鄉野人,音塵漠然,誠可泄泄耳.萬萬都略,姑不備,伏惟尊照.戊午十二月四日.友弟 若鏞 頓.凍鷄二首,南草二斤,中脯一貼,更思之,兄輩歲時必往本鄉,凍鷄難久,故代送石魚一束耳.嶺南諸公,未知孰在泮孰在鄉,不能遍問,如有知我而漏落者,詳示如何.

다산(茶山)의 목민(牧民) 사상과 영남(嶺南) 남인(南人)에 대한 토론문

이철희(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1818년에 40권으로 완성되었고, 3년 뒤인 1821년에 48권으로 탈고했음을 밝혀낸 바 있다.¹⁶⁾ 그런데 『다저』의 기록을 통해 초기 『목민심서』가 9권으로 완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지속적인 보완과 증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8권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또한 『흠흠신서』는 아직 저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대신 『살옥발미』 3권이 정리되어 있다. 이는 훗날 『흠흠신서』로 발전·확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두 저작은 목민관에 대한 다산의 사상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텍스트로,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저작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관직의 대부분을 지방관으로 역임한 부친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다산은 누구보다도 목민(牧民)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목민서(牧民書)의 편찬과 간행에 앞장섰던 영남 남인들의 학문적 전통 역시 다산에게 계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사상이 단순한 개인적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부친 정재원의 목민관 실천 경험과 영남 남인 학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그리고 영남 지역 고유의 목민서 편찬 전통이 결합된 결과물임을 실증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정재원이 울산부사와 진주목사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지방행정 경험과 영남 남인 지식인들과 맺은 학문적·인맥적 연결은 다산의 목민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토대를 제공하였다. 다산은 부친을 따라다니며 목민관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이후 곡산부사로 재직하며 이를 직접 검증하였다. 나아가 『청송지남』, 『임관정요』, 『선각』 등 영남 남인들이 편찬·유포한 목민서들의 내용과 정신이 『목민심서』의 저변에 흐르고 있으며, 다산 자신이 유배지에서도 영남 학인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며 자신의 저술이 그들에게 계승되기를 간절히 염원한 사실은, 이 연원 관계가 단순한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평생 지속된 학문적 공감대였음을 보여준다. 기존 다산 연구가 유배기 이후의 저술과 사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본고는 그의 학문적 연원과 유배 이전 활동을 부각시킴으로써 다산 실학의 다층적 기원을 조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다산 사상을 단일한 '실학의 집대성'으로 환원하기보다, 조선 후기 남인 학맥의 실천적 전통과 지방행정 경험이 어떻게 한 사상의 핵심으로 재편되는지를 추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정재원 교류 관계의 체계적 정리, 영남 목민서와 『목민심서』의 비교 분석, 그리고 다산의 유배기 교류망에 대한 심화 연구가 병행된다면, 다산 목민사상의 역사적 위상과 조선 후기 지방 지식인의 학문 네트워크를 더욱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산의 목민사상은 부친의 가르침과 영남 남인의 학문적 유산이 만나 조선 후기 민본 정치의 실천적 지혜로 승화된 결과로 오늘날에도 역사적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발표자는 다산 목민 사상의 한 연원이 정재원의 목민 현장에 있으며, 이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재원과 다산의 영남 남인과의 교류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재원이 울산부사와 진주목사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지방행정 경험과 그가 교류한 영남 남인들의 목민서 편찬과 간행의 학문적 전통이 다산의 목민 사상 형성에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곳이 있다.

첫째, 정재원이 울산부사와 진주목사 등 영남의 지방관으로 있을 때 회재 이언적 후손가와 병와 이형상 후손가, 이근오 등과 왕래한 편지를 통하여 영남 문사와 깊은 교류를 나누었고, 이 인맥이 다산에게 이어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언적 후손가와 이근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산송(山訟)이나 송사(訟事)에 관한 청탁이 포함되어 있는 등 지방관과 관내 유력 사족과의 통상적 유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혹 학문적 연계를 논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이 있는가.

또 다산이 신영로에게 써준 글[書贈申永老]에서 부친의 영남 지방관 부임으로 “내가 영남 지방을 여러 차례 두루 다니게 되었고,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지내는 여가에 선생과 어른들을 모시고 즐거이 어울리며 가르침을 받았으며, 경학을 공부하는 선비들과도 친교를 맺는 이들이 많았다. 간혹 벼슬살이로 서울에 있는 이들과도 이웃처럼 서로 왕래하였다.(屢及嶺南, 省定之暇, 得與先生長者, 陪歡奉教, 而經生學子, 亦多與之友善者, 其或宦遊經輦者, 相往返如鄰里.)”라고 하여 영남 인사들과의 교류가 있었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봉교(奉教)’, ‘우선(友善)’, ‘왕래(往來)’라 표현한 내용이 통상적 친교를 넘어 어떤 유의미한 유대관계로 이어진 교류인물이 존재하며, 다산과 직접 주고받은 글이 있는가?

둘째, 『목민심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거론한 『청송지남』, 『임관정요』, 『선각』 등은 영남 지방에서 간행된 것이지, “영남 남인들이 편찬·유포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즉 『청송지남』은 이기지(李聖基)가 삼척부사로 간행한 것이지, 이기지를 영남 남인이라 할 수 있는가?

셋째, 다산이 신영로에게 써준 글[書贈申永老]에서 “훗날 흑시 이 몇 권의 책을 들고 영남으로 오는 이가 있거든, 바라건대 여러 군자께서는 하늘같이 넓은 도량과 후덕함으로 저를 탓하여 책을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 거두시기를...(他年或有以是數種書携至嶺南者, 望諸君子, 穹量厚德, 勿以人廢之, 受焉收之.)”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저술을 영남 학인들이 거두어주기를 바라는 문구에서는 영남에 대한 다산의 깊은 애정과 학문적 유대감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관권에 대한 사족의 영향력이 강하고, 출간이 용이한 현실적 여건에 의한 것으로, 그 실제적 의미는 영남에서 출간되기를 희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16) 박철상, 「신자료 『鮮菴叢書』의 발굴과 『牧民心書』 저술 과정의 검토」, 『한국한문학회』50호, 한국한문학회, 2012.

정약용의 사유 속 이벽의 음영: 심성과 공부의 지평에서

조현웅(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1. 들어가는 말

1784년 여름, 23세의 청년이었던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게 8세 연상의 벗[友人] 광암(曠菴) 이벽(李穡, 1754-1785)과의 대화는 두 가지 의미에서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 하나는 조선 천주교회의 실질적 설계자인 이벽에게 4월 15일 처음으로 서교(西敎)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경이를 느껴 이를 계기로 한동안 서학에 잠심하게 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4월 26일 유생 전강(殿講)에서 정조(正祖, 재위 1776-1800)가 내린 『중용(中庸)』 조문에 대하여 이벽에게 도움을 청하여 함께 답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철학적 사유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이다.¹⁾ 선행연구에서 고증된 바에 의하면, 이벽은 정약용과 강론한 이듬해인 1785년 부친의 집에서 박해 끝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서거 이후에도 문무를 겸비한 총명한 인물로 거론될 만큼 학식이 높았고, 또 성품이 단아했던 사람으로 유명했다.²⁾ 또한 정약용의 기억 속 이벽은 고고한 선학(仙鶴)과 같은 이미지였고, 30년이 지나도록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추억되는 인격이었다.³⁾ 정약용은 이벽 사후에도 그를 의식하며 노년에 이르도록 자신의 사유를 단련하였다.

이벽은 한국 초기 천주교회사의 주요 인물로서 교계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조명받았지만, 그의 것으로 인정되는 저술이 부재한 관계로 본격적인 철학적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⁴⁾ 현재로서 이벽의 철학적 사유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정약용의 글 안에 흐르는 그의 음영뿐인 듯하다. 그러나 정약용의 사유의 발전 도상에서 이벽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음영으로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유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정약용의 사유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⁵⁾

53세의 유배객 정약용은 『중용』 해석 안에서 이벽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1) 조성을, 『年譜로 본 茶山 丁若鏞 : 살살이 파헤친 그의 삶』, 지식산업사, 2016, 94-97쪽 참조. 조성은 정약용과 이벽의 토론이 4월 하순부터 답안을 제출한 6월 17일까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중용』 서두의 '천명' 해석을 감안하면 이 과정에서 서학 문제에 관련된 토론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 2) 이벽의 죽음과 당시 인물평에 관해서는 서종태, 「이벽(李穡)의 서학 탐구와 천주교 수용 과정 및 복음 전파 전략」, 『교회사학』 25, 2024, 15쪽, 36쪽 인용문(주석 72번), 39쪽 인용문(주석 75번), 49쪽(주석 101번) 참조.
- 3) 『茶山詩文集』 권1 詩, 「友人李德操輓詞」, 仙鶴下人間, 軒然見風神. 羽翮皎如雪, 雞鷺生嫌嗔. 鳴聲動九霄, 嘹亮出風塵. 乘秋忽飛去, 悵悵空勞人. ; 『中庸講義補』, 「序」. 今雲遊已邈, 玉音永闕, 既質問無處, 而上計曠菴討論之歲, 亦已三十年矣. …… 一存一亡, 何嗟及矣. 不禁撫卷而流涕也.
- 4) 이벽의 유일한 저술로 알려져 있던 『성교요지(聖敎要旨)』는 최근 후대의 중국어 학습 교재를 베낀 위작으로 판명되었다. 윤민구, 『초기 한국천주교회사의 쟁점 연구-성교요지/십계명가/만천유교/이벽전/유한당 언행실록은 사기다-』, 국학자료원, 2014; 김현우·김석주, 「이벽의 〈성교요지〉(聖敎要旨)는 위조문헌인가」, 『기독교사상』 729, 2019; 황재범, 「『성교요지』(聖敎要旨)의 원본 마틴 선교사의 『쌍천자문』(雙千字文) 연구」, 『신학사상』 190, 2020; 정민,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 『성교요지』와 《상자쌍천》, 김영사, 2022 참조.
- 5) 물론 본 논문은 이벽의 철학의 본 모습을 복원하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약용 안에서 '음영'의 형태로 남은, 정약용이 기억하고 인용하고 재독해한 이벽의 사유의 자취를 추적함으로써 청장년기의 정약용의 사유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두 사람의 철학이 갖는 관계의 실재를 규명하는 작업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시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옛날 건륭 갑진년 여름, 먼저 세상을 떠난 벗 광암 이덕조가 나와 함께 『중용』의 대의를 논하였는데, 이제 30년이 되었다. 만일 광암이 오늘날의 내 논의를 들을 수 있다면 분명 확실히 합치했을 것이다. 구원(九原)에서 다시 일어나기 어려우니 한탄한들 무엇하랴.⁶⁾

만일 광암이 아직 살아 있다면, 그가 덕으로 나아가고 배움을 넓은 바가 어찌 나와 견줄 수 있었겠는가! 새로운 의견과 옛 의견을 함께 보면 (그가) 반드시 이해하였을 터이런만,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갔으니 한탄한들 무엇하랴.⁷⁾

지금 이벽이 살아 있다면 “새로운 의견과 옛 의견을 함께 보아[合觀新舊]” 분명히 “나의 오늘의 의론[余今日之論]”에 합치했을 것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23세 때의 이벽과의 『중용』 담론으로부터 시작하여 30년이 지나, 그의 옛 의견을 포섭하면서도 스스로 더욱 높은 차원의 해석에 도달하였다는 자부감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의 철학적 사유의 변화의 중심에 이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글 곳곳에서 정약용은 이벽의 언설을 직접 인용하거나 자신의 생각이 이벽의 의견에 기반하였음을 표시해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점들을 참고하여, 정약용의 철학적 사유의 심층에서 작동하는 이벽과의 철학적 담론과 변증의 자취를 주로 심성론과 공부론의 지평에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중용』 답문: 율곡설의 지지와 이벽과의 대립

정약용이 이벽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중용』 답문은 정조의 눈에 들어 여러 유생들 가운데 1등으로 선정되었다.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성상께서) 『중용강의(中庸講義)』 80여 조를 내리셨다. 이때 나는 벗 이벽이 박아(博雅, 학식이 깊고 품행이 단정)하기로 이름이 났으므로 함께 의논하여 조대(條對)하였는데, 이발(理發)·기발(氣發)에 대하여 벽은 퇴계(退溪)의 설을 주장하였지만, 내가 대답한 바는 마침 율곡(栗谷) 이문성공(李文成公)과 맞았다. 성상께서 읽고서 자주 칭찬하여 제일로 삼았다.⁸⁾

당시 정계와 학계의 주류였던 노론이 따랐던 율곡의 ‘기발리승일도설’에 따라 답안을 작성한 23세의 정약용은, 당시 퇴계의 호발설을 지지한 31세의 이벽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다. 여기서 정약용은 자신의 답안이 1등이 된 이유가 이벽과 대립하는 이 지점에 있다고 말하고

6) 『中庸自箴』 1. 昔在乾隆甲辰之夏, 亡友曠菴 李德操, 與余論《中庸》大義, …… 今三十年矣. 若使曠菴得聞余今日之論, 必擘然相入矣. 九原難作, 何嗟及矣.
7) 『中庸講義補』, 「序」, 使曠菴而尚存, 其進德博學, 豈余比哉! 合觀新舊, 其必犁然, 一存一亡, 何嗟及矣.
8) 『文集』 권16,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집중본). …… 內降《中庸講義》八十餘條. 時鏞友李槩, 以博雅名, 與議條對, 理發、氣發, 槩主退溪之說, 鏞所對偶與栗谷 李文成【珥】所論合. 上覽訖亟稱之, 爲第一.

있다. 『중용강의보』의 서문에서는 이를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

이 때 망우(亡友) 광암 이벽이 수표교에서 독서 중이었기에(당시 31세), 나아가 답하는 방법을 물었더니 광암이 기꺼이 토론해주어 함께 답안을 초창하였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간혹 이치가 소탈하고 글이 위축된 데가 있어 내 뜻대로 산윤(刪潤)하여 마침내 성상께 올렸다. 며칠 뒤, 도승지 김상집이 승지 홍인호에게 말하기를 “정용은 누구이고 그의 문학(文學)은 어떠한가. 오늘 경연에서 성상이 말씀하시기를 ‘성균관 유생들의 조대(條對)가 모두 거친데 오직 용이 답한 것이 특이하다’고 하셨으니, 그는 반드시 견식 있는 선비이리라.”라 하였다. 아마 동유(율곡)의 리발기발론으로 답하여, 나의 답안이 성심(聖心)에 계합한 바 있었던 것이니, 다른 이유는 없었다.⁹⁾

정약용은 일관적으로 자신의 조대가 정조의 인정을 받은 이유가 율곡의 설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벽의 의견과 대립하는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당시 이름난 선비였던 이벽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여 함께 초안을 작성하였지만[相與草創], 리발기발론에서 둘의 차이는 분명했기에 돌아와서 자신의 뜻에 맞게 공동 초안¹⁰⁾을 수정하여[以意刪潤] 제출하였고, 그 수정한 부분이 왕의 눈에 들었다는 것이다.

이 지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율곡의 리발기발론을 지지한 답안이 유래한 정조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동유(율곡)는 인심과 도심의 구별에 대해 “리와 기는 혼용하여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것은 리이다. 어찌 리발과 기발의 다름이 있겠는가? 다만 도심(道心)은 비록 기와 분리되지는 않지만 그 발함이 도의(道義)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명(性命)에 속하고, 인심(人心)도 비록 리에 근본하고 있지만 그 발함이 구체(口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기(形氣)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발하게 한다’, ‘발한다’ 등등의 말은 대개 리가 있기 때문에 발하고, 기가 없으면 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와 기는 원래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이에 따르면 결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설(퇴계)에 사단(四端)은 리발, 칠정(七情)은 기발에 소속시키는 것은 어째서인가? 확실한 논의를 듣고자 한다.¹¹⁾

정조의 질문의 근거가 되는 리기의 혼용이라는 말은, 주자학적 사유 체계 내에서 보편적인

9) 『中庸講義補』, 「序」. 時亡友曠菴李槩在水橋讀書, 【時年三十一】 就問其所以對, 曠菴樂之爲談. 相與草創, 歸而視之, 間有理活而詞盛者, 以意刪潤, 遂徹睿覽. 後數日, 都承旨金尙集謂承旨洪仁浩曰: “丁鏞爲誰, 其文學何如. 今日筵論曰, ‘泮儒條對, 率皆荒蕪, 獨鏞所對特異.’ 其必有識之士也.” 蓋以東儒理發氣發之論, 余所對有契於聖心, 非有他也.

10) 정약용은 『중용강의보』 여러 곳에서 이벽의 글을 직간접 인용하고, 23세 때 제출한 답안 가운데 이벽의 글에 근거하여 작성했거나 이벽의 글을 그대로 쓴 부분에는 확실한 표시를 해두었다. 자신의 생각과 이벽의 생각을 구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엿보인다. 또 할주로 그의 글을 수정한 듯한 표시도 있는데,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약용이 1814년 『중용강의보』 저술 당시까지도 30년 전의 공동 초안, 즉 이벽의 『중용』 해석 노트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중용강의보』 故君子尊德性而道問學節. “李(德)操以‘德性’爲天德德, 其說有病, 今改之.” (수정중)

11) 『中庸講義補』 권1, 「朱子序」. 御問曰 東儒言人心、道心之別【東儒即栗谷】曰: “理氣渾融, 元不相離. 發之者, 氣也. 所以發者, 理也. 安有理發、氣發之殊乎?” 但道心雖不離乎氣, 而其發也爲道義, 故屬之性命. 人心雖亦本乎理, 而其發也爲口體, 故屬之形氣. 曰‘所以發’, 曰‘發之’云云, 蓋謂有是理, 故發也, 無是氣, 則不發也. 理氣之元不相離, 卽此可決. 然則一說‘以四端屬理發, 以七情屬氣發’者, 何也? 【卽退溪之說】 願聞的確之論.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주자학은 리의 주재성과 기의 자발성을 융합시키는 데서 성립하는 독특한 사유로서, 본체와 작용의 불가분성이 천지의 본모습임을 본체론을 통해 규정하고, 이것이 마음의 지각에서 현현하는 심성론을 통해 도덕의 자연적 근원과 출현을 설명하며, 기질로 인해 왜곡된 현실을 본모습으로 되돌리는 공부론을 통해 마음과 세계의 회복을 꾀하는 종합적 자연-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의 질문은 이 대전제와 기획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하면서도 낯선 관점, 조선 유학의 사단칠정론에 내재한 근본적 철학적 주제인 ‘자연에서 도덕의 출현’이라는 주제를 제기하고 있다. 리와 기의 혼용이라는 대전제는 체용론의 틀을 통해 천지의 조화와 순환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내적 도덕성과 성인의 이상을 같은 체용의 논리로 설명한다. 사실과 당위, 자연과 인위의 구분이 여기 본래적 차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희는 리와 기의 혼용과 자연-도덕의 연속성을 『중용혹문(中庸或問)』과 『대학혹문(大學或問)』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이 하늘이 되는 까닭은 충막(沖漠)하여 조짐이 없음에도 만 가지 리를 갖추어 구비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본체는 하나일 뿐이니, 애당초 어떤 사물도 섞여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하늘에는) 소리도, 냄새도, 사려도, 행위도 없으나 일원(一元)의 기가 춘하추동, 주야의 어둠과 밝음, 백천만년에 걸쳐 한 순간도 어긋남이 없으며, 드넓고 미미한 사물이나 크고 작은 사물, 나는 새와 물고기, 동식물들 또한 각기 성명(性命)의 바름을 얻어 태어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일찍이 한 터럭만큼의 어긋남도 있지 않았다. 이것이 천리(天理)가 진실하여 거짓되지 않은 까닭이다.¹²⁾

천도가 유행하여 (만물이) 생기고 자라나니, 천지 사이에서 소리와 형상, 질감을 갖는 모든 것들이 바로 ‘물(物)’이다. 이미 물이 생겼다면, 이것이 ‘이 물’이 된 원인으로서 각각 당연한 법칙을 갖게 되어 저절로 그칠 수 없다. 이는 모두 자연[天]의 품부를 받은 것이지 사람이 부여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우선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까운 것으로 말한다면, ‘마음’이라는 ‘물’은 몸을 실제로 주재하는 것이니, 그 체(體)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이요, 그 용(用)은 측은(惻隱)·수오(羞惡)·공경(恭敬)·시비(是非)의 정(情)이다. (마음은) 몸 속에 혼연히 잠재해 있다가 외부의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데, 각 상황마다 (마음이) 주재하여 혼란스러워지지 않게 한다. …… 그 가장 큰 것으로는 천지의 운행과 역사의 변전도 (내 몸의) 바깥이라 할 수 없고, 가장 작은 것으로는 먼지 한 톨의 미세함과 한 숨 호흡의 순간도 (내 몸에서) 빠뜨릴 수 없다.¹³⁾

주자학의 자연은 ‘자연물’의 잡다한 집합이 아니라 본체의 작용이자 그 생성 과정 전체로서 언제나 이미 거기 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낯선 사유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12) 『중용혹문』 20장. 一則純，二則雜。純則誠，雜則妄。此常物之大情也。夫天之所以爲天也，沖漠無朕，而萬理兼該，無所不具。然其爲體，則一而已矣，未始有物以雜之也。是以無聲·無臭·無思·無爲，而一元之氣，春秋冬夏，晝夜昏明，百千萬年，未嘗有一息之繆。天下之物，洪纖·巨細·飛潛·動植，亦莫不各得其性命之正以生，而未嘗有一毫之差。此天理之所以爲實而不妄者也。

13) 『대학혹문』 전5장. 天道流行，造化發育，凡有聲色貌象而盈於天地之間者，皆物也。既有是物，則其所以爲是物者，莫不各有當然之則而自不容已。是皆得於天之所賦而非人之所能爲也。今且以其至切而近者言之，則心之爲物，實主於身，其體則有仁義禮智之性，其用則有惻隱羞惡恭敬是非之情。渾然在中，隨感而應，各有攸主而不可亂也。次而及於身之所具，則有口鼻耳目四肢之用。又次而及於身之所接，則有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之常。(...) 極其大，則天地之運，古今之變，不能外也。盡於小，則一塵之微，一息之頃，不能遺也。

먼저 익숙해지지 않으면, 주희의 조직된 언설들은 무질서한 자연물들의 집합과 같이 혼란스러운 문자들로 비칠 뿐일 것이다. 정조의 질문은 바로 이 전제 위에서, 즉 자연에서 도덕의 발현이라는 낯선 사유 위에서, 그 발현의 현실적 부조화를 설명하는 두 가지 상반되는 리-기 관계론을, 인심-도심과 사단-칠정의 심성론적 영역 안에서 제기하고 있다. 정조가 보기에 주자학적 자연(체용)의 전제에서 리와 기는 혼용하여 서로 분리될 수 없으므로, 울곡의 말처럼 발하는 것은 언제나 기의 자발성이고 리는 그 배후에서 기가 발하게 만드는 소이연이라고 보는 것이 큰 틀에서의 정론임에도, 그와 어긋나는 듯한 퇴계의 리발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약용의 대답은 울곡이 포착한 주자학적 체용의 대전제를 따른 것이다.

신은 ‘사단’을 ‘리발’에, ‘칠정’을 ‘기발’에 배속시키는 설에 대하여 이전부터 의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분분한 설에 빠지지 않고, 초연히 앉아 공정하게 관찰하면 혹 쉽게 변파될 것입니다. 대개 기는 ‘자체로 존재하는 것[自有之物]이고, 리는 ‘붙어 있는 것[依附之品]이니, 붙어 있는 것은 반드시 자체로 있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가 발함이 있으면 곧 리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발이리승지(氣發而理乘之)’는 옳지만, ‘리발이기승지(理發而氣隨之)’는 불가합니다. 어째서입니까? 리는 자체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기보다) 먼저 발하는 도는 없습니다. 아직 발하기 전에는 비록 먼저 리가 있지만, 막 발하려고 할 때에는 기가 반드시 앞서 있습니다. 동유가 말한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것은 리이다’라는 설은 참되고 확실하니,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신은 망령되이 생각건대, 사단과 칠정은 한 마디로 말해 ‘기발이리승지’이므로 (둘을) 리와 기에 분속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비단 사단과 칠정뿐만이 아니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의 무성함과, 한 마리의 새와 한 마리의 짐승이 날고 달리는 것도 ‘기발이리승지’가 아님이 없습니다.¹⁴⁾

사단과 칠정의 도덕정감을 동식물의 생태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정약용의 언설은 주자학적 기획을 ‘기발리승일도설’의 울곡적 테제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당대 논론의 주류적 사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조가 이를 ‘특이’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답안의 전제가 되는 전반부의 “기는 자체로 존재하는 것[自有之物]이고, 리는 붙어 있는 것[依附之品]”이라는 리-기 관계의 독특한 규정 방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는 초기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중국명 利瑪竇, 1552-1610)의 유명한 저술 『천주실의(天主實義)』 제2편에 나오는 ‘자립자’(自立者)와 ‘의뢰자’(依賴者)라는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이벽이 4월 15일 배 안에서 소개한 서학서의 표현을 6월 이전 『중용』 답안을 작성할 때 활용했다는 것은 당시 정약용과 이벽 사이의 대화가 『중용』 해석과 『천주실의』의 독서를 병행하며 심도 있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욱이 『천주실의』의 해당 표현을, 그 책을 소개한 장본인인 이벽의 입장에 반하는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 두 청년 사이에 이루어진 토론이 매우 진지했다는 점과 청년 정약용의 자득적 학문 지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14) 『中庸講義補』 권1, 「朱子序」. ○臣對曰 臣於四端屬理發，七情屬氣發之說，有宿疑焉。若不汨沒於紛紜之說，超坐而公觀之，則或易辨破。蓋氣是自有之物，理是依附之品，而依附者必依於自有者，故纔有氣發，便是是理。然則謂之‘氣發而理乘之’可，謂之‘理發而氣隨之’不可。何者？理非自植者，故無先發之道也。未發之前，雖先有理，方其發也，氣必先之。東儒所云‘發之者氣也，所以發者理也’之說，眞眞確確，誰得以易之乎？臣妄以謂四端·七情，一言以蔽之曰‘氣發而理乘之’，不必分屬於理氣也。不但四·七，卽一草一木之榮鬱，一鳥一獸之飛走，莫非氣發而理乘之也。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약용의 ‘자유지물’과 ‘의뢰지품’은 마테오 리치의 신학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상기한 주자학의 리-기 혼용의 존재론을 설명하기 위해 전용되었다는 것이다. 마테오 리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사물의 범주는 둘이니, 자립자(自立者)가 있고 의뢰자(依賴者)가 있습니다. 다른 개체에 의지하지 않는 사물로서 스스로 성립하는 것으로는 천지(天地), 귀신(鬼神), 사람, 금수(禽獸), 초목(草木), 금석(金石), 사행(四行) 등이 있으며, 이것은 자립자의 부류에 속합니다. 스스로 성립할 수 없는 사물로서 다른 개체에 의탁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오상(五常), 오색(五色), 오음(五音), 오미(五味), 칠정(七情) 등이 있으며, 이것은 의뢰자의 부류에 속합니다. …… 대개 ‘리’ 역시 의뢰자의 부류로 스스로 설 수 없으니, 어찌 다른 사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¹⁵⁾

자립자와 의뢰자는 각각 ‘실체(substance)’와 ‘속성(accident)’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의 주요 어휘가 아퀴나스 신학 안으로 변용된 개념이 다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실체는 ‘자기 안에 존재하는 것이자 다른 것 안에 있지 않고 스스로 존립하는 것’¹⁶⁾으로, 주자학적 본체와 같은 작용과 불가분의 혼용 상태와 정반대로 불가합(不可合)의 자존적(subsisting) 상태로 규정된다. 반대로 속성은 그러한 실체에 부속된 것으로, 리치는 ‘리’를 여기에 배속시킴으로써 ‘다른 사물을 세울 수 없는’ 위상으로 격하시켰다. 물론 이는 ‘리’ 개념에 대한 오해이지만, 동시에 천주만이 유일한 만물의 본원이라는 결론을 세우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결국 ‘속성’에 대한 ‘실체’의 가치론적 우위를 상정하고 리가 속성임을 논하여 존재론을 실체들의 위계에 관한 담론으로 전환하고, 그 위계의 꼭대기에 천주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리치의 전략인 것이다.

정약용은 이 ‘자립자’와 ‘의뢰자’를 리치와 다른 맥락에서, 그리고 아마 이벽의 이해와도 다른 맥락에서, 기발리승일도설의 논거로 전용한 것이다. 정약용이 말하는 ‘자유지물’이라는 표현은 리치의 ‘자립자’ 즉 실체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자연과 도덕을 포괄하는 주자학적 대전제 안에서 기의 자발성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 ‘자발’적인 것은 리가 아닌 기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리치는 『천주실의』 제4편에서 ‘기’ 개념이 사원소 가운데 ‘공기’일 뿐이고, 그렇기에 귀신과 영혼을 기라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는데,¹⁷⁾ 이러한 언설을 통하여 볼 때 리치가 자립자(실체)로서 기 개념을 사유했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¹⁸⁾ 정약용

15) 『천주실의』 第二篇. 夫物之宗品有二：有自立者，有依賴者。物之不特別體以爲物，而自能成立，如天地、鬼神、人、鳥獸、草木、金石、四行等是也，斯屬自立之品者；物之不能立，而托他體以爲其物，如五常、五色、五音、五味、七情等是也，斯屬依賴之品者。…… 蓋理亦依賴之類，自不能立，曷他物哉？

16) subsistere, quasi per se et non in alio existens (Aquinas, *De potentia*, q.9, a.1, c.). 張逸婧, 「利瑪竇等耶穌會士對「自立體」概念的翻譯和闡釋」, 『哲學與文化』, 47-12기, 2020, 50쪽에서 재인용. 장일정은 『천주실의』에서 자립자를 설명하는 리치의 말 “物之不特別體以爲物，而自能成立”이 아퀴나스의 이 말의 직접 번역이라고 하고, 예수회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체가 아닌 중세 스콜라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속한다고 구분짓고 있다.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ousia) 개념과 아퀴나스의 실체(substantia) 개념의 초점 차이를 설명한 다음 논문도 참조. Zhang, Yijing, and Thierry Meynard. “The Jesuit Longobardo’s Interpretation of the Neo-Confucian Concepts of li and qi.” *Religions* 16, 2025, 6쪽. 이들 연구에 따르면 리치의 ‘자립자’와 ‘의뢰자’를 아퀴나스적 변용을 간과한 채 곧바로 아리스토텔레스적 범주론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17) 『천주실의』 第四篇. 氣非生活之本也. 傳云：“差毫釐，謬千里.” 未知氣爲四行之一. 而同之于鬼神及靈魂. 亦不足怪. 若知氣爲一行，則不難說其體用矣.

18) 리치의 리-기 개념에 대하여 안종수, 「마테오 리치의 리기관(理氣觀)」, 『철학논총』 60, 2010 참조.

이 이벽과 함께 『천주실의』를 열독하였다고 전제한다면, 우리는 그의 ‘자유지물’-‘의부지품’이 리치의 ‘자립자’-‘의뢰자’의 논리가 아닌 표현상의 편의만을 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⁹⁾

정약용은 이 답안의 뒷부분에 이벽의 노트를 직접 인용하였다.

이덕조가 말하길, “만약 리와 기의 원 뜻에 나아가 보편적으로 논한다면[公論] 이 설(율곡)이 참으로 옳지만, 만약 성리가가 말한 예시들에 나아가 개별적으로 논한다면[剖論] 리는 다만 도심이요, 기는 다만 인심이다. 마음이 성령(性靈)으로부터 발한 것을 리발이라 하고, 마음이 육신(形軀)으로부터 발한 것은 기발이라 한다. 이로부터 말한다면 퇴계의 설이 매우 정미하고, 율곡의 설은 따를 수 없다.”라 하고 내가 이 논의를 잘못 주장하였다고 비판하였으니, 건륭 갑진년(1784)의 일이었다. 가경 신유년(1801) 여름 나는 장기 적소에 있으면서 「리발기발변」을 지어 이 의리를 변설하였다.²⁰⁾

이벽이 퇴계의 설을 지지한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는 율곡보다는 퇴계의 설이 더 적실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자학에서 평범한 인간의 마음은 세계의 본원적 조화와 일치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언제나 ‘기질’의 장애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 이는 외부 세계의 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식의 장애로도 나타나고, 마음의 진실성[誠]이 쪼개어지는 자기 기만이라는 심리적 장애로도 나타난다. 이는 분명 리와 기의 혼용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절과 분열의 상황이다. 기질로 인한 인간 마음의 현실태를 리와 기의 관계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율곡의 일도설보다는 퇴계의 호발설을 통해 더욱 세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이벽은 본 것이다. 『중용장구』 서문의 도심과 인심에 대한 표현을 약간 변형하여, “마음이 성령(性靈)으로부터 발한 것을 리발이라 하고, 마음이 육신[形軀]으로부터 발한 것은 기발이라 한다”고 한 부분은 정약용의 답안과는 다르게 정조의 질문 속 키워드인 인심-도심의 구분을 살려서 기발-리발로 등치시킨 것으로, 리치의 ‘의부지품’으로서의 리 개념과 비교하면 오히려 ‘리발’을 인정하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도 할 수 있다.

『중용』 조대의 작성은 이벽과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던 사건이었고, 그 과정에서 서학서에 대한 세미나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벽의 서거 이후 정약용은 그의 고고한 인품을 그리워하고 대립했던 입장을 되새기면서, 퇴계의 삶과 철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의 길로 나아간다.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 위의 인용문에 언급된 두 편의 「리발기발변」이

이 연구에서는 리치가 기를 사행 중 하나인 ‘공기’로 규정할 뿐, 리보다 훨씬 덜 주목했음을 지적한다. 또 다른 연구는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의 기 개념이 가진 생명력과 자발성이 외부의 원인을 필요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만물의 공통 근거를 설명해주는 신유학의 이론적 축이라는 점에서 리치는 기 개념의 생명성과 자발성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고자 했다고 보았다. 김선희, 『마테오 리치와 주희, 그리고 정약용』, 심산, 2012, 266쪽.

19) 이러한 표현의 유사성으로 인해 정약용이 리치의 자립자-의뢰자의 표현에 내재한 실체-속성의 아리스토텔레스적 범주론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선행연구의 시각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정약용이 이러한 표현을 활용한 철학적 배경이나 리치가 ‘기’ 개념을 다루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리치가 ‘리’를 의뢰자로 보았기 때문에 응당 ‘기’를 자립자로 보았으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천주실의』 본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김상현, 「이황·이이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정약용의 관점」, 『철학연구』 127, 2013, 31쪽.

20) 『中庸講義補』 권1, 「朱子序」. ○李德操曰：“若就理字、氣字之原義而公論之，則此說固近之。若就性理家所言之例而剖論之，則理只是道心，氣只是人心。心之自性靈而發者爲理發，心之自形軀而發者爲氣發。由是言之，退溪之說甚精微，栗谷之說不可從。” 謂余錯主此論，此乾隆甲辰事也。嘉慶辛酉夏，余在長鬢謫中，作〈理發氣發辨〉，以辨斯義。

다. 우선 그 이전의 글인 「서암강학기」와 「도산사속록」을 검토하고, 「리발기발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서암강학기」, 그리고 「도산사속록」: 퇴계의 병립과 정존-동찰의 이해

1795년(정조 19) 주문모 신부 입국 이후의 천주교 연루 의혹과 그에 따른 정치적 압박 속에서 34세의 정약용은 충청도 금정역(金井驛)의 찰방(察訪)으로 좌천되었는데, 이 시기 그는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종손(從孫) 목재(木齋) 이삼환(李森煥)에게 청해 내포 지역 기호남인계 학인들과 온양 서암의 봉곡사에서 이익을 추모하는 강학회를 열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서암강학기」로 남겼다. 이 기록 속에서 참석자 중 하나인 오국진(吳國鎭)이 사단칠정을 주제로 꺼내자, 이삼환은 퇴계의 설을 강하게 지지하며 “울곡의 기발설(氣發說)은 견해가 너무 치우쳐서 사단도 기발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리와 기의 주·객이 서로 바뀌어서 마음이 성정(性情)을 통솔할 수 없는 것이 된다”고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었다. 정약용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의 리발기발론을 정돈한다. 1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퇴계와 울곡 이후로 사단·칠정에 관한 논란이 이미 큰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는 진실로 저와 같은 후생 말학(後生末學)으로서 감히 말할 수 있는 바는 아니나, 두 분의 글을 모아서 반복해 참고해 보면, 그 분들이 말씀한 리나 기가 글자의 모양은 같지만 글자의 뜻은 서로 판이하게 다릅니다.

퇴계가 논한 리와 기는 오로지 우리 인간의 성정(性情)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므로, 퇴계가 말한 리는 도심(道心)으로 바로 천리(天理)와 성령(性靈)에 해당하고 기는 인심(人心)으로 바로 인욕(人慾)과 혈기(血氣)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리발기수(理發氣隨)라 하고 칠정을 기발리승(氣發理乘)이라 하였습니다. 대개 마음이 발하는 바가 천리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바로 본연지성(本然之性)의 감발(感發)이고, 인욕이나 혈기로부터 오는 것은 바로 기질지성(氣質之性)의 촉발(觸發)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울곡이 논한 리와 기는 천지만물을 총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울곡이 말한 리는 무형(無形)으로 사물의 소유연(所由然)이고, 기는 유형(有形)으로 사물의 체질(體質)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칠정으로부터 천하의 만물에 이르기까지 기발이승(氣發理乘)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사물이 발동할 수 있는 것은 그 형질(形質)이 있기 때문인데, 이 형질이 없으면 아무리 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발동을 할 수가 없으므로 미발지전(未發之前)에 비록 리가 먼저 있다 하더라도 그 발할 때에는 기가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울곡은 이러한 생각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계와 울곡이 바로 사단·칠정에 대하여 함께 논하였고 이기에 대하여 함께 말하였지만, 그 이기라는 두 글자의 주각(注脚)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울곡의 문집에 대해 비록 이와 같이 들어서 말한 곳은 없으나, 그 본 뜻은 반드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기의 글자 뜻을 이미 서로 달랐던 것이라면 울곡의 주장은 울곡대로의 논설이며 퇴계의 주장은 퇴계대로의 논설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비득실을 따져 귀일(歸一)시킬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²¹⁾

21) 『문집』 권21 「서암강학기(西巖講學記)」. “退溪、栗谷以後，四七已成大訟。固非後生末學所敢容喙，然嘗取兩家文字，反復參驗，則其云‘理’字‘氣’字，字形雖同，字義判異。蓋退溪所論理氣，專就吾人性

정약용은 강장(講長) 이삼환의 의견에 반대하여, 퇴계와 울곡이 말하는 리와 기 개념이 각기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어 시비를 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가 보기에 두 사람은 같은 ‘리’를 논하면서도 퇴계는 인간의 성정(性情) 차원에서 도심-천리-성령의 측면만을 가리키고, 울곡은 천지 내 사물(物)의 차원에서 무형한 근원(所由然)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같은 ‘기’를 논하면서도 퇴계는 인심-인욕-혈기를, 울곡은 유형한 체질(體質)을 가리키고 있다. 『중용강의보』에서 인용한 이벽의 ‘공론’과 ‘부론’의 구분, 그리고 퇴계 리발기발설에서의 ‘성령’과 ‘형구’의 구분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4세의 정약용은 이미 주자학의 리기론 체계 안에서 이벽의 퇴계설 지지가 자신의 울곡설 지지와 모순적 관계가 아님을 자각하고 있었고, 그 점에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도 이벽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였던 듯하다.²²⁾

여기서 우리는 리기론 내에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본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논했듯이 주자학적 자연(체용)의 구조는 언제나 리와 기의 혼용을 본래적 상태로서 전제하고, 도덕은 그러한 본래적 자연성으로부터 발현하는 내적 동력의 의미를 띤다. 울곡이 이 사유의 전체상을 기발설로 그렸다. 그러나 주자학은 언제나 이러한 본원성을 기술한 뒤에 반드시 현실의 불안정성을 인간의 생래적 ‘기질’의 편폐라는 형태로 기술한다. 여기에 주자학적 ‘공부’가 가능해지는 자연과 도덕 사이의 근본적 균열이 있다.

(개체들에게는) 기질의 청탁(淸濁)·편정(偏正)과 물욕의 천심(淺深)·후박(厚薄)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인간과 사물, 현자와 우매한 자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같다고 할 수가 없다. 리가 같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한 사람의 마음이 천하 만물의 리를 모두 알 수 있지만, 기품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혹 궁구하지 못하는 리가 있게 된다.²³⁾

대저 사람과 만물이 태어날 때, 성명의 바름은 본래 천리의 진실함이 아님이 없지만, 기질의 치우침과 이목구비 및 사지의 욕구에 가려지면 사욕이 생겨난다. 이 때문에 측은(惻隱)의 마음이 발할 때 해치려는 마음이 뒤섞이면, 인을 행하려는 동기에 진실하지 못함이 있게 된다. 수오(羞惡)의 마음이 발할 때 탐욕과 혼매함이 뒤섞이면, 의를 행하려는 동기에 진실하지 못함이 있게 된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 비록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면서도 내외의 은미함과 드러남에 있어 언제나 불일치를 면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심한 경우에는 남을 속이고 기망하여 끝내 소인의 길로 타락하는 데 이르니, 그것은 바로 두 가지가

情上立說，理者，道心也，天理分上也，性靈邊也，氣者，人心也，人慾分上也，血氣邊也。故曰：‘四端理發而氣隨，七情氣發而理乘。’ 蓋心之所發，有從天理性靈邊來者，此本然之性有感也，有從人慾血氣邊來者，此氣質之性有觸也。栗谷所論理氣，總括天地萬物而立說，理者，無形的也，物之所由然也，氣者，有形的也，物之體質也。故曰：‘四端七情以至天下萬物，無非氣發而理乘之。’ 蓋物之能發動，以其有形質也。無是形質，雖有理乎，安見發動？故未發之前，雖先有理，方其發也，氣必先之。栗谷之言，其以是也。然則退溪、栗谷，雖同論四七，共談理氣，即其‘理氣’二字，注脚判異。《栗谷集》中，雖無如是揭開處，其本意所執必如是也。理氣字義既異，則彼自一部說，此自一部說，恐無是非得失之可以歸一者，未知如何。”

22) 이 지점에서 『천주실의』의 표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23) 『대학혹문』 전5장. 其氣質有淸濁偏正之殊，物欲有淺深厚薄之異。是以人之與物，賢之與愚，相爲懸絕而不能同耳。以其理之同，故以一人之心，而於天下萬物之理，無不能知，以其稟之異，故於其理或有所不能窮也。理有未窮，故其知有不盡，知有不盡，則其心之所發，必不能純於義理而無雜乎物欲之私。此其所以意有不誠，心有不正，身有不修，而天下國家不可得而治也。

뒤섞이기 때문이다.²⁴⁾

주자학에서 ‘기질’의 문제는 평범한 사람의 도덕의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이자, 성인이 되기 위한 공부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이는 마음의 지적 능력으로 천하 만물의 리를 이해하는 공부 즉 격물궁리와, 마음 내부의 괴리와 자기기만을 해소하는 공부 즉 성의 및 거경의 길로 나아가는 논거가 된다. 이처럼 기질의 문제를 염두에 둘 때, 현실적(비본래적)으로 리와 기의 관계는 천지만물의 질서와 조리를 가리킬 때처럼 안온한 기발리승 일도의 질서로 점철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퇴계는 이 점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리기호발설을 밀어붙였다는 것이 이벽의 통찰이었고, 정약용은 30대에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퇴계와 율곡의 설을 이율배반 없이 병치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해 겨울, 정약용은 퇴계의 사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도산사숙록」을 작성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금정에서 “이웃 사람을 통하여 『퇴계집(退溪集)』 반부(半部)를 얻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먼저 퇴계의 서신을 읽고” 난 뒤에 집무를 보았다고 술회하고, 퇴계의 서신들의 일부를 발췌하고 아래에 자신의 감상과 의견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겼다. 특히 퇴계의 정신적 경지에 감흥을 일으키면서도 심성의 수련에 관한 스스로의 의견이 그와 함께 드러나고 있어 정약용의 사상의 궤적을 읽는 데 매우 중요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서암강학기」에서는 퇴계와 율곡 간의 ‘리기’ 개념의 이율배반을 해소한 자취만 보이고 있다면, 「도산사숙록」에서 정약용은 퇴계의 서신들에서 나타나는, 심성 공부의 경지가 도달한 ‘자연의 존재론적 현현’의 기상을 느낀 그대로 여러 차례 기술하고 있다.

…… 일체의 현우(賢愚)·득실(得失)과 시비(是非)·영욕(榮辱)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물[物]을 물 자체에 맡겨 두고 마음을 얽매지 않아서, 내 본연의 자연성[天]을 온전히 할 수 있다면, 거의 퇴옹(退翁)의 죄인이 되지 않으리라.²⁵⁾

이 서신을 여러 번 반복해 읽고 나니, 나도 모르게 기뻐서 뛰고 감탄하여 무릎을 쳐대며, 감격스레 눈물을 흘렸으니, 마음 속 한그득[藹然] ‘솔개가 날아 하늘에 이르고[鳶飛戾天] 물고기가 못에서 뛰는[魚躍于淵]’ 뜻이 생겨났다.²⁶⁾

이것이 비록 미세(微細)하나 실제로 선생의大本원(大本源)이 발현한 곳이니, 천하의 대용(大勇)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고, 인욕(人欲)이 말끔히 다 없어지고 천리(天理)가 유행(流行)하는 경지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²⁷⁾

이벽은 퇴계의 설이 리발기발을 심성론적(인심도심) 의미로 정미(精微)하게 해석해냈다고 평가하였고, 비록 율곡의 설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 리기설이 ‘공론’으로서는 옳다

24) 『중용혹문』 20장. 若夫人物之生，性命之正，固亦莫非天理之實，但以氣質之偏，口鼻耳目四肢之好，得以蔽之，而私欲生焉。是以當其惻隱之發，而忤害雜之，則所以爲仁者，有不實矣。當其羞惡之發，而貪味雜之，則所以爲義者，有不實矣。此常人之心，所以雖欲勉於爲善，而內外隱顯，常不免於二致。其甚，至於詐僞欺罔，而卒墮於小人之歸，則以其二者雜之故也。

25) 『문집』 권22 「도산사숙록」. 一切賢愚、得失、是非、榮辱，澹澹然物各付物，而不以嬰心，以全吾本然之天，則庶乎不爲退翁之罪人也。

26) 『문집』 권22 「도산사숙록」. 三復此書，不覺踊躍擊節，感激揮涕，藹然有‘鳶飛戾天，魚躍于淵’之意。

27) 『문집』 권22 「도산사숙록」. 此雖微細，實先生大本源發見處，非天下之大勇，不能爲此，非人慾淨盡天理流行，不能爲此。

고 평가한 것도 사실이다. 이 지침을 정약용은 「서암강학기」에서 이벽과 비슷한 표현을 써가면서 준수하였는데, 「도산사숙록」에서 퇴계의 서신을 삼가 대하면서 정약용은 자득적 독서가 의 기질을 발휘하여 퇴계의 처신과 언설 속에서 리기혼용의 자연의 존재가 현현하는 모습을 읽어내고 있다. 주자학적 공부론이 지향하듯, 인간 정신의 최고도의 경지에서 연비어약, 천리유행으로 묘사되는 리기혼용의 자연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정약용이 보기에 퇴계의 이러한 경지는 그의 공부가 생명력 있는 ‘활경(活敬)’으로서 동(動)과 정(靜)을 관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정존(靜存)과 동찰(動察)은 서로 연속하여 이루어지니, 정존하지 못하면 동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존의 공부는 응당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가? 주경(主敬)을 본(本)과 체(體)로 삼고, 궁리(窮理)를 용(用)과 말(末)로 삼는 것이다. 이른바 궁리란 현묘하고 심오한 이치를 탐구하여 만 가지 변화를 모조리 아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무릇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상의 떳떳한 윤리를 모두 헤아리고 이해하여 말없이 마음 속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 모름지기 항상 주의를 환기하여 마음 속에 하나의 ‘경(敬)자’를 면쳐 쌓아야만 바야흐로 정존의 진경(眞境)이 된다. 이것이 선생이 담적무위(湛寂無爲)를 정존의 완전한 공부로 삼으려 하지 않고, 반드시 동찰의 측면도 겸해서 말한 까닭이다.²⁸⁾

정약용은 퇴계의 서신 가운데 ‘정존’의 함양 공부에 뜻을 두고 「정존재명」을 써주길 요구한 이중구에게 퇴계가 동찰을 겸할 것을 조언한 부분을 발췌하여, 그 의의를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퇴계는 동과 정을 관통하는 ‘경’ 공부가 마음의 주재력을 치우침 없이 확보하는 길이므로 ‘정’만을 겨냥하여 공부의 진로를 정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정약용은 ‘동찰’을 인륜 관계와 궁리 등 외부 세계에 대한 의식적 헤아림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헤아림까지 포괄하는 것이야말로 ‘정존의 진경’이라고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퇴계의 의견과 합치하는 해석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퇴계가 마음의 주재력을 내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동찰을 강조한 것이라면, 정약용의 동찰은 인륜행사의 사업으로 공부의 방향을 외적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²⁹⁾ 정약용은 훗날 『대학공의』에서 “불가의 치심의 방법은 치심을 사업으로 삼는 것이라면, 우리 유가의 치심은 사업으로 치심하는 것”³⁰⁾이라고 논함으로써 자신의 ‘행사’ 중심의 사상적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는데, 그 단초가 ‘동찰’의 중시에 있다고 할 수 있다.³¹⁾

28) 『문집』 권22 「도산사숙록」. 靜存·動察，相須而成，蓋不能靜存，無以動察。然靜存之工，當如何著力？主敬爲本爲體，而窮理爲用爲末。所謂窮理，非謂探玄索奧，汎濫萬變也。凡吾日用彝倫之所當行者，皆商度料理，默然內辦。……須常常提醒，團築一敬字在腔內，方是靜存眞境，此先生之不欲以湛寂無爲作靜存完工，而必以動察邊兼言之者也。

29) 퇴계와 다산의 철학적 지향의 차이를 분석한 논문으로는 다음 참조. 백민정, 「『도산사숙록』으로 본 다산의 퇴계 독법」, 『다산학』 41, 2022. 이 논문은 두 사상가가 ‘불교적’이라고 비판하는 지점이 달랐다는 사실을 통해, 다산은 행사와 인륜을 중시하여 미발 심체에 집중하는 내성적 태도를 불교적이라고 비판했고, 퇴계는 미발이발을 떠나 인위적으로 허영불매한 마음을 지키려는 의식적 조장을 불교적이라고 비판했음을 규명하여 두 사상가의 지향 차이를 부각하였다. 45쪽 참조.

30) 『대학공의』 1. “佛氏治心之法，以治心爲事業，而吾家治心之法，以事業爲治心。”

31) 정약용이 「도산사숙록」에서 ‘정존’의 자폐를 우려하고 ‘동찰’의 측면을 강조하는 다른 예시는 다음 구절 참조. “靜菴英年柄用，學方進而志已展，名方盛而禍已至，雖欲著書立言，嘉惠後學，得乎？雖於道學全體，似若缺了一邊，宜在可恕，而先生之論靜菴，猶尚如此。矧乎窮居壘畝之士，進不能需用於世，退不能與師友弟子講明先王之道，使後世有所考述，而安其孤陋，長其傲慢，怕與人相接，而飾之以僞謙，長揖危跪，肆然以尊德性自命者，恐與朱子·退翁家法有異也。長沮·桀溺尚矣，得不與陸象山同歸？此皆學術之差毫謬千處也。存心此事者，不可不知。”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도산사숙록」의 주요 취지가 동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도산사속록」에서 이벽과의 대화의 연속면을 찾고자 한다면, ‘동찰’의 측면보다 더욱 긴요한 것은 다음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일찍이 선현(先賢)의 글을 보니 스스로 ‘심질(心疾)이 있다’고 칭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자못 의혹이 일었으나, 요즘 와서 점차 생각해 보니, 대개 일반 사람은 어지러움에 빠져 일찍이 점검하여 탐찰(探察)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천 가지 병과 백 가지 고통이 있어도 도무지 포착하지 못하니, 이는 비유컨대 광인의 마음 안에는 도무지 우환의 속박이 없는 것과 같다. 이는 곧 조찰(照察)의 공부가 이르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치심(治心)의 학문에 뜻을 둔다면, 곧 마음 안에 허다한 병통이 있는 것을 느낄 것이니, 주자(朱子)가 말씀하신 ‘이와 같은 것이 병임을 안다면 곧 이와 같지 않은 것은 약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 바야흐로 맹렬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가 심질(心疾)이 있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리(理)가 순조롭고 기(氣)가 조화로운 광경(光境)을 얻겠는가? 마땅히 독실히 탐찰해야 할 것이다.³²⁾

정약용이 「도산사속록」에서 말하는 치심의 공부는 ‘정존의 함양’과 그로 인한 마음의 주재력 확장을 주축으로 삼는 퇴계의 취지와는 차이가 있다. 그의 치심은 미발시의 밝은 지각이 아니라 거꾸로 마음의 허다한 병통을 직시하여 그것을 맹렬히 반성하는 공부로서 그것을 통해 리와 기가 순조로이 조화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학자가 직시해야 할 마음의 병통은 ‘심질’로 표현되는데, 이 심질은 치심의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장애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자는 우선 자신의 마음에 내재한 자기기만이나 무지의 베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그것을 교정하고 본성의 선함을 발현하는 공부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는 장애, 그것은 리와 기의 부조화이자 도심과 인심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약용이 퇴계의 ‘정존’ 공부를 ‘동찰’로 이어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공부를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한 지점이고, 훗날의 ‘인심과 도심의 대립’에 관한 담론과 ‘영체’ 안의 권형-행사 개념에까지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긍정적 의미를 띠는 ‘선배 학자들의 심질’이 『대학공의』에서는 긍정적 인 함의가 전혀 없는 매우 부정적인 어휘로 기술된다는 점이다.

선배 학인들이 심학을 하던 초년에 심질을 얻는 자가 많았으니, 이는 선배들 스스로 한 말이다. (외부의) 일이 없는 ‘뜻’을 정성스럽게 하기를 구하고, (외부의) 사물이 없는 ‘마음’을 바르게 하기를 구하니, 심질이 발작함이 이루 다 말하겠는가! 지극한 선은 인륜의 완성된 덕이고 정성의 지극한 바이니, 이 밖에 지극한 선은 없다. ³³⁾

여기서의 심질은 「도산사속록」에서 ‘동찰’에 힘쓰지 않고 ‘정존’에만 편향되어 인륜행사의 일에 힘을 쓰지 않는 자들에 대한 비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효·제·자의 실천과 관련하여

32) 『문집』 권22 「도산사속록」. 嘗見先賢文字，多自稱有心疾，始頗致惑，近漸思之，蓋衆人汨亂，不會點檢探察，故雖有千病百痛，看來都無可捉，比如狂人心內，都無憂患纏繞，即其照察之功未至也。吾人苟留意治心之學，便覺心內有許多病痛，朱子所云‘知如是病，便知不如是爲藥’，方得猛下工夫。學者未到有心疾地界，如何得理順氣和的光景？當慥慥乎探察也。

33) 『대학공의』 1. 先輩治心學，初年多得心疾，此先輩之所自言也。求誠於無事之意，求正於無物之心，其發心疾，可勝言哉！至善者，人倫之成德，誠之所至，外此無至善也。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앞에서 말하는 심질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⁴⁾ 앞에서 치심의 계기로 설정된 심질은, 리와 기, 도심과 인심의 대립이라는 퇴계의 심성론 안에서 긍정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그 점에서 퇴계의 정존 공부를 재해석하는 이 논의는 「서암강학기」와 연장선상에서, 이벽의 퇴계에 대한 입장을 정약용이 심화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존과 동찰을 포괄하는 공부론의 이해와, 퇴계의 정신적 경지를 리기훈응의 자연으로 묘사하는 데서, 정약용은 퇴율을 양립시키는 이벽의 입장에 다가가면서도 그것을 넘어 인륜의 실천(동찰의 측면)과 마음의 대립 구조(정존의 측면)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심화시켜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아직 주자학적 심성론과 공부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4. 두 편의 「리발기발변」: 사철논변의 종결과 새로운 사유를 향한 이정표

「서암강학기」와 「도산사속록」에 나타나는 퇴·율의 리발기발설의 종합, 퇴계의 심성론 및 공부론의 해석 과정은, 신유사옥으로 인해 장기 유배라는 험난한 상황에 처하여 짙막한 두 편의 「리발기발변」이라는 논문으로 종합되었다. 이 두 글은 『중용강의보』에서 명시했듯이 정약용이 이벽과의 의견 대립을 17년 만에 총결한 것이다.

「리발기발변1」은 일차적으로 6년 전 서암에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나는 일찍이 두 선생의 글을 취하여 읽으면서 면밀히 그 견해가 갈라진 이유를 찾아보았다. 곧 두 분이 말한 ‘리’다, ‘기’다 한 것은, 그 글자는 비록 같으나 그 지향한 것은 부분적[專]인 것과 전체적[總]인 것의 차이가 있었다. 곧 퇴계는 퇴계대로 하나의 리기(理氣)를 논하였고, 율곡은 율곡대로 하나의 리기를 논한 것이지 율곡이 퇴계의 리기를 취하여 어지럽힌 것은 아니다.

대개 퇴계는 오로지 인심에 나아가서 환하게 열어 놓은 것이니, 그가 말한 ‘리’는 바로 ‘본연지성’이며, ‘도심’이며, ‘천리지공(天理之公)’이요, 그가 말한 ‘기’는 바로 ‘기질지성’이며, ‘인심’이며, ‘인욕지사(人慾之私)’이다. 사단과 칠정이 발하는 데 있어서는 공사(公私)의 나뉘어 있음이 있어서 사단은 리발이 되고 칠정은 기발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율곡은 태극(太極) 이래의 리기를 총괄하여 공론(公論)한 말이니, 이를테면 무릇 천하의 물건이 발하기 전에는 비록 먼저 리가 있는 것이지만, 바야흐로 그것이 발할 때는 기가 반드시 리보다 앞서는 것이니 비록 사단과 칠정에 있어서도 오직 공(公)한 경우만을 예로 삼았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발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 그가 말한 리는 바로

34) 정약용의 철학 체계를 단적으로 포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인륜의 실천’이 특수한 담론의 위상을 지니고 있어, 그에게서 내면의 공부와 체계를 구성하는 이론적 담론이 인륜의 차원과 관계할 때 이중적인 가치 규정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성의’ 개념은, 그의 공부론 체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륜의 실천의 영역에서 논해질 때는 독립적 가치가 없는 부차적인 개념인 것처럼 처리되어 『대학공의』를 읽는 독자를 당황시킨다. 조현웅, 「정약용의 공부론 연구」, 한국학대학원박사논문, 2025, 46-51쪽 참조. 여기서의 선배들의 ‘심질’ 또한 내면의 공부라는 논제에서는 긍정적 가치를 띠지만, 인륜의 실천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단호하게 부정적 가치로 폄하된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의도적인 것으로, ‘덕’의 외부적 성취에 대한 실학자로서의 정약용의 지향, 그리고 주자학의 경계선을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는 그의 철학적 위치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정약용의 철학을 평가할 때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석의 치우침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형이상이며, 바로 만물의 근본 법칙이요, 그가 말한 기는 바로 형이하이며, 바로 만물의 형질임을 말한 것이지, 절절하게 심(心)·성(性)·정(情)을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다.³⁵⁾

퇴계의 ‘부분적’ 논의와 율곡의 ‘전체적’ 논의는 이벽의 공론-부론 구분의 패러프레이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특징적인 부분은, ‘공-사’의 구분으로 퇴계와 율곡의 사단칠정의 차이를 기술하는 데 있다. 곧 퇴계에게 있어 사단-공-리발, 칠정-사-기발의 이원적 도식이 유지되고, 율곡에게 있어서는 사단칠정-공-기발의 일원적 도식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퇴계에 대한 기술은 서암에서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율곡에 대한 기술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곡의 사단칠정론이 “오직 공(公)한 경우만” 말한 것이고, “절절하게 심(心)·성(性)·정(情)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다. 「도산사숙록」에서 정약용은 퇴계의 글을 통하여, ‘심질’을 긍정하며 정존의 내적 반성을 가하고, ‘인륜’을 목표로 삼아 동찰의 외적 실천을 행할 것을 강조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절절하게” 인간의 마음에 다가가 삶의 현장 속에서 갈등과 이기성을 극복하는 인간학적 성숙의 과정이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율곡의 논의는 형이상의 법칙과 형이하의 형질을 가지고 사단칠정을 일반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총론’이기는 하지만, 성숙한 심성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인간의 불완전한 현실 전부를 담지 못하고 오로지 이상적인 ‘공(公)한 경우’만 다루는 ‘부분적인’ 이론이 된다. 「리발기발변1」은 서암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퇴계와 율곡을 우열이나 모순 없이 조화시키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퇴계의 설이 현실의 문제를 설명하는 더 ‘절절한’ 이론, 즉 이벽이 말했던 더 ‘정미한’ 이론이라는 평가가 은연중에 드러난다. 같은 글에서 정약용은 “퇴계의 말은 비교적 주밀하고 상세하고, 율곡의 말은 비교적 넓고 간결하다”³⁶⁾고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표현 또한 퇴계 심학의 정밀함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느낌을 준다. 그렇기에 「리발기발변2」에서 정약용은 이번엔 오로지 퇴계의 설을 중심으로 새롭게 글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리발기발변2」의 내용은 「리발기발변1」의 공-사 개념을 더욱 밀고 나가되, 사단-공-리발, 칠정-사-기발이라는 퇴계설의 정리를 스스로 수정하고 오로지 천리지공-인욕지사의 구분을 통한 인심과 도심의 갈림길에 주목하는 심성론을 제기한다. 우선 정약용은 ‘사단’이면서도 ‘천리지공’에서 나왔다고 하기 어려운 역사 속 사례와, ‘칠정’이면서도 ‘형기지사’에서 나왔다고 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들고 난 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단도 내 마음에서 나오고 칠정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마음에 리와 기의 두 구멍이 있어서 각각 리와 기를 나가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군자(君子)가 정존·동찰함에, 무릇 한 생각이 발하면 즉시 두려워하며 맹렬히 반성하기를 “이 생각이 천리지공에서 발한 것인가, 인욕지사에서 발한 것인가? 이 생각이 도심인가, 인심인가?” 하고, 밀접하고도 절실하게 추구하여, 이것이 과연 천리지공이면 그것을 배양하고 확충하며, 혹 인욕지사에서

35) 『문집』 권12, 「理發氣發辨 一」. 余嘗取二子之書而讀之, 密求其見解之所由分. 乃二子之曰理曰氣, 其字雖同, 而其所指有專有總, 卽退溪自論一理氣, 栗谷自論一理氣, 非栗谷取退溪之理氣而汨亂之爾. 蓋退溪專就人心上八字打開, 其云理者, 是本然之性, 是道心, 是天理之公, 其云氣者, 是氣質之性, 是人心, 是人欲之私, 故謂四端七情之發, 有公私之分, 而四爲理發, 七爲氣發也. 栗谷總執太極以來理氣而公論之, 謂凡天下之物, 未發之前, 雖先有理, 方其發也, 氣必先之, 雖四端七情, 亦唯以公例例之, 故曰四七皆氣發也. 其云理者, 是形而上, 是物之本則, 其云氣者, 是形而下, 是物之形質, 非故切切以心性情言之也.

36) 『문집』 권12, 「理發氣發辨 一」. 退溪之言, 較密較細, 栗谷之言, 較闊較簡.

나온 것이면 막아서 꺾고, 이겨서 회복하는 것이니, 군자가 입술이 마르고 혀가 닳도록 독실하게 리발기발을 변론한 것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었다. 진실로 발하게 하는 소유(所由)만을 알 뿐이라면 변론해서 무엇하겠는가? 퇴계는 평생 동안 치심(治心)·양성(養性)의 공부에 힘썼기 때문에, 그 (심성에서의) 리발과 기발을 분언(分言)하여 오직 그 구분이 분명하지 못할까 우려하였던 것이다. 배우는 자가 이 뜻을 살피서 깊이 체득한다면 이는 바로 퇴계의 충도(忠徒)이리라.³⁷⁾

여기서 논의가 급격히 압축된다. 정약용은 사단-칠정의 도덕정감의 구분이나 정존-동찰의 수양론적 구분을 모두 하나의 마음이 발하는 공-사의 방향성의 문제로 응축시키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논의는 더 이상 ‘사단칠정론’이라고 불릴 수 없고, 「도산사숙록」에서 보이는 퇴계의 미발시의 본원함양의 수양이나 리기혼용의 성현의 기상을 논의의 영역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정약용은 가능한 한 논의의 영역을 압축하고 단순화하여, 이미 발한 마음의 방향성을 성찰하고 그것을 확충하거나 억제하는 의지의 직접성을 강조하고 있다. 퇴계 심학이 열어보여 준 ‘절절한’ 인간 심성의 현실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실천의 철학을 창조하기 위해서, 정약용은 정존과 동찰의 틀 자체를 마음의 반성적 성찰과 의지적 제어라는 새로운 공부의 모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유의 단순성은 23세 때부터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퇴계와 율곡을 둘러싸고 이벽의 사유와 대립하고 융화하여 이른 하나의 결말로서, 조선유학의 사단칠정논변에 대한 하나의 간명한 정리이기도 하지만, 향후 정약용이 주자학의 틀을 벗어나 강진 유배시기 수립하게 되는 새로운 공부론의 출발을 알리는 이정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벽과의 사상적 대립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 유학의 최대 논쟁을 나름의 관점으로 섭렵하고 또 요약해가면서, 강진에서 초로의 정약용은 주자학의 한계점을 넘어 자신만의 공부론 체계를 수립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5. 지성(至誠)을 향한 여정 - 존덕성 10구로부터 신독의 중화론까지

정약용은 청년 시절 이벽과 토론한 지 30년이 지나 마침내 자신의 『중용』 해석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 건륭 갑진년(1784) 여름, 먼저 세상을 떠난 벗 광암 이덕조가 나와 함께 『중용』의 대의를 논하였는데, 털끝까지 세세히 분석하여 전혀 유감이 없었으나, 오직 미발·이발의 설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이 절은 이해되지 않는다’라 하였다. 이제 30년이 지났으니, 만일 광암이 오늘날의 내 논의를 들을 수 있다면 분명 확실히 합치했을 것이다.³⁸⁾

37) 『문집』 권12, 「理發氣發辨 二」. 四端由吾心, 七情由吾心, 非其心有理氣二寶而各出之使去也. 君子之靜存而動察也, 凡有一念之發, 卽已惕然猛省曰: “是念發於天理之公平, 發於人欲之私乎? 是道心乎, 是人心乎?” 密切究推, 是果天理之公, 則培之養之, 擴而充之, 而或出於人欲之私, 則遏之折之, 克而復之, 君子之焦唇敝舌, 而慥慥乎理發氣發之辯者, 正爲是也. 苟知其所由發而已, 則辨之何爲哉? 退溪一生用力於治心養性之功, 故分言其理發氣發, 而唯恐其不明. 學者察此意而深體之, 則斯退溪之忠徒也.

38) 『中庸自箴』 1. ○昔在乾隆甲辰之夏, 亡友曠菴 李德操, 與余論《中庸》大義, 毫分縷析, 靡有遺憾, 獨於未發·已發之說, 常曰此節不可曉, 今三十年矣. 若使曠菴得聞余今日之論, 必犁然相入矣. 九原難作, 何嗟及矣.

정약용은 청년 시절 이벽과의 논의가 멈춘 지점이 미발이발설이었음을 술회하고, 자신이 30년 후 창안한 새로운 『중용』 해석이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정약용의 공부론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신독’의 재규정을 통해 주자학적 ‘중화’ 개념을 대체했음을 가리키는데, 사실 신독 개념은 ‘용(庸)’ 개념과 함께 정약용이 『중용』 해석을 통해 새롭게 수립한 공부론의 한 축으로서, 두 개념은 그의 ‘존덕성’ 10구의 재해석으로부터 연역되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정약용의 존덕성 10구의 해석은 매우 분명하게도 이벽의 해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본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발기발론’을 거쳐 주자학을 넘어선 지점의 공부론을 본격적으로 사유하는 정약용의 체계 안에서 이벽의 음영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리워져 있는지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청년 다산의 오랜 여정의 종착지를 스케치하고자 한다.

공부론의 지평에서 보았을 때, 정약용은 『중용』의 ‘존덕성 10구’의 재해석에 있어 이벽에게서 도움을 받았고, 주자학적 공부론의 틀을 벗어나 자신의 체계를 구축할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된다. 존덕성 10구는 『중용장구』 기준 27장 후반에 포함된 다음의 경문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군자는 덕성을 높이되 학문으로 말미암으며[尊德性而道問學],
광대함을 지극히 하되 정미함을 다하며[致廣大而盡精微],
고명함을 다하되 중용을 말미암으며[極高明而道中庸],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알아나가고[溫故而知新],
두터움으로써 예를 숭상한다[敦厚以崇禮].

정약용은 이 10구 가운데 ‘존덕성’에서 ‘도중용’까지의 여섯 구를, 주희의 해석과는 전혀 다르게, 이벽의 자극을 통하여 지-행 관계가 아닌 천-인 관계로 구조화하는 해석학적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용강의보』의 다음 답안은 특히 『대학』과 『중용』을 관통하는 정약용의 공부론 체계의 토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문장이다. 그러한 문장에 이벽의 명패를 새겨 놓았다는 사실은 놀랍다.

이 여섯 단락(존덕성-도중용)은 지-행으로 나눌 수 없고, 다만 천-인으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신이 죽을 죄를 무릅쓰고 아뢰옵건대, 저는 이와 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미 박후(博厚)하고 이미 고명(高明)하여, 이에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알아나가고’, ‘두터움으로써 예를 숭상’하는 것을 ‘유구(悠久)’의 근본으로 삼았으니, 모두 윗글과 조응하는 것입니다. ‘중용’이란 중화(中和)의 향상됨이 있는 것이니, ‘유구’는 ‘유상(有常)’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본래 이덕조의 해석이었다.】³⁹⁾

『중용자잠』 같은 절에도 이벽의 해석에 근거한 문장이 인용되어 있다.

존덕성은 지성(至誠)이고, 광대(廣大)는 박후(博厚)이며, 고명(高明)은 고명이다. 윗장에서 ‘지성의 도는 천지와 짝할 수 있다’고 한 말과 문장이 서로 조응한다. 그러나 공자의 도는 하학상달이므로, 『중용』은 비록 하늘을 알[知天]을 첫 공부로 삼지만 그 하학의 길은 반드시 도문학을 첫 공부로 삼으니, 문학하는 방법은 정미함을 극치로 삼는다. 학문이 이미 정

39) 『중용강의보』 故君子尊德性而道問學節. 此六段, 不可分之以知·行, 但當別之以天·人. 臣愚死罪, 其自信如此矣. 既博厚矣, 既高明矣, 於是‘溫故而知新’, ‘敦厚以崇禮’, 以爲‘悠久’之本, 總與上文照應者也. 中庸者, 中和之有常也. ‘悠久’非有常乎?【此本李德操之義】

미해지면 몸이 중용의 도를 말미암는다. 이로써 보건대, 위의 세 단락은 천덕(天德)이고 아래 세 단락은 인도(人道)이며, ‘온고(溫故)’ 이하는 유구(悠久)해지는 방법이다. 【이는 본래 이광암의 해석이었다.】⁴⁰⁾

이벽의 입장은 명료하다. 존덕성과 도문학, 치광대와 진정미, 극고명과 도중용의 여섯 조목을 각각 지-행이 아닌 천-인으로 짝짓고, 온고-지신과 돈후-송례의 네 조목을 실천의 지속(有常)의 의미로 푸는 것이다. 이는 『장구』 기준 앞장인 제26장에 나타나는 박후(博厚)와 고명(高明), 유구(悠久)를 그대로 존덕성 10구의 세 가지 범주로 조응시킨 것이다. 정약용은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주자학에서 존덕성 10구가 지-행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는 것이 건강부회라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 천-인 관계로 이 구절을 해석한 취지가 궁극적으로 ‘유구’ 즉 실천의 지속이라는 측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유들은 여기서 매양 존덕성을 행으로, 도문학을 지로 보고 반드시 쌍으로 분배하여 치우침이 없고자 하나, 건강부회의 병폐가 있음을 면치 못할 따름이다. ‘치광대’에는 넓기만 하고 정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진정미’로 구제하였다. ‘극고명’에는 너무 고상하여 균형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도중용’으로 구제하였다. ‘광대’와 ‘고명’은 그 귀함이 ‘유구’에 있다. 그러므로 경계하여 ‘온고지신’과 ‘돈후송례’를 말한 것이니, 윗장의 이른바 ‘박후, 고명, 유구’의 뜻이다.⁴¹⁾

여기서 정약용은 단순히 천-인 관계로의 전환을 긍정하는 것을 넘어, ‘유구’에 가치중심을 두고 공부론을 전개해가고 있다. 이 부분은 정약용의 ‘실천’을 중시하는 사유가 천-인 관계의 축으로부터 도출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중요한데, 이는 앞장의 ‘지성무식(至誠無息)’의 해설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바로 여기에서 ‘용(庸)’ 개념의 재규정이 정당화된다.

‘지성’이란 ‘중화’이고, ‘무식’이란 ‘용’이다. 책의 서두에서는 “중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얻고 만물이 길러진다”고 하였다. 윗 구절에서는 “오직 천하의 지성만이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중화’는 ‘지성’이 아니겠는가? “침이 없으면 오래 가고, 오래 가면 징험이 있고, 징험이 있으면 유원하다[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悠遠]”고 하였으니, ‘무식’은 ‘용’이 아니겠는가?⁴²⁾

정약용은 ‘지성무식’을 ‘중화’와 ‘용(庸)’의 결합으로 해석하여, ‘지성’(중화)이 천지에 실현되는 장구한 과정을 ‘용’에 대입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용’은 정약용에게 ‘실천의 지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재규정된 주요 개념으로, 정약용은 주희가 이 개념을 ‘평상’으로 오해한 것이 오

40) 『중용자잠』 권3 故君子尊德性而道問學節. 尊德性者, 至誠也, 廣大者, 博厚也, 高明者, 高明也. 上章云‘至誠之道, 可配天地’, 文相照也. 然孔子之道, 下學而上達, 故《中庸》雖以知天爲首功, 其下學之方, 必以道問學爲首功, 問學之法, 以精微爲極致. 學既精微, 則身由中庸之道. 由是觀之, 上三段, 天德也, 下三段, 人道也, ‘溫故’以下, 所以爲悠久也.【此本李曠菴之義】

41) 『중용자잠』 권3 ○先儒於此, 每以尊德性爲行, 道問學爲知, 必欲雙雙分排, 不敲不側, 不免有牽強之病耳. ○致廣大, 則恐博而不精, 故救之曰‘盡精微’. 極高明, 則恐過高失中, 故救之曰‘道中庸’. 廣大高明, 則實在悠久, 故戒之曰‘溫故知新, 敦厚以崇禮’, 上文所謂‘博厚·高明·悠久’之意也.

42) 『중용자잠』 권3 故至誠無息節(《정본》 제6책, 269쪽). 至誠者, 中和也, 無息者, 庸也. 篇首曰‘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上節曰‘惟天下至誠, 可以贊天地之化育’. 中和非至誠乎? ‘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悠遠’, 無息非庸乎?

늘날의 학자가 성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극언하기도 하였다.⁴³⁾ 정약용이 ‘용’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존덕성 10구의 마지막 4구의 의미를 앞장의 ‘유구’, ‘유원’과 일치시킨 해석에 있고, 이 독창성에는 분명 이벽의 기초적 도움이 있었던 것이다.

‘오래 가면 징험이 있다[久則徵]’는 말은, 잡아 지킴이 오래 되면 마음을 다스리고 본성을 기르는 때나 하늘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때에 반드시 스스로의 마음에 묵묵히 징험함이 있으니, 이를 일러 징험[徵]이라 한 것이다. 징험했다면 도를 믿음이 더욱 돈독해져서 그만두고자 해도 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오래될수록 더욱 진보하여 유원(悠遠)함에 이르게 된다. ‘유원’이란 ‘용’의 극치이다. 유원하면 덕이 축적되므로 ‘박후’하고, 박후하면 광명이 밖으로 나타나므로 ‘고명’하니, 이른바 ‘성즉명(誠則明)’이라 한다.⁴⁴⁾

결국 정약용에게 존덕성 10구의 핵심적 취지는 ‘지성무식’의 의미를 재규정된 ‘용’의 의미로 풀이하여, 향구불식의 끊임없는 실천이 갖는 중요성을 이벽의 유익이 서린 ‘천-인’ 관계 상의 공부론 체계로부터 도출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주희가 존덕성과 도문학을 중심으로 ‘지-행’의 계열로서 공부론을 수립한 데 대한 새로운 각도의 공부론 체계의 수립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용’ 개념을 ‘평상(平常)’이 아닌 ‘유상(有常)’이자 ‘지성무식(至誠無息)’의 근간으로 파악함으로써 그의 공부론 체계가 관념적 구상에 그치지 않고 하학상달의 공부 도정 즉 현실적·구체적 실천의 영역과 연속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⁴⁵⁾

그러나 존덕성 10구 해석으로부터 연역된 공부론적 의의는 ‘용’의 실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벽과의 토론이 정지했던 지점, 즉 미발이발설에 대한 정약용의 새로운 해석까지 이어서 다루어져야 비로소 이벽이 정약용의 사유에 드리운 음영의 전체상이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존덕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잠말: 덕(德)이란 (한자를 파자하면) 나의 곧은(直) 마음(心)을 행(行)하는 것이니, 행하지 않는다면 덕이 없는 것이다. 효제충신과 인의예지는 덕이라고 일컫는 것이지만, 궁행(躬行)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덕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덕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성은 본래 선을 즐겨워하기에 감응하여 발한 것이 선심(善心) 아님이 없다. 이 마음을 확충하면 인의예지를 행할 수 있으므로, 그 본성을 ‘덕성’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그래서 성(性)을 ‘덕성’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 본성은 상천(上天)의 명에 근본한 것이다. 천명을 받은 자는 그것을 감히 높이지 않을 수 없으니, 마치 군명을 받드는 자가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⁴⁶⁾

43) 『심경밀험』 「심성총의(心性總義)」. 今人欲成聖而不能者，厥有三端。一認天爲理，一認仁爲生物之理，三認庸爲平常。若慎獨以事天，強恕以求仁，又能恒久而不息，斯聖人矣。

44) 『중용자잠』 권3. 故至誠無息節 久則徵者，持守既久，則其治心養性之時，天人相與之際，必有默驗於自心者，斯之謂徵也。徵則其信道益篤，欲罷不能，故彌久彌進，而至於悠遠。悠遠者，庸之極也。悠遠則德積，故博厚。博厚則光氣外透，故高明，所謂誠則明也。

45) ‘용’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좋고, 「정약용의 공부론 연구」, 한국학대학원박사논문, 2025, 112-120쪽 참조.

46) 『중용자잠』 권3. 箴曰 德者，行吾之直心也，不行，無德也。孝弟忠信、仁義禮智，斯爲之德，未及躬行，安有德乎？然而謂之德性者，性本樂善，隨感而發者，無非善心。擴充此心，可以爲仁義禮智。故名

정약용에게 효제충신, 인의예지와 같은 덕은 궁행의 산물이지만, 애초에 그에 착수하려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본성이 있어야만 한다. 정약용은 ‘존덕성’ 자체가 궁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실제적 덕의 근원으로서 천명으로 내재하는 기호의 귀중함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덕성’(혹은 천덕)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심경밀험』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나온다.

“저 성을 살펴보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근원이다. 이 본성을 따르면 인에 머무를 수 있고 의에 말미암을 수 있어서, 인의가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므로 덕성이라 부른다. 덕성은 원래 상천(上天)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높이고 받들어 함부로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⁴⁷⁾

본성에 내재한 천명을 받들고 그로부터 나오는 기호를 따르는[率性] 공부는 정약용에게 있어 상제를 경외하는 일이자 도심(道心)의 신호를 경청하는 일이기도 하다.⁴⁸⁾ 존덕성과 소사상제(昭事上帝), 도심에의 경청은 정약용에게 실제 덕을 가능케 하는 근원으로서의 ‘천덕(天德)’과 관계한다는 면에서 같은 의미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천덕’에 관하여 이벽은 ‘존덕성’ 외에 또 하나의 철학적 자취를 청년 정약용의 뇌리에 새겨놓았다. 그것은 그가 귀신의 작용인 ‘미현(微顯, 은미함과 현현)’을 천덕임을 논증한 사실이다. 정약용에게 귀신 개념에 내재한 천도의 ‘드러남과 숨음’의 작용은 그의 신독론이 성립하기 위한 발판이자 『중용』 전체를 꿰뚫는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⁴⁹⁾ 『중용강의보』 귀신장에서 정약용은 이벽의 논증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해두었다.

총괄하자면, ‘미현’이란 천덕이다.

- 윗장에 ‘멀리 가고 높이 오른다’라 하고, 육친을 낮고 가까운 데 해당시켰으니, 그 높고 먼 것에 관한 설은 반드시 이 장(귀신장)이어야 한다. 이것이 첫째 증거이다.

- 상천의 일은 밖도 안도 없기에, 제사하는 곳에 따라 양양(洋洋)히 계신 듯한 것이다. 이것이 둘째 증거이다.

- 만물의 몸에 가득 차 빠뜨릴 수 없으므로[體物而不可遺] 도는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道不可須臾離也], 상천의 일은 만물을 포함하고, 만물의 몸을 채우는 것이므로, 사물은 스스로 빠뜨릴 수 없다. 이것이 셋째 증거이다.

- 이 구절[體物而不可遺] 아래에 이어서 종묘의 예를 말하고, 글을 총결하여 “교사의 예는 상제에게 제사지내기 위함이고, 종묘의 예는 조상에게 제사지내기 위함이다”라 하였으니, 이 절이 천덕이 아니라면, 아랫 문장에서 어떻게 두 가지를 들어 총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넷째 증거이다.

- 아랫 문장에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이 없음을 지천(知天)이고, 백세 이후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이 없음을 지인(知人)이다”라 하였으니, 성인(聖人)이 이미 사람이라면 귀신은

其性曰德性也。此性所受，本上天之命也。受天命者，不敢不尊之，如奉君命者，不敢不敬之也。

47) 『심경밀험』 朱子尊德性齋銘。 “原夫性者，樂善耻惡之所由然也。率此本性，可以居仁，可以由義，仁義之所由成，故名之曰德性也。乃此德性，本受於上天，故尊之奉之，罔敢墜失也。”

48) 임부연, 「정약용의 영체학靈體學과 맹자 심학心學의 재해석— 도심道心の 행사行事를 중심으로」, 『다산학』 35, 2019 참조.

49) 좋고, 「정약용의 『중용』 해석과 새로운 귀신론의 수립」, 『다산학』 41, 2022 참조.

하늘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다섯째 증거이다. 【이는 본래 이광암의 설이었다.】⁵⁰⁾

이벽의 논증 가운데 정약용의 신독론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세 번째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만물의 몸에 가득차 빠뜨릴 수 없다(體物而不可遺)”는 귀신에 대한 묘사를 수장(首章)의 “도는 잠시도 떠날 수 없다[道不可須與離也]”와 연결시킨 이벽의 창안은 정약용의 사유에 그대로 착상하여, 천명의 내재와 존덕성, 상제의 임재, 도심의 신호 등에 공통된 존재론적 기반을 귀신의 작용을 통해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중용자잠』의 수장 주석에서 이 점은 매우 분명하다.

‘도가 떠날 수 없음’은 어째서인가?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기’ 때문이다. 본성을 따르는 것(도)이 떠날 수 없음은 어째서인가?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 하기’ 때문이다. 천명이 떠날 수 없음은 어째서인가? 경문에 ‘귀신의 덕은 만물의 몸에 가득 차 빠뜨릴 수 없다【아랫장(16장)에 보인다】고 하였으니, 빠뜨릴 수 없으므로 떠날 수 없는 것이다.’⁵¹⁾

정약용에게 도(천도)의 존재론은 귀신의 현상론과 일치한다. 이는 다시 앞에서 본 ‘존덕성’의 천명=군명의 비유와 연결되어, 도덕적 주체의 현실적 성덕(成德)을 가능케 하는 근원인 천명으로서의 본성의 편재성을 정당화한다. 귀신론을 통해 이제 정약용에게 본성이란 하늘의 명으로서 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발현을 멈추지 않는 도심의 기호처럼 현상론적으로 편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진나라 사람이 군명(君名)을 받들어 초나라로 간다면, 진나라에서 초나라까지의 걸음걸음은 모두 이 군명에 의한 길이므로, 걸음걸음이 모두 군명이 된다. 어찌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어찌 이 명령을 어길 수 있겠는가? ‘체물(體物)’이란 만물에 가득 차 있음이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호흡할 때 물을 떠날 수 없는 것과 같다. 어찌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그칠 수 있겠는가? …… 그러므로 “도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고 한 것이다.⁵²⁾

그리고 이러한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귀신의 작용은 군자의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신독의 공부가 성립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 된다. 이로부터 신독은 내면에 그치는 공부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다음 글에서 보이듯이, 정약용의 ‘계신공구’(곧 신독)에 대한 설명은 거의 귀신의 작용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천명’으로서의 존덕성론과 마찬가지로, ‘미현’으로서의 이벽의 귀신론은 천덕으로서 정약용의 공부론 속에서 발전되고 있다.

50) 『中庸講義補』, 鬼神之爲德節。○總之, ‘微顯’者, 天德也。上章發‘行遠·登高’之義, 以六親當卑邇, 則其高遠之說, 必在此章, 其驗一也。上天之載, 無外無內, 故隨其所祭, 無不洋洋如在, 其驗二也。體物而不可遺, 故道不可須與離也, 上天之載, 包含萬物, 爲物體之所充, 故物不能自遺, 其驗三也。此節之下, 繼言宗廟之禮, 而統結其文曰‘郊社之禮, 所以祀上帝也, 宗廟之禮, 所以祀乎其先’, 此節若非天德, 下文何以雙舉而統結之乎? 其驗四也。下文曰‘質諸鬼神, 知天也, 百世以俟聖人, 知人也’, 聖人既人, 則鬼神非天乎? 其驗五也。【此本李曠菴之說】

51) 『중용자잠』 1: 道之不可離, 何也? 以率性之謂道也。率性則不可離, 何也? 以天命之謂性也。天命則不可離, 何也? 經曰‘鬼神之德, 體物而不可遺’,【見下章】不可遺, 故不可離也。

52) 『중용자잠』 1: 秦人奉君命以適楚, 其自秦至楚, 步步皆此道也。夫焉得離此道, 夫焉得違此命乎? 體物者, 物之充也。如魚在水中, 呼吸不能離水。夫焉得自行而自止乎? …… 故曰: “道也者, 不可須與離也。”

(‘막현호은(莫見乎隱), 막현호미(莫顯乎微)’의) ‘은미’란 상천(上天)의 일이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어찌 ‘숨은 것[隱]’이 아니겠는가?【‘귀신’장】 ‘그 작은 것을 말하자면 천하에 능히 그것을 깨뜨릴 것이 없다’고 했으니 어찌 ‘미세한 것[微]’이 아니겠는가?【‘비은(費隱)’장】 ‘온누리 하늘 아래 깨끗이 재계하고 제사를 받드니 넘실넘실 그 위에 계시는 듯, 좌우에 계시는 듯하다’는 것은 막현호은(莫見乎隱)이다.【‘귀신’장】 만물을 낳고 길러 ‘솔개는 날아 하늘로 솟구치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쳐 오르게’ 하여 그 조화의 자취를 드러내는 것은 막현호미(莫顯乎微)이다.【‘비은’장】 숨은 듯하나 지극히 나타나 보이므로 [似隱而至現] 보이지 않는 바에 계신하고, 미세한 듯하나 지극히 드러나 있으므로 [似微而至顯], 들리지 않는 바에 공구한다.⁵³⁾

정약용은 이러한 사유를 경학적 맥락 위에서 발전시켜, 이벽의 사유가 멈추었던 자리인 미발이발의 중화론을, 다시 이벽의 사유로부터 촉발시킨 신독의 중화론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가 미발이발론을 신독을 통해 해석한 뒤, “만일 광암이 오늘날의 내 논의를 들을 수 있다면 분명 확실히 합치했을 것이다”라는 확신의 언사를 발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통하여 볼 때 자연스럽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신독이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미발이란 희노애락(喜怒哀樂)의 미발이지, 인식과 사려[心知思慮] 자체의 미발이 아니다.

이 때(미발시)를 당하여 공경하고 신중히, 상제를 밝게 섬기되 항상 신명(神明)이 옥루(屋漏)에 밝게 임하시듯 계신공구하여 오직 잘못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오직 과격한 행실을 범할까 두려워하고 치우친 감정이 싹들까 두려워하여, 그 마음을 지극히 평안히 지니고, 그 마음을 지극히 바르게 조처하여 바깥 사물이 이르는 것을 응대한다면, 이것이 어찌 천하의 지극한 중(中)이 아니겠는가?

이 때(이발시)를 당하여 기뻐할 만함을 보면 기뻐하고, 노할 만함을 보면 노하며, 슬퍼해야 한다면 슬퍼하고, 즐거워야 한다면 즐거워하니, 그 신독의 (미발시)에 축적된 공부(潛功)로 말미암은 것이니, 일을 만나 발함에 중절(中節)하지 않음이 없다면, 이것이 어찌 천하의 지극한 화(和)가 아니겠는가?⁵⁴⁾

귀신의 ‘미현’이 신독의 존재론적 토대가 되었으므로, 정약용에게 미발시 공부, 즉 희노애락이 발하기 전의 공부는 의식 내부의 ‘지극히 은미한’ 공간에 ‘지극히 나타나 있는’ 상제-신명을 향한 경외의 공부로서 중(中)을 이루고, 희노애락이 발한 뒤의 이발시 공부는 미발시에 축적된 신독의 잠재된 공력을 통해 인륜의 조화로움과 정당성을 실천함으로써 화(和)를 이룬다. 그런 이유로 정약용은 미발과 이발의 공부를 하나의 신독을 통해 관통시켜, “중을 이루는 것은 신독이 아니면 할 수 없고, 화를 이루는 것도 신독이 아니면 할 수 없으니, 중용의 도는

53) 『중용자잠』 1. 隱微者, 上天之載也。視之而弗見, 聽之而弗聞, 豈非隱乎?【‘鬼神’章】 ‘語其小則天下莫能破焉’, 豈非微乎?【‘費隱’章】 ‘使普天之下, 齊明承祭, 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 莫見乎隱也。【‘鬼神’章】 發育萬物, 使鳶飛戾天, 魚躍于淵, 以顯其造化之迹, 莫顯乎微也。【‘費隱’章】 似隱而至現, 故戒愼乎所不覩也。似微而至顯, 故恐懼乎所不聞也。

54) 『중용자잠』 1. ○愼獨之能致中和, 何也? 未發者, 喜怒哀樂之未發, 非心知思慮之未發。當此之時, 小心翼翼, 昭事上帝, 常若神明照臨屋漏, 戒愼恐懼, 惟恐有過, 矯激之行, 偏倚之情, 惟恐有犯, 惟恐有萌, 持其心至平, 處其心至正, 以待外物之至, 斯豈非天下之至中乎? 當此之時, 見可喜則喜, 見可怒則怒, 當哀而哀, 當樂而樂, 由其有愼獨之潛功, 故遇事而發, 無不中節, 斯豈非天下之至和乎?

신독이 아니면 할 수 없다”⁵⁵⁾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단언은 오로지 이벽과 상통하는 그의 귀신론이 존재론적 토대로 자리하고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중용의 덕은 신독이 아니고서는 완성할 수 없고, 신독의 공부는 귀신이 아니고서는 경외할 바가 없으니, 그렇다면 귀신의 덕이야말로 우리 도가 근본한 바이다.⁵⁶⁾

정약용은 이러한 귀신론에 근거한 신독론을 다시 ‘천지위(天地位), 만물육(萬物育)’의 지성(至誠)의 경지와 직접 연결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신독이 곧 지성임을 강조하였다. 그의 공부론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중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얻고 만물이 길러지는 것은 어째서인가? 치중화(致中和)란 지성(至誠)이고, 지성이란 천도이다. 지성의 인간은 하늘과 그 덕이 합하니,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땅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전욱은) 남정(南正)인 중(重)에게 하늘을 주관케 하고 북정(北正)인 여(黎)에게 땅을 주관케 하였으며, 요임금의 시대에는 희백(羲伯)이 하늘을 주관케 하고 화백(和伯)이 땅을 주관케 하여 역상(曆象)을 바로잡고 규열(圭臬, 시간 측정 도구)을 세웠다. 이에 모든 표준이 갖추어지고 모든 사업이 찬란히 이루어졌으며, 산림과 천택에 각기 관리자를 두어 초목과 금수가 때에 맞게 길러지고 죽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타인의 본성을 다할 수 있고 만물의 본성을 다할 수 있다(能盡人性, 能盡物性)”는 것이다. 그 근본을 더듬어보면, 어찌 신독의 성(誠)이 이를 이룬 것이 아니겠는가?⁵⁷⁾

34세의 정약용은 「도산사속록」에서 퇴계의 정신적 경지를 ‘연비어약’, 즉 리기혼융의 자연 그 자체로서 찬탄하였으나, 53세에 완성된 신독의 중화론에서 공부의 공효는 인륜과 경제의 한계 안에서 다스림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최상의 경지로 묘사되고 있다. 신독군자는 귀신(천도)의 ‘미현’을 닮아가는 존재⁵⁸⁾로서 천덕과 합할 수 있는 초월성을 띠면서도, 그 천덕이 어디까지나 인륜의 행사와 정치적 사업으로 표현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그가 주자학 너머 세운 공부론의 체계 안에서 자연이 더 이상 그 자체로 발하는 혼융한 완전성으로서의 그 무엇이 아니고, 귀신 즉 천도가 ‘미현’의 작용을 통해 만물을 감싸는 장으로서 인륜과 경제의 실천을 통해 완전해져야 할 그 무엇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그에게서 덕이 더 이상 연비어약의 현현처럼 자연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의 장에서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덕성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6. 나가는 말

55) 『중용자잠』 1. 致中非愼獨不能也, 致和非愼獨不能也, 中庸之道, 非愼獨不能也.

56) 『중용강의보』 鬼神之爲德節. 中庸之德, 非愼獨不能成, 愼獨之功, 非鬼神無所畏, 則鬼神之德, 卽吾道之所本也.

57) 『중용자잠』 1. ○致中和之能位育, 何也? 致中和者, 至誠也, 至誠者, 天道也. 至誠之人, 與天合德, 則上可治天, 下可治地. 故南正重司天, 北正黎司地, 及堯之時, 羲伯司天, 和伯司地, 以正曆象, 以建圭臬. 於是百度具舉, 庶績成熙, 山林川澤, 各有官守, 艸木鳥獸, 時養時殺, 此所謂能盡人性, 能盡物性也. 原其所本, 豈非愼獨之誠, 有以致此也乎?

58) 『중용자잠』 권3 故至誠無息節. 至誠無息者, 天也. 聖人學天既久, 其德至於肖天, 則其功化亦肖天. 故能不見而章, 不動而變, 無爲而成也. 篇末七引詩, 亦言功化之肖天.

본고는 정약용의 철학적 사유의 성장 과정에서 이벽이 남긴 철학적 자취를, 심성론과 공부론의 지평에서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벽 자신의 저술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재의 사료적 조건에서, 그의 철학을 직접 복원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약용의 글 속에는 적지 않은 이벽의 언설이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거나, 혹은 정약용 자신의 비판과 수용, 승화의 자취로 변형되어 남겨져 있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정약용에 의해 기억되고 재독해된 이벽의 사유가 30년에 걸친 정약용의 철학적 사유의 변화와 어떤 방식으로 얽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출발점은 1784년의 『중용』 조대였다. 이 시기 정약용은 율곡의 기발리승일도설을 지지하며 이벽의 퇴계 지지와 정면으로 맞섰고, 『천주실의』의 표현을 차용하여 자신의 논변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정약용은 이벽 사후 이 대립을 각각 다른 층위의 논의로 병립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는 『서암강학기』에서 자신의 초기 입장을 보존하면서도 이벽이 제시했던 공론과 부론의 구분을 계승한 데서 엿보인다. 정약용은 이벽과의 논쟁을 더 높은 차원의 설명의 틀 속에 재배치한 것이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도산사속록」에서는 퇴계의 ‘정존’ 공부 속에서 마음의 병통을 탐찰하는 맹렬한 반성의 공부를 발견함으로써 이벽의 퇴계 이해를 심화시켜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두 편의 「리발기발변」에 이르면 퇴계 심학의 정밀함에 무게중심을 두면서도 공-사 개념을 더욱 밀고 나가 아예 사단-칠정의 도덕정감과 정존-동찰의 구분을 모두 하나의 마음이 발하는 공-사의 방향성의 문제로 단순화시키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사단칠정론’의 논의를 종결하고, 마음의 반성적 성찰과 의지적 제어라는 공부의 모델을 새롭게 제기한 것이었다. 이는 주자학적 공부론을 벗어나 새로운 철학적 사유를 펼치게 되는 40세 때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유배기에 완성된 『중용』 주석서는 청년 다산의 30년에 걸친 철학적 사유의 여정이 도달한 종착지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벽의 사유는 존덕성 10구의 해석에서부터 귀신론과 신독론에 이르기까지 정약용의 철학적 사유의 핵심과 연결되는 것으로 남아 있었다. 요컨대 그것은 이벽이 주자학적 지-행의 공부론을 천-인의 공부론으로 전환하고, 귀신의 작용을 “한 시도 떠날 수 없는 도”이자 “미현”의 천덕으로 해석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약용은 이러한 이벽의 사상을 깊이 고민하고 더욱 발전시켜 존덕성 10구의 해석으로부터 항구불식의 실천을 의미하는 ‘용’의 공부론을 수립하였고, 귀신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벽 스스로는 끝내 설명해내지 못했던 이발기발의 문제를 신독의 중화론으로 수립해냈다. 이 신독의 존재론적 토대가 되는 “체물이불가유”의 귀신의 작용은 천명의 내재, 상제의 임재, 도심의 신호에 대해서도 모두 존재론적 토대가 되는데, 그 위에서 정약용은 궁극적으로 신독의 목표를 주자학적 자연의 현현에서 벗어나 인륜과 경제의 공적 질서의 확립을 이상으로 삼는 문명론으로 귀결시켰다. 결국 그의 『중용』 해석은 이벽의 도움과 그의 30년에 걸친 고투 끝에, 주자학적 자연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천명과 천도, 상제와 귀신, 성과 도심 등의 ‘미현’의 근원들에서 나타나는 양심의 소리에 경외와 경청의 태도를 취하면서, 문명 세계 속에서 인륜과 경제의 이상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공부론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약용의 오랜 사유의 궤적을 되짚어 보면, 그에게 있어 이벽은 그저 서학·서교의 소개자일 뿐만이 아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때 의견이 대립했던 논적이거나 그에게 가르침을 내린 스승과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부재하면서도 정약용으로 하여금 사단과 칠정, 도심과 인심, 천덕과 천도라는 유가 철학의 주요 논제들에 끊임없이 부딪치고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현존하는 동반자이기도 했다. 정약용은 이 부재

조현웅, 「정약용의 사유 속 이벽의 음영」에 대한 논평

노지현 (프랑스 리옹 3 대학교)

한 벗에게 끊임없이 질문과 답을 던지며 자신의 사유를 단련해갔던 것이다. 그것은 외우(畏友)의 학문정신을 진정으로 존경했던 청년 정약용의 30년에 걸친 사변의 여정이자, 망우(亡友)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그의 글과 씨름하며 학문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한 철학자의 30년에 걸친 애도와 치유의 방식이기도 했을 것이다. 정약용이 구축한 딱딱한 경학의 언어 속에 학술적 의미를 넘어서는 잔잔한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의 철학이 어떤 의미에선 더 이상 대답을 들을 수 없는 한 사람을 향해 건네는 혼잣말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본고는 정약용의 철학적 사유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벽이 남긴 사유의 흔적을 심성론과 공부론의 지평에서 추적하고자 한 연구이다. 특히 이 연구의 중요한 특징은, 1784년 『중용』 조대에서 출발하여 유배기에 완성된 『중용』 주석서에 이르기까지 약 30년에 걸쳐 전개된 사유의 흐름을 하나의 연속된 문제의식 속에서 파악하고, 이를 정약용과 이벽 사이의 '지속된 대화'로 정합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조현웅은 단절된 시기의 텍스트들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배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의 논쟁, 중기의 재해석, 그리고 후기의 체계화에 이르는 사유의 전개를 일관된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는 이벽을 단순한 영향 관계를 넘어, 정약용 사유의 형성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매개적 타자'로 파악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벽의 사유를 '음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이벽의 음영'이란 명시적 계승이라기보다, 논쟁과 불일치,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문제의식의 형태로 남아 정약용의 사유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잠재적 흔적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정약용의 사유를 하나의 내적 대화 과정으로 파악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해석학적 의의를 지닌다. 다만 이 '음영' 개념은 해석자의 구성적 개입을 강하게 전제하는 만큼, 실제 텍스트에 나타난 발화와 해석적 재구성 사이의 층위를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용강의보』의 존덕성 10구 해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조현웅은 이를 지·행의 구조가 아니라 천·인 관계의 구도로 재구성하며, 정약용이 주자학적 공부론을 전환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텍스트에 명시된 범주라기보다 해석적 틀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기존 체계와의 단절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단정적일 수 있다. 오히려 이는 동일한 문제를 다른 층위에서 재배열한 것으로 볼 가능성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의 방향은 개념 번역과 범주화의 방식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현웅은 전(專)을 '부분적', 총(總)을 '전체적'으로, 공론(公論)을 '보편적으로 논하는 것', 부론(剖論)을 '개별적으로 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개념 간의 대비를 명료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 의미가 작동하는 층위를 변형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전(專)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특정 방향이나 국면에 대한 집중을 의미하며, 총(總)은 전체 그 자체라기보다 여러 요소를 종합하는 관점을 가리킨다. 또한 공론은 보편성이라기보다 공적 타당성과 규범의 차원을, 부론은 개별성이라기보다 분석적 해명의 차원을 지시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층위—집중과 종합, 규범과 분석—에 속하는 개념들을 부분/전체, 보편/개별이라는 동일한 논리 축 위에 재배치할 경우, 개념 간의 차이는 점차 위계적 대립으로 변형된다. 그 결과, 정약용 텍스트에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던 개념들이 하나의 비교 가능한

범주로 환원되며, 이는 해석의 명료성을 확보하는 대신 의미의 다층성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점에서 조현웅의 개념 번역은 설명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석의 방향을 선취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번역의 문제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반문형 문장을 평서형으로 전환하거나, 과정적 표현을 결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은 텍스트를 하나의 정리된 구조로 제시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이는 정약용 사유의 전개 과정과 내적 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번역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해석의 방향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로 기능한다.

귀신론과 신독론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반복된다. 조현웅은 귀신의 '미현' 작용을 천덕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도의 편재성과 신독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귀신의 작용을 곧바로 존재론적 토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해석적 비약이 발생한다. 또한 도가 "잠시도 떠날 수 없다"는 설명으로부터 신독의 실천을 도출하는 과정 역시 논증적이라기보다 비유적 연결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존재론에서 공부론으로의 전환은 명시적 논증이라기보다 해석적 구성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경향은 '은미' 개념을 중심으로 귀신론, 신독, 그리고 미발이발의 중화론을 하나의 연속적 구조로 통합하는 대목에서 더욱 강화된다. 다양한 텍스트를 종합하여 일관된 사유의 흐름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을 지니지만, 그 연결은 텍스트 자체의 필연적 전개라기보다 해석적 재구성에 가까운 측면을 지닌다. 특히 정약용의 가정적 표현을 실제 사상적 합치로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텍스트와 해석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유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정약용 사유를 관계적이고 동적인 과정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지닌다. 특히 이벽을 부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음영'으로 파악한 점은, 정약용 철학을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사유의 장으로 이해하게 해 준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념 번역과 범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변형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텍스트와 해석 사이의 층위를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장년기 다산 문학 학문의 연원: 가학과 근기 남인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김영진(성균관대 한문학과)

1. 서론

다산의 청장년기는 편의상 태어나서부터 40세되던 1801년 신유사옥으로 유배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설정해둔다. 그 기간 안에서 다시 1783년 사마시(생원) 합격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하고자 한다.

가학과 관련하여 다산 가문의 선대가 8대 옥당(玉堂)이란 사실과 부친 정재원(丁載遠)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보충하고자 한다(남인당파보인 『남보(南譜)』, 『백가보(百家譜)』 등 적극 활용 필요). 다만 추가로 말해둘 것은 다산의 증조부 정항신(丁恒愼)의 거주지가 영주(榮州)였다는 점과, 그의 네 아들 가운데 장남 정지해(丁志諧)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한 반면에 셋째 아들 정지눌(丁志訥)은 용인에 거주했다는 점이다. 정지눌의 후손은 계속 용인에 세거하였다.

생원시 합격(22세) 이전 다산의 사승·교유 관계와 관련해서 다산가의 혼맥과 부친 정재원의 화순현감 시절 교유망이 새로운 자료로 추가될 수 있다. 예컨대 다산의 청년시절 성호(星湖)에 대한 존숭과 영향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재원은 1799년에 졸한 성호의 사위 이극성(李克誠)에 대한 만시(輓詩) 6수¹⁾를 쓰기도 하였다.

정재원이 화순현감으로 재임 중에 사돈 이동욱(李東郁, 이승훈의 부친)은 강진현감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한편 10대의 다산은 부친의 화순 임소에서 고승인 연담 유일(蓮潭有一) 등과 교분을 맺었다. 이때 주고받은 시가 여러 수 전한다.

다산은 1783년 봄 증광시에 생원으로 합격하였고, 같은 해 가을 둘째 형 정약전(丁若銓)이 식년시에 생원으로 합격하였는바, 이 두 시험의 동방 합격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 직후 소과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같이 재학하고 있던 황사영(黃嗣永), 강이천(姜彝天) 등 특정 인사들과의 관련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훗날 공서파가 되어 원수지간이 된 여러 문사들이 이 시기에는 다산과 밀접하게 교유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문집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 공서파/신서파를 막론하고 이 시기 다산의 교유를 살펴보는 데 있어 최근 발굴된 대표적인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정재원, 「烏城錄」, 「李衛率德中輓」, “熏灸星翁席, 淵源混老家. 純姿元道義, 潛德自光華. 鶴病同留藥, 驢行之踏花. 數珠非愛佛, 一念欲無差.”

其二, “圖書林下老, 吏隱本非情. 抗疎功名薄, 投簪爵祿輕. 香蘭終自守, 玉珮豈虛鳴. 未續歸田賦, 銅符愧死生.”

其三, “城西喬木老, 黃鳥不堪聽. 雨送丹旌路, 雲封翠草庭. 鳳飛悲舊瑟, 羸祝付遺經. 未了游齋史, 增成幾簡青.”

其四, “白首論交晚, 紅塵結契深. 真襟無染俗, 古調有知音. 只可淡如水, 誰能利斷金. 餘生期不改, 鬼物亦猜心.”

其五, “本嫌埃壙世, 能愛釣漁翁. 龜島同笙鶴, 蓬瀛異燕鴻. 看山詩獨在, 流水曲將終. 數紙相思語, 重披涕淚中.”

其六, “九日黃花餞, 三年綠樹思. 存亡還似夢, 離別更無詩. 落落秋星散, 依依曉月疑. 天涯違執紼, 泉路是前期.”

- 丁載遠, 『荷石公遺稿』, 필사본 2책, 개인 소장
- 尹弼秉, 『無號庵集』, 필사본 9권 6책, 후손가장본
- 禹景謨, 『白潭集』— 후손가장본 (역주 有)
- 李儒敬, 『瀛記』/『瀛吟』, 후손가장본 (역주 有)
- 權以綱, 『參判公遺集』, 필사본 2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姜履元, 『佩經堂集』, 필사본 2책, 일본 천리대 천리도서관(금서룡 구장본)
- 尹永僖, 『楊山集』, 필사본 1책,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
- 姜浚欽, 『三溟遺稿』, 필사본 6권 3책(전 10권5책), 연세대 흥이섭문고 소장
- 權襍 수신간찰첩 『彙牘』

2. 청장년기 다산 연보 재정리 및 보완

<청장년기 다산 연보>

- * 1762년 1세 6월에 廣州 草阜面 馬峴里에서 태어나다. 이해 3월 부친 丁載遠 식년 사마시 생원 합격하다.
- * 1766년 5세 12월에 부친 정재원이 漣川縣監이 되다.
- * 1767년 6세 부친을 따라 漣川 任所에 가서 살다.
- * 1770년 9세 11월, 모친(해남 尹德烈의 따님)상을 당하다.
- * 1771년 10세 관직에서 물러나 집에 있던 부친에게 經書와 史書를 배우다.
- * 1772년 11세 4월, 부친이 성호의 사위 이존성(후에 극성으로 개명)과 단양 일대를 유람하다.(이 때는 시를 몇 수 창수하지 않았는데, 후에 신광하의 사군 유람 시집을 보고 이에 자극받아 차운 시를 지음. 정재원, 「丹邱錄」)
- * 1776년 15세 豐山洪氏 洪和輔의 딸과 혼인하다. ○ 부친이 호조 좌랑으로 다시 出仕하게 되자, 부친을 따라 서울 明禮坊에 가서 살다.
- * 1777년 16세 星湖 李瀼의 글을 읽고, 학문에 뜻을 두다. ○ 가을, 和順 縣監(정재원, 「烏城錄」)으로 나가는 부친을 따라가다. 이때 사돈 이동옥은 강진 현감에 재임중이었다. 화순에서 정재원, 정약용 부자는 연담 유일과 많은 창화를 하였다.
- * 1778년 17세 화순현의 東林寺에서 독서하다. ○ 가을, 同福縣의 勿染亭과 光州의 瑞石山을 유람하다.
- * 1780년 19세 봄, 醴泉 郡守(정재원, 「酒泉錄」²⁾)로 옮긴 부친을 뵈고, 晉州 축석루를 유람하다.

2) 이 소집에 수록된 시 가운데 「上官後雜詠次東州翁東萊二十首」, 「郡中八弊」 등이 주목된다.

정재원, 「酒泉錄」, 「郡中八弊」, “八萬常時穀, 經荒損幾何. 虛籩七倉遍, 奸竇百岐多. 細柳徒驚鼠, 前書屢畫蛇. 若教三歲住, 應復有條科.【右倉穀】”

其二, “小吏太無畏, 軍書姿所爲. 人神紛不定, 逋贅各相欺. 游戶驚新帖, 娶閨訴舊悲. 又聞秋鍊愆, 部伍半虛糜.【右軍簿】”

其三, “庭牒如雲積, 田查日不開. 防錢歸白地, 徵稅在青山. 兔窟難容巧, 魚淵未掩姦. 峽民多喜色, 稍稍醉歌還.【右田政】”

其四, “遠遠丹陽界, 松田國所封. 黃腸多日月, 翠甲有虯龍. 山盜藏雲壑, 隣商伺月峰. 斧斨當性命, 只說沒逋蹤.【右松田】”

其五, “春秋莞織細, 地部納年年. 花彩宮筵合, 龍紋國幣傳. 拙工餘七戶, 厚賄少千錢. 京貢誰能辨, 紛紜議未圓.【右席貢】”

其六, “一邑千餘口, 哀哀內寺奴. 良民嫌嫁娶, 疎族剝肌膚. 但說除推刷, 深知藉隱逋. 軍簽移幾歲, 餘惠已全無.【右寺奴】”

○ 예천의 伴鶴亭에서 독서하다. 4월, 큰형수 경주이씨(이벽의 누이)가 시아버지 정재원의 예천 임소에 따라갔다가 돌림병으로 졸하다.(정약용, 「丘嫂恭人李氏墓誌銘」) 부친은 예천군수 재임 중 고을의 장사 朴孫慶(1713~1782)과 교분을 가졌다.

* 1782년 21세 처음으로 서울 倉洞에 집을 사다. ○ 가을, 奉恩寺에 기거하며 經義를 익히다.

* 1783년 22세 봄, 經義로 進士가 되어 太學에 들어가다. ○ 4월, 會試에 入格하여 처음으로 正祖를 알현하다. ○ 9월, 장남 丁學淵이 태어나다. ○ 둘째 형 정약전이 식년시에 생원으로 합격하다. 부친의 명으로 고향 마재에서 벗들과 어울려 합격연을 갖다. 이때 함께한 벗은 佐郎 睦萬中·承旨 吳大益·掌令 尹弼秉·校理 李鼎運이었으며, 당시 광주윤 金尙集이 세악을 보내주었다. 이 벗들과 함께 수종사를 노닐다.(정약용, 「游水鍾寺記」) 이 생원 합격 직후 서울 집과 향저에서 목만중, 윤필병 등과 함께 창수한 시들은 『화앵첩』으로 묶여 번암 채제공이 비평 하였다.(정약용, 「畫櫻帖帖」)

* 1784년 23세 1월, 자형 이승훈이 그 부친 이동옥(서장관)을 따라 자제군관으로 북경에 들어가 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다. ○ 여름, 중용강의 80여 조목에 대해 울곡 李珮의 설을 써서 답하여 정조의 인정을 받다. ○ 여름, 이벽과 斗尾峽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처음으로 西學에 대해 듣고, 『天主實義』, 『七克』 등 서학 관계 서적을 보다.

* 1785년 3월, 역관 김범우의 집에서 서학 모임을 갔다가 형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다.(정약용의 참석 여부는 확실치 않음)

* 1786년 25세 7월, 차남 丁學游가 태어나다.

* 1787년 26세 李基慶의 江亭에서 다시 서학을 접하게 되다. 이승훈, 강이원과 반촌의 김석태 집에 모여 서학서를 읽다가 추후 이 이야기를 들은 흥낙안에 의해 고발된 伴會事件이 일어난다.

* 1788년 27세 이기경이 베퍼 준 서학 관련 책을 읽다.

* 1789년 28세 3월, 식년 문과에 갑과 2위로 급제하다. 이 직후 부친이 울산부사에 제수되어 마재로부터 충주까지 배종하고 돌아오다. 8월, 부친을 뵈러 갔다가 부친과 함께 경주, 영천을 둘러, 영천에서 자신은 안동으로 가고 부친은 경상감영으로 가다. 이 때 병와 이형상의 후손가를 방문하고 시를 남기다.(「陪家君至永川, 訪李氏溪亭【則浩然亭】」) 이듬해 부친 정재원은 호연정으로 『병와선생유고』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 편지를 보냈다. ○ 抄啓文臣이 되다. ○ 겨울, 한강에 주교를 설치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規制를 지어올리다.

* 1790년 29세 2월, 예문관 검열이 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3월, 小官으로서 牌招를 어겼다 하여 海美縣에 정배되었으나, 10일 만에 귀양이 풀려 돌아오다. ○ 사헌부 지평, 사간원 정언이 되다. ○ 9월 둘째 형 정약전이 증광문과에 급제 하다. 부친은 이 때, 울산 부사 재임 중이었는데, 울산의 사인 이근오 합격연에 시를 지었다. 이근오는 이에 대한 화운시를 동방급제인 정약전에게 부침(「李新恩觀吾聞喜宴」, 『荷石公遺稿』)○ 11월, 부친이 진주목사에 제수되다.

* 1791년 30세 5월, 사간원 정언이 되다. ○ 6월(추정), 명례방 집에서 한치응, 심규로, 홍시제·이중련·윤지눌과 함께 흥겨운 술자리를 갖다가 폭우에 세검정으로 이동하여 흥취를 이은 모임을 갖다.(정약용, 「游洗劍亭記」) ○ 10월, 사헌부 지평이 되다. ○ 11월, 신주를 불태워 땅에 묻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尹持忠(정약용의 고종사촌), 權尙然이 사형에 처해지다.(진산군은 현으로 강등되고, 진산군수 申史源은 유배되었다. ○ 겨울, 『詩經』의 義 800여 조항을 바쳐, 정조에게 크게

其七, “租稅官錢納, 秋冬子母徵. 初年飢戶賴, 餘力冷厨增. 狙芋謀誰畫, 蠶絲怨己騰. 民憂當改轍, 經濟坐寒燈.【右補役】”

其八, “山僧眞可念, 米少紙還多. 相續營牌至, 頻催郡帖過. 一菴餘棟宇, 幾處賣鍾鐺. 聞有奎章貢, 其如雪色何.【右紙寺】”

칭찬을 받다.

* 1792년 31세 3월, 홍문관 수찬이 되다. ○ 4월, 진주 목사로 있던 부친이 졸하여, 5월에 忠州 하담 선영에 返葬하고 馬岘으로 돌아오다. 부친의 墓碣은 1797년 직후에, 번암 체제공이 썼다.(「通訓大夫晉州牧使丁公墓碣銘」)○ 겨울, 수원성 축조의 規制와 〈起重架圖說〉을 지어 올리다.

* 1793년 1월, 개성유수 李家煥이 상소를 올려 자신의 종조부 李潛을 변론하여, 정치적으로 큰 물의가 빚어지다.

* 1794년 33세 7월, 성균관 직장이 되다. 이즈음 명례방 집에서 죽란시사가 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8월, 備邊郎이 되다. ○ 겨울, 홍문관 교리·수찬이 되다. ○ 11월, 암행어사가 되어 積城, 麻田, 漣川, 朔寧의 민정을 살피다.

* 1795년 34세 1월, 司諫이 되었다가 곧이어 同副承旨가 되다. ○ 2월, 병조 참의가 되다. ○ 윤2월, 만형 정약현이 식년시 진사로 합격하다. 이때 정약용은 감시복시의 1소 시험관이었는데 이 시험에 남인들이 대거 합격한 것으로 물의가 일어난다. 이 때문에 의금부에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 ○ 7월, 周文謨 사건에 연루되어 李家煥은 忠州 牧使로, 정약용은 충청도 金井 察訪으로 좌천되고, 자형 이승훈은 예산현으로 정배되었다. 이때, 금정 찰방으로 재직한 5개월간 『금정일록』을 남겼으며, 〈西巖講學記〉, 〈陶山私淑錄〉등도 기록하였다. 이즈음에 강이원에게 편지(「與姜仁伯 履元」)를 보냈다.

* 1796년 35세 11월, 병조 참지가 되다. ○ 12월, 초계문신으로서 李晩秀, 李在學, 李翼晉, 朴齊家 등과 「史記英選」의 교정에 참여하다.

* 1797년 36세 1월, 대보름날 여러 벗과 함께 광통교에 답교하다. 번암 체제공을 방문하려 하였으나 번암이 권엄 대감집을 권장하여 그곳으로 가서 모임을 가지다. ○ 봄, 李書九, 尹光顏, 李相瓚 등과 『春秋左氏傳』 교정에 참여하다. ○ 6월, 동부승지가 되다. 〈辨謗辭同副承旨疏〉를 올려 자신을 천주교 신자라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 젊은 날 한때 마음을 두었던 것은 사실이나 30세 이후 功令에 몰두했음을 밝히고, 사직을 청하다. ○ 윤6월, 谷山 府使가 되다. ○ 겨울, 홍역을 치료하는 처방을 수집하여 『麻科會通』을 완성하다. 이때 황해감사 이의준이 『마과회통』을 자신의 공로로 취하려고 간행코자 하였으나, 정약용이 따르지 않았다.

* 1798년 37세 4월, 곡산 부사로 있으면서 『史記纂註』를 저술하다. ○ 『醫零』(1권)을 저술하다. ○ 12월 柳台佐에게 편지를 보내 영남의 여러 지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다.

* 1799년 38세 1월, 번암 체제공이 졸하다. ○ 2월, 黃州 迎慰使가 되다. ○ 4월, 병조 참의가 되다.

* 1800년 39세 西教 문제로 다시 물의가 일자, 반대파의 질시를 피해 향리로 돌아갈 뜻을 밝힌 상소를 바치고 처자를 데리고 馬岘里로 낙향하다. 정조가 불러 다시 상경하다. ○ 6월, 정조가 죽자 고향 마현리에 돌아가 집을 짓고, 堂號를 ‘與猶’라 하다. ○ 『文獻備考刊誤』를 완성하다.

* 1801년 40세 2월, 천주교도의 冊籠에서 저자 집안의 書札이 나온 일로 인하여, 李家煥, 李承薰, 형 丁若銓·丁若鍾이 하옥되다. 이승훈, 정약종은 참수되고, 이가환은 옥사하였으며, 저자와 丁若銓은 장기현과 薪智島로 유배되다. ○ 10월, 黃嗣永(정약현의 사위) 帛書 사건이 일어나, 저자는 다시 康津縣으로 移配되고, 丁若銓은 黑山島로 이배되다.

화앵첩(畫櫻帖)에 발함[猗畫櫻帖]

위의 화앵첩은 계묘년(1783, 정조 7) 봄, 내가 진사(進士)가 되었을 적에, 좌랑(佐郎) 목만중(睦萬中)·장령(掌令) 윤필병(尹弼秉) 등 제공(諸公)과 함께 종산(鐘山)·초수(苕水) 사이에 노닐면서 지

은 시(詩)들이다. 아버지께서 여기에 ‘화앵첩’이라고 제(題)하였다. 그것은, 진사가 되면 앵두연(櫻桃宴)을 베푸는데 지금은 절기가 아직 일러서 앵두 그림으로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화앵첩이 완성되자 번옹(樊翁) 번암(樊巖) 체제공(蔡濟恭)을 이름이 여기에 비평을 하였는데, 주사(硃砂)로 쓴 것이 바로 그것이다. 번옹이 나에게 화앵첩을 돌려주면서,

“우리들의 시맥(詩脈)은 호주(湖洲) 채유후(蔡裕後)·동주(東州) 이민구(李敏求). 이후로 오직 송곡(松谷) 이서우(李瑞雨). 이 그 정통을 얻었으나, 송곡의 시는 정교하고 치밀하기만 할 뿐, 원대한 운치가 적다. 연초재(燕超齋) 오상렴(吳尙濂). 는 송곡 문하(門下)의 안자(顏子)이고, 희암(希菴) 채팽윤(蔡彭胤). 은 송곡 문하의 증자(曾子)인데, 그후로는 오직 약산(藥山) 오광운(吳光運). ·국포(菊圃) 강박(姜樸). 만이 그 전통을 얻었다. 나 번옹(樊翁)이 자신을 가리킨 말. 같은 사람은 몽서(夢瑞) 간옹(艮翁) 이헌경(李獻慶)·법정(法正) 정해좌(丁海左). 에게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후진(後進)들이 의탁할 곳이 없으니, 자네는 힘쓰게.”

라고 하기에, 나는,

“어찌 감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었다. 수년 후에 그동안 지은 시를 가지고 노량촌(露梁村)에 은거해 있는 공(公)을 찾아갔더니, 공이 그 시를 보고,

“자네의 시가 지금은 괄목한 만하구려.”

하였는데, 그것은 이 화앵첩의 시보다 좀 나아졌다는 뜻이었다. 지금 번옹은 이미 별세하였으므로, 그를 위해 책을 어루만지며 슬퍼하노라.³⁾

游水鍾寺記 (『여유당전서』 제1집 시문집 제13권)

幼年之所游歷，壯而至則一樂也，窮約之所經過，得意而至則一樂也，孤行獨往之地，攜嘉賓挈好友而至則一樂也。余昔童丱時，始游水鍾，閒嘗再游，爲讀書也，每數人爲伴，蕭條寂寞而反。乾隆癸卯春，余以經義爲進士，將歸苕川。家君曰：“此行不可以草草也。徧召親友與之偕。”於是陸佐郎萬中·吳承旨 大益·尹掌令 弼秉·李校理 鼎運，皆來同舟，廣州尹送細樂一部以助之。既歸 苕川之越三日，將游水鍾，少年從者亦十餘人。長者騎，或騎牛焉騎驢焉，少年皆徒行。至寺日正晡矣，東南諸峰，夕照方紅，江光日華，照映戶牖，諸公相與譔諧爲樂。至夜月色如畫，相與徘徊瞻眺，命酒賦詩。酒既行，余爲三樂之說，以侑諸公。水鍾者，新羅古寺，寺有泉，從石竇出，落地作鍾聲，故曰‘水鍾’云。

* 1783년 봄 계묘 증광 소과 합격: 좌랑(佐郎) 목만중(睦萬中)·승지(承旨) 오대익(吳大益)·장령(掌令) 윤필병(尹弼秉)·교리(校理) 이정운(李鼎運) 당시 광주운[金尙集]이 세악을 보내줌

游洗劍亭記 (『여유당전서』 제1집 시문집 제14권)

洗劍亭之勝。唯急雨觀瀑布是已。然方雨也。人莫肯沾濕韃馬而出郊關之外。既霽也。山水亦已衰少。是故亭在莽蒼之間。而城中士大夫之能盡亭之勝者鮮矣。辛亥之夏。余與韓倭甫諸人。小集于明

3) 정약용, 『與猶堂全書』 제1집 시문집 제14권, 「猗畫櫻帖」, “右《畫櫻帖》, 癸卯春, 余爲進士, 而陸佐郎【萬中】·尹掌令【弼秉】諸公, 同遊於鍾山·苕水之間, 所得諸詩也。先君題之曰‘畫櫻帖’, 以進士有櫻桃宴, 而今時尚早, 以畫代之也。帖既成, 樊翁爲之批評, 其硃書者是也。樊翁還余以帖而語之曰: ‘吾黨詩脈, 自湖洲【蔡裕後】·東州【李敏求】以來, 唯松谷【李瑞雨】得其宗, 而松谷之詩, 工緻少遠致。燕超齋, 【吳尙濂】松門之顏子, 希菴, 【蔡彭胤】松門之曾子, 嗣此唯藥山【吳光運】·菊圃【姜樸】得其傳。若吾【吾, 樊翁自道】有不及夢瑞【李良翁 獻慶】·法正。【丁海左】然後進無所託, 子其勉之。’ 余曰: ‘何敢望焉?’ 後數年, 袖所爲詩, 訪公於露梁村屏居之日, 公曰: ‘子詩, 今可刮目。’ 謂其有進於斯帖也。今樊翁已沒, 爲之撫卷而悽惋也。”

禮坊。酒既行。酷熱蒸鬱。墨雲突然四起。空雷隱隱作聲。余蹶然擊壺而起曰。此暴雨之象也。諸君豈欲往洗劍亭乎。有不肯者罰酒十壺。以供具一番也。僉曰可勝言哉。遂趣騎從以出。出彰義門。雨數三點已落。落如拳大。疾馳到亭下。水門左右山谷之間。已如鯨鯢噴矣。而衣袖亦斑斑然。登亭列席而坐。檻前樹木。已拂拂如顛狂。而洒浙徹骨。於是風雨大作。山水暴至。呼吸之頃。填谿咽谷。澎湃砰訇。淘沙轉石。渤澥奔放。水掠亭礎。勢雄聲猛。榱檣震動。凜乎其不能安也。余曰何如。僉曰可勝言哉。命酒進饌。諧謔迭作。少焉雨歇雲收。山水漸平。夕陽在樹。紫綠萬狀。相與枕藉吟弄而臥。有頃沈華五得聞此事。追至亭。水已平矣。始華五邀而不至。諸人共嘲罵之。與之飲一巡而還。時洪約汝，李輝祖，尹无咎亦偕焉。

* 신해년(1791, 정조 15) 여름 명례방(明禮坊): 한혜보(韓溪甫, 한치응), 심화오(沈華五, 심규로), 홍약여(洪約汝 홍시제) · 이휘조(李輝祖, 이중련) · 윤무구(尹无咎, 윤지눌)

사헌부 지평 윤무구(尹无咎) 묘지명

계축년(1793, 정조 17) 이후로 오로지 천전(天全)정 약전(丁若銓)과 좋아하여 날마다 이주신(李周臣) 유수(儒修) · 한혜보(韓溪父) 치응(致應) · 윤외심(尹畏心) 영희(永僖) · 강인백(姜仁伯) 이원(履元) 과 남산 아래에 모여 술을 실컷 마시며 온갖 놀이를 하는데 혹은 소릉(少陵)에서, 혹은 직금방(織錦坊)에서 하여 그 처소를 자주 바꾸었다. 내가 채이숙(蔡邇叔) 홍원(弘遠) 과 그 단정하지 못함을 자주 꾸짖었으므로 배척하고 이 모임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감분(感憤)하고 비탄(悲歎)하며 유속(流俗)의 꾸며대고 아침 잘 하는 태도를 즐겨보았다. 오직 한혜보(韓溪父)만은 술을 조금만 마시면 곧 취하였으므로 방언(放言) 말을 함부로 함)이 없었다.4)

3. 청장년기 다산의 모임

<죽란시사 동인 일람표>

	성명	본관	자/호	문과 급제	관력	비고
1	李儒修	咸平	周臣/錦里, 綺里	1783년 증광시 병과13위	사헌부 장령	
2	丁若銓	羅州	天全/巽庵, 研經齋	1790년 증광시 병과26위	병조 좌랑	
3	洪時濟	唐城	約汝	1790년 증광시 병과36위	사간원 대사간	
4	李錫夏	延安	聖勛	1775년 정시 병과21위	승정원 도승지	
5	李致薰	平昌	子和	1798년 식년시 을과1위	미상	
6	李周奭	完山	良臣	1794년 정시 병과46위	승문원 부정자	
7	韓致應	西原	溪父/粵山	1784년 정시 갑과1위	병조 판서	
8	柳遠鳴	晉州	振玉	1794년 정시 병과12위	강릉부사 승지	
9	沈奎魯	靑松	華五	1782년 정시 병과6위	승정원 승지	

4)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시문집 제16권, 「司憲府持平尹(无咎)墓誌銘」, “癸丑以後。偏與天全好。若銓日與李周臣 儒修, 韓溪父 致應, 尹畏心 永僖, 姜仁伯 履元。會于南山之下。轟飲雜戲。或于少陵。或于織錦坊。屢易其處。余與蔡邇叔 弘遠 數詆其不端。故擯不與此會。皆感憤悲吒。睥睨流俗修飾脂韋之態。唯溪父飲少輒醉無放言。”

10	丁若鏞	羅州	美庸/茶山, 與猶堂, 三眉 등	1789년 식년시 갑과2위	형조 참의	
11	尹持訥	海南	无咎/小阜	1790년 알성시 병과1위	사헌부 지평	
12	蔡弘遠	平康	邇叔/於斯散人	1792년 식년시 병과49위	승정원 승지	
13	申星模	高靈	景甫/陶山	1787년 정시 병과10위	승정원 승지	
14	韓百源	淸州	元禮	음관	익찬(음관)	
15	李重蓮	延安	輝祖	1790년 알성시 병과2위	승지 대사간	

4. 청장년기 다산과 근기 남인 관련

<『영남인물고』 권별 수록 지역 및 편수관>(이연숙, 『한국고전총간 해제』, 2022 참조)

권차	지역 및 수록인명 수	총 인원수	편수관	비고
	목록(目錄)			수록인물 860명
1	安東(一) 47	47	蔡弘遠(1762~?)	
2	安東(二) 37	37	丁若銓(1758~1816)	
3	安東(三) 57	57	李儒修(1758~1822) 韓致應(1760~1824)	
4	尙州(一) 65	65	睦萬中(1727~1810) 沈奎魯(1761~?)	
5	尙州(二) 13 禮安 37 軍威 9 英陽 1	60	尹弼秉(1730~1810) 李鼎運(1743~1800)	
6	慶州 33 密陽 19 新寧 3	55		편자부분 落張(權漣, 李錫夏, 蔡弘履로 추정) 李致薰(1759~?)으로 추정
7	星州 35 義城 20	55	李○薰 洪命周(1770~?)	
8	晉州 42 咸陽 10 慈仁 4	56	蔡弘履(1737~1806) 權應範(1734~?) 沈奎魯(1761~?)	
9	永川 30 大邱 25	55	李○珩 沈達漢(1740~?)	李之珩(1733~?)으로 추정
10	榮川 38 龍宮 14 河陽 2 眞寶 2	56	李祉永(1730~?) 姜浚欽(1768~?)	
11	醴泉 31 善山 26 泗川 1 河東 1	59	權坪(1734~?) 姜浚欽(1768~?)	
12	順興 28 豐基 3 奉化 11 寧海 16 義興 1 寧 1 盈德 1 居昌 1 山淸 1	63	洪樂敏(1751~1801) 睦萬中(1727~1810) 柳遠鳴(1760~?)	
13	陝川 17 咸昌 6 丹城 8 高靈 7 知禮 2 昌原 5	67	李泳夏(1769~?) 柳遠鳴(1760~?)	

	草溪 11 金海 2 蔚山 3 梁山 2 固城 2 東萊 2 聞慶 5 仁同 8 靈山 10 比安 6 金山 6 漆谷 4 清道 17 昌寧 6			
14		62	洪命周(1770~?) 金熙洛(1761~1803) 李基慶(1756~1819) 李儒慶(1748~1818)	
15	安義 11 宜寧 24 咸安 21 三嘉 7 玄風 3	66	洪樂敏(1751~1801) 洪義浩(1758~1826)	

「청장년기 다산 문학 학문의 연원 : 가학과 근기 남인과의 교류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윤재환(단국대학교)

김영진 선생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청년 다산의 교유에 대해 새롭게 정리해 보고자 하는 선생님의 글은 현재 정제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다산 관련 연구를 새롭게 돌아보고, 다산의 인적 관계망을 보다 촘촘하게 정리하여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찾는 시도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의 토론을 맡아 글의 작성에 도움을 드려야 하지만, 다산에 관한 연구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고, 글의 전체적인 방향과 논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토론자의 책무를 지니고 있기에 선생님께서 글을 완성하실 때까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한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산이라는 인물의 위치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산에 대한 평가를 볼 때 다산은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위상을 지닌 인물로 비정됩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학적으로 다산의 위치는 확고부동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의 당대 위치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다산은 상당한 지점에서 중간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당대 근기 남인과 영남 남인, 남인 관료 문인과 재야 문인, 신서파 남인 문인과 공서파 남인 문인, 그리고 노장 문인과 소장 문인의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다산이 교유했다고 알려진 인물들과 다산의 관계 그리고 다산이 교유했던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과 이어지는 것으로, 다산이 수종사에서 함께 했다고 알려진 인물들과 다산의 생몰년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762년에서 1836년까지 생존했던 다산과 수종사에서 함께한 목만중은 1727년부터 1810년까지 생존했고, 오대익은 몰년이 불분명하지만 1729년 생이고, 윤필병은 1730년부터 1810년까지 생존했으며, 이정운은 1743년부터 1800년까지 생존했습니다. 이들과 다산은 많게는 약 40년, 적게는 약 20년 정도의 연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란시사에서 함께 한 인물들 15명은 그와 연차가 위로 4년 밑으로 4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들을 같은 선에 놓고 언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과 같은 문제에 대해 고려하여 다산의 교유망을 좀 더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다산의 교유 각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해명입니다. 다산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인물들과 교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교유가 모두 동일한 의미나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산의 교유는 대상에 따라 다른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다산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산의 교유 각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단순히 교유망 재구성을 넘어 다산을 재인식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글에 대한 제 이해가 얼마나 정확한 것이었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산의 교유망을 살피는 작업에 관해 제가 생각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선생님의 논지를 해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훌륭한 연구 결과가 만들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4회
다산학 학술회의
The 44th Conference of Tasan Studies

| 다산 서거 190주년 기념 |
청년 다산

다산학술문화재단



066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나주정씨월헌회관 801호)

#801, Wolhun Bldg,
248 Seocho-Dae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02 · 585 · 0484 FAX 02 · 587 · 9549